

- 남한 사회주의자들의 법정선언-윤철호, 오동렬 외



- "사회주의는 인간존중의 사상입니다."
- "사회주의자는 인간양심이 선택하는 가장 자랑스런 칭호입니다."
- "도대체 사회주의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딛고 서 있는 절망과 분노의 대지 위에 희망과 확신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다름아닙니다."

그렇소, 우리는 사회주의자요!



# 그렇소, 우리는 사회주의자요!

윤철호, 오동렬 외

됊**일 빛** 1990

책 머리에 ···································	7
최후 진술 1 김창덕 최후 진술 "몇억 짜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 사는 자본가와 보증금 50만 원, 월세 5만 원에 사는 노동자 사이에서 누가 양보해야 합니까? 몇천만 원 짜리 자가용 타고 출퇴근하는 자본가와 140원 짜리 버스 타고 출근하는 노동자사이에서 누가 양보해야 합니까?"	13
최후 진술 2 김용숙 최후 진술 "아무도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 않기에 노동자들 스스로 뭉쳐 노동자를 위한 출판물을 만든 것이 왜 북한 을 이롭게 한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18
최후 진술 3 최병국 최후 진술 "남한의 현대사는 독점 재벌의 무제한적 수탈의 역사, 독재 정권의 가혹한 민중 운동 탄압의 역사이며 국가 보 안법은 그 법적 표현에 다름아닙니다"	28
최후 진술 4 윤철호 최후 진술 ····· "사회주의 사상은 무엇보다도 인간 존중의 사상입니다" "혁명가? 그것이 본인을 규탄할 용어가 될 수 있을까 요?"	36

## 제2부 항소 이유서

항소 이유서 1 <b>오동렬 항소 이유서</b> 61
"우리〈인노련〉이 북한의 노선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단순히 북한의 노선과 이러저러한 점에서 다르다는
데 그쳤던 것이 아니라, 북한의 노선에 대하여, 그리고
북한에 대하여 완전히 자주적이며, 남한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 확고히 선다는 주체적인 노선과 입장을 분명히
한 데 있습니다"
항소 이유서 2 윤철호 항소 이유서 ···· 102
"도대체 사회주의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동자
계급과 민중이 서 있는 절망과 분노의 대지 위에 새롭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의 씨앗을 뿌리는 일
에 다름아닙니다"
•
에 다름아닙니다" · 제3부〈인노련〉10월 사건 관련 자료
제3부〈인노련〉10월 사건 관련 자료
제3부〈인노련〉10월 사건 관련 자료         자료 1 오동렬 공소장       165
지3부〈인노련〉10월 사건 관련 자료  자료 1 오동렬 공소장
지3부〈인노련〉10월 사건 관련 자료  자료 1 오동렬 공소장
지3부〈인노련〉10월 사건 관련 자료  자료 1 오동렬 공소장
지3부〈인노련〉10월 사건 관련 자료  자료 1 오동렬 공소장
지3부〈인노련〉10월 사건 관련 자료  지료 1 오동렬 공소장
지3부〈인노련〉10월 사건 관련 자료  자료 1 오동렬 공소장



## 책 머리에

사실 저는 별다른 주목을 받을 수 없을 만큼이나 일상사가 되어버린 그런 류의 노동 운동 탄압 사건의 한 당사자로서, 결국은 저와 〈인노련〉에 대한 탄압을 위한 요식절차처럼 되어 버릴지도 모를 이 재판정에서 도대체가 진지한 최후 진술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하고 회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보 세력의 승리는 항상 반동 세력의 단죄에 맞선 성실한 답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신념에 따라, 저 또한 그 전통을 따르고자 합니다(윤철호의「최후 진술」에서).

하지만 그날 이들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이는 몇몇 친지, 가족들을 제외하곤 독재 정권의 시녀가 된 해당 검사, 판사들뿐이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전파하고자 이 책자를 내는 동기는 혈연의 정을 넘어선 숨길 수 없는 진실에의 이끌림이다.

그들의 법정 진술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인천 지역 민주 노동 자 연맹) 회원들을 국가 보안법으로 구속시킨 검찰의 행위와 논 리가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대남 정책에 동조하는 이적 단체라고 하는 검찰의 공소는 밝은 태양을 한 뼘의 손바닥으로 가려보려 하는 가련한 짓일 뿐. 그 것은 이 땅의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피를 가지고 재산을 늘리고 호화 사치를 구가하는 독점 재벌 및 소수 지배자들이 자신의 지배를 연장하기 위해 성장하는 노동 해방의 목을 죄려는 음모에 지나지 않는 일이었다.

왜 국가 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하는가, 왜 〈인노련〉을 이적 단체로 공소한 것이 근거 없는 허구인가에 대해 검찰을 비롯하여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사람들 그 누군가는 정정당당하게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책의 출간이 갖는 의의는 〈인노련〉 사건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선 데 있다. 이번 구속된 〈인노련〉 회원들의 법정 진술이 갖는 특색은 그들이 자신의 사상을 아주 진지하게 밝힌 점이다. 그들은 반공주의가 모든 진리를 짓눌러온 동토의 남한 땅에서, 동구 유럽의 사회주의 사회가 몰락한다며 온갖 부르주아 언론들이 법석을 피워대는 1990년 바로 이 시점에서 홀연히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외치고 나섰다.

사회주의 운동은 누구의 운동입니까? 그것은 일하는 노동자계급의 운동입니다. 그 운동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모든 나라에, 노동자계급의 삶과 투쟁이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사회주의 이념이 추구하는 이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존엄과 자유와 평등의 추구에 있습니다. 그 이상이 부르주아들의 수사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윤철호의「항소 이유소」에서).

남한에서 태어나 박정희 시대의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

그러나 박정희 시대에 태어난 노동자 계급의 일원이 된 이들은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와 그것의 마르지 않는 수원이 되고 있는 6·25 전쟁에 대하여, 이 반공주의의 현대판인 동구 유럽의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편파적 선전에 대하여, 그리고 남한의 사회주의자와 북한 조선노동당과의 근본적 관점 차이에 대하여 법정 마당을 빌어 자신의 생각을 유감없이 밝히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진실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들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술좌석에서 이들이 제기한 진술을 가지고 주위의 동료, 친지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켜온 위대한 발견과 운동은 압제자의 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자연과 인간에 관한 깊은 탐구를 마다하지 않는 과학자와 혁명가들에 의해 나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남한의 노동 형제들에게 바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한다. 외람된 표현일지 모르나 노동 형 제들은 이 책에서 "참 하고는 싶었으나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 해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사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제1부」는 법정 최후 진술로 구성되는데 원래는 여기 실린 글 말고도 우리가 경청할 가치가 있는 진술들이 많았다. 지면 관계상, 편집 체계상 네 편만을 골라 실었다. 「제2부」에는 윤철호와 오동렬이 쓴 항소 이유서 두 편만이 실려 있는데 옥중의〈인노련〉회원들 모두의 뜻을 대표하여 이 두 분이 공동으로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제3부」에는〈인

노련〉 10월 탄압 사건에 관한 관련 자료들이 실려 있다. 〈인노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동렬의 검찰 공소장을 먼저 읽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디 검찰이 작성한 문건에는 진실의 왜곡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노련〉은 자신의 입장, 새롭게 내린 결정들을 기관지를 통해 빠짐없이 공개해 왔고따라서 특별히 지켜야 할 비밀이 별로 없었던 관계로 오동렬의 공소장은 〈인노련〉의 활동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문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한 일빛 출판 사에 감사를 드리며 다음의 인용으로 이 글을 맺는다.

#### 재판장님!

이제 당신들의 시간입니다. 〈인노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십시요. 우리는 역사의 판결을 기다릴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우리의 몸은 또 다시 교도소로 향할 것이나 우리의 마음은 민중의 바다로, 끝도 없이 이어지는 노동 해방 투쟁의 대열과함께 할 것입니다(윤철호의「항소 이유서」에서).

1990년 8월 25일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구속자 가족위원회

김창덕 최후 진술 / 13. 김용숙 최후 진술 / 18 최병국 최후 진술 / 28 윤철호 최후 진술 / 36

# 勞聯'こ

노현용 철정하뮈 노동법개 정전국노동자대회 (8년 년) 월) 등 지금까지 모두 2019 양당산업파업 (1위 집회활동 1명 (1위 집회활동 의심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회주의 국가건설과 북한과 서 근로자들을 대상이로 사 면공(聯共)통일노선용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 서울대 고려대 운동권을

**파업·示威 주도·배亭조종** 

「聯共통일」의식화… 지하당결성 추진

『국민일보』1989년 10월19일자

# 김창덕 최후 진술

(28, 노동 상담원)

<sup>&</sup>quot;몇억 짜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 사는 자본가와 보증금 50 만 원, 월세 5만 원에 사는 노동자 사이에서 누가 양보해야 합 니까?

몇천만 원 짜리 자가용 타고 출퇴근하는 자본가와 140원 짜리 버스 타고 출근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누가 양보해야 합니까?"

#### 노동 운동을 하게 된 두 가지 이유

제가 노동자가 된 지 꼭 10년 만에 국가 보안법이라는 죄명을 쓰고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왜 노동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왜 노동 운동을 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최후 진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노동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당당한 사회인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하며 공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들어간 공장은 저에게 실망과 분노만을 안겨 주었습니다. 일당 1,850원이라는 저임금과 매일 반복되는 잔업,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는 지긋지긋한 철야 작업은 저로 하여금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작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들어가 봐야 춥고 떨리는 방과 폭력만이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노동 조건 속에서 노동 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노동 조합 결성조차도 자본가는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길거리로 내몰 았습니다.

이에 저는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도와준다는 노동부, 노동 위원회, 경찰 등을 찾아다니며 회사 측의 부당 행위를 처벌할 것을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 어디에서도 노동자의 요구에 귀기울이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라는 이유로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제가 택할 수 있는 길로는 노동 운동을 통하여 노동자의 정당한권리를 찾느냐, 아니면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

르는 노예 같은 삶을 사느냐 하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노동자로서 노동 운동의 길로 접어들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계속 노동 운동을 해야만 하는지, 왜 하였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과 신문 등 선전 매 체를 통하여 정부는 노사 간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타협할 때만이 산업 평화를 이룩할 수 있고 국가를 발전시킨다고 이야 기합니다. 그러나 한번 살펴봅시다.

몇억 짜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 사는 자본가와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5만 원 짜리 집에 사는 노동자 중에서 누가 양보해야 합니까? 또한 몇천만 원 짜리 자가용 타고 출퇴근하는 자본가와 140원 짜리 버스 타고 출근하는 노동자 중에서 누가 양보해야 합니까? 하루에 룸살롱에서 몇십만 몇백만 원씩 양주 마시는 자본가와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는 노동자 중에서 누가양보를 해야 하는지는 어린아이에게 물어도 뻔한 대답이 나올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너무도 당연한 이치를 자본가들은 절대 스스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꼭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할 때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노동 운동을 해야만 하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몇십 년을 공장 노동자로 살아오셨고 저 또한 아무런 변화 없이 공장 노동자로 생활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생활은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저임금, 똑같은 장시간 노동 속에 어느한 군데 나아진 게 없으며 가난한 것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님 때의 자본가와 달리 현재의 자본가는 엄청난 부를 축

적하였고 거대한 힘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노동자는 여전히 못 살고 멸시·천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딸아이에게만큼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노동자, 역사 발전의 주체로서 당당하고 자랑스런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는 노동 운동을 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 왜 노동자의 정치 활동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왜 노동자가 정치 세력화되어야 하며 정치 활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린 보너스를 제때에 지급하라는 현대 중공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상 유례 없는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탄압을 보면서, 또한 노사 간에 합의한 단체 협약을 준수하라는 지하철 공사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에 의한 무자비한 탄압을 보면서 현 정권이과연 누구의 편인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노동자들은 깨달 았습니다. 노동법을 맘대로 고치고 해석하는 것도 정치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박살내는 것도 정치입니다.

그러나 이 정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는 법으로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법률이 상정되면 온갖 로비와 청탁을 통하여 또는 직접 적으로 그 법률을 철회시키고 자본가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냅니다. 이때 자본가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은 당연히 노동자에 게는 불이익을 줍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 조차 없습니다. 보수 야당이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의원 50% 이상이 자본가이거나 직·간접 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이러하기 때문에 바로 노동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 세력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3당 통합 이후에 전노협과 민주 노조에 대하여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무자비한 탄압을 하는 것을 보면서 노동자들이 3당 통합을 반(反)노동자적이며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야합한 것이라 외치며, 이제 노동자가 정치 세력화되어야 하며, 정치 활동을 보 장하라고 싸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에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아온 노동 악법과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탄압하는 국가 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법은 노동자들에게 적용될것이 아니라 노동자로 하여금 분노하고 투쟁하게 만드는 자본가와 현 정권에게 노동 악법과 국가 보안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생각합니다.

1990년 4월 2일

〈최후 진술 2〉---

# 김용숙 최후 진술

(28, 인쇄 노동자)

<sup>&</sup>quot;아무도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 않기에 노동자들 스스로 뭉쳐 노동자를 위한 출판물을 만든 것이 왜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 일평생 청춘과 젊음을 공장에 바친 아버지

이 자리를 빌어서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오신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물려받은 재산 없고 배우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아버지도 일찍부터 노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정년 퇴직을 하실 때까지 일평생 청춘과 젊음을 모두 공장에 바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한창 커갈 무렵 직장의 이동을 따라 거제로 가 늙으신 몸으로 정년 퇴직 때까지 7년이나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하셔야 했습니다. 일년에 두세 번 정도 집에 다녀가셨는데 그때마다 가정의따뜻한 정을 확인하기도 전에 하루라도 더 일하시기 위해 서둘러 공장으로 돌아가시곤 하셨습니다. 잔업과 특근으로 아버지자신의 몸을 갉아 먹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자식들을 고등학교까지라도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당시 잔업을 매월 150시간씩 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푹 꺼져 들어간 아버지의 눈과, 양볼과, 거친 손 위의 시퍼런 힘줄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니시던 공장엔 해마다 신체 검사를 하여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가차없이 쫓겨나야 했습니다. 고된 노동에 비해 형편없는 식사와 혈압까지 높으신 까닭에 건강이 좋을 리가 없는 아버지께서는 해마다 봄만 되면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대리 신체 검사를 받으시곤 늘 불안해 하셨습니다.

정년 퇴직 당시 아버지의 체격은 170 cm 정도의 키에 52 kg이 못나갔는데 뼈만 앙상히 남고 광대뼈가 툭 불거져 나와 차마 뵙 기에도 죄송스러웠습니다. 중학 2년이 최종 학력이신 아버지께 서는 중학교 졸업장이 없어 최고의 경력과 기술을 가지고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것이 죄라며 고통을 안으로 삭이셨던 분입니다. 평생을 산업 전사로 서 오직 한 길만 달려오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검소하며 부지 런하셨던 아버지가 맞는 정년 퇴직은 그 대가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을 또다시 걱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7년이란 세월은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이해하지 못할 만큼 서먹서먹한 간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 집에서 아무 하는 일 없이 밥만 축낸다고 괴로워하시던 아버지는 말씀도 거의 안하시고 늘 우울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께 걱정만 마시고 이왕 계실 바에야 마음편히 잡숫고 지내시라는 속없는 소리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1987년 봄이었던가. 아마 저는 그날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겁니다.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으시던 아버지께서 그날은 웬일인지 나가셔서 밤이 깊어 약주를 많이 드시곤 5층 꼭대기까지 헉헉 대시면서 단숨에 뛰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신발도 벗으시기 전에 크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제는 놀고먹지 않아도 된다. 일하고 돈벌게 되었단 말이다."

그날 밤 아버지는 소풍가기 전날 애들마냥 작업복을 챙겨 가방에 넣어두시곤 뒷짐을 지고 밤새도록 마루를 왔다갔다 하며서성대셨습니다. 그날 저는 이불 속에서 아버지의 꿈이 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얼굴이 퉁퉁 붓도록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단단한 각오로 취직하시어 일당 일만원을 받으시

며 두 달인가 다니시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결국은 그만두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대공장을 다니셨었는데 마쯔꼬바 같은 조그만 공장의 나쁜 작업 환경과 불규칙한 일감, 과도한 노동, 늙은이라고 천대하는 눈치를 도저히 견뎌내실 수 없어대책도 없이 그만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 늙은 노동자의 딸인 나

그 아버지, 아니 늙은 노동자의 딸인 저는 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을 배워 작은 인쇄소만을 전전한 지 9년째 된 노동자입니다. 1982년도 제가 청타를 배우던 학원은 3개월 수강 기간이 지나면 순서에 따라 취업을 시켜주는 곳이었습니다. 대개 견습생을 보내달라는 연락은 인쇄 하청 업소에서 오는데 작업 조건이야 어떻든 우선 경험을 쌓겠다고 뛰어둡니다. 그 이유는 견습 기회조차 계절을 몹시 타고, 또 기술직은 경험을 쌓지 않으면 어디서나 찬밥 신세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소개받은 곳은 종각 근처에 있는 어느 인쇄 대행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때는 초겨울이었고 갑작스레 불어닥친 추위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져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날씨였습니다. 집에서 걸리는 시간이 1시간 30분, 첫 출근날 사무실 앞에 도착하니 8시가 못된 시각이었고, 9시가 넘도록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을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바람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몸이온통 꽁꽁 얼어붙었는데도 바람 피할 곳이 없어 난로 연기 나오는 만두집 문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웠던 기억이납니다. 첫날부터 반갑다고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 사주지 않는

주인을 보면서 내가 견습공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다음날부터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명색이 견습공인지라 가자마자 마포질에 걸레질에 줄기차게 먹어대는 커피잔 설겆이에,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손을 호호 불어대며 재떨이 청소까지 궂은 일도 마다 않고 끽소리없이 일했고, 교정보고 수정하느라 야근을 해도 저녁 한 번 안 사주는 주인의 눈치를 보며 겨우 자리를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다닌 어느날 퇴근 시간에 여직원이 슬그머니 저를 보자고 하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사장이 일감이 밀 릴 적마다 월급쟁이를 둘 수는 없고 도급을 부르자니 돈이 너무 들고 해서 그때마다 학원에 연락하여 견습생을 데려와 돈 한 푼 안 들이고 얼마간 부려먹다가 못 나오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대꾸없이 나와버렸지만, 온 갖 서러움이 몰려들고 게다가 부모님을 대할 면목이 없어 못난 자신을 한탄만 하였습니다.

그후로도 첫 봉급 6만원에 취직을 하고 난 후 이곳 저곳을 전전하였지만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1981년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에는 동대문 새벽 의류 도매 상가에서 3개월간 점원으로 일했었는데 거기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디서나 마찬가지였고 언제나 그 서러움은 내자신이 못난 탓이라는 질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쇄바닥을 벗어나기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밤 만원 전철 속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공무원 시험을 위한 교재를 들여다보았고 무려 세 번이나 응

시를 하였습니다. 인천시 행정직 공무원, 경기도 소방직 공무원, 서울특별시 경찰국 여순경 채용 시험 등에 응시를 했지만 직장 에 다니면서 졸음과 싸우며 공부한 실력이란 너무도 뻔한 것이 었습니다. 도저히 현실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다시 독하게 마음을 다져 먹었습니다.

그때부턴 돼지우리 같은 인쇄소에서도, 하꼬방 같은 구석진 공장에서도 아버지와 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소한 내가 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직업에 충실하는 것이라 여기면서 보 너스, 퇴직금도 없는 인쇄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름에는 선 풍기조차 제대로 없고 겨울에는 갈탄 먼지 날아다니는 형광등 불빛을 코앞에 대고, 납가루를 마시며, 때로는 책을 만드느라 발라놓은 본드 냄새가 신경을 뒤흔들어놓는 가운데, 팔이 떨어 져나가고 눈이 빠질 것 같고 허리가 휠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내일의 꿈을 갖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 꿈은 사회에서 소외되 고 억업받는 사람들을 위한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저는 신앙에 따라 북한 선교회를 3년이나 다녔고 오로지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악한 것은 사랑이 없는 까닭이라고 생각하여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되길 눈물로 기도하곤 했습니 다. 그러나 아버지의 정년 퇴직 후 왜 노동자는 언제나 가난하 고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권력으로부터, 돈으로부터, 노동으로부터 소외받 는 민중들의 고통에 찬 모습이 눈에 비쳤고 그것은 곧 수많은 아버지의 모습이며 또한 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 고통스러운 노동자의 삶은 못난 팔자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그때까지도 노동자임을 부끄러워했던 제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나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손으로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새로운 신앙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7,8월 이후에 노동자들의 각종 집회와 홍보 활동으로 인한 유인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제가 일하는 곳까지 밀려 들었습니다. 그일 속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은 노동자로 살아온 저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못난 팔자 탓이라고, 운명이라고 체념했었던 이전의 제모습이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제 직업과 관련된청타 작업을 하게 되었고 「노동자의 길」, 「사회주의자」 제작 인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이야기하자면 올해 사장들의 모임인 경제 단체 협의회에서 내놓은 임금 인상률은 7%이고, 경제 단체 협의회 발표가 있자마자 정부에서는 임금을 7% 이상 인상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협박을 해댔습니다. 우리들이평소 대하는 언론은 노동 쟁의 때문에 경제가 뿌리까지 흔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등의 노동자의단결을 금지하는 독소 조항을 정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 침체의 참된 주범은 부동산 투기와 돈이 너무풀린 까닭인데 이는 작년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전국 월급쟁이의 금액을 합한 액수보다도 4.2배나 많다

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또 제3자 개입 조항은 사장이 경찰과 정권을 동원하여 파업을 깨는 것에는 해당되지 않고 노동자들이 다른 사업장에 가서 손이라도 흔들기라도 하면 즉각수갑이 채워집니다. 이러한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기존의 신문등 언론은 모든 잘못의 주된 요인을 노동자에게로 돌릴 뿐 아니라 가진 자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면서 현실의 모든 일들을 시원스럽게 말해 주지 못합니다. 북한을 이롭게 할 소지가 있다는이유만으로 다양한 견해들을 마음대로 말하고 출판할 수 없는현실은 1천만 노동자의 고통스런 현실의 모습을 너무나도 왜곡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현실을 노동자의 목소리로 말할 노동자의 출판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 않기에 노동자들 스스로 뭉쳐 고통스런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를 위한 출판물을 만든 것이 왜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노동자의 길」과 「사회주의자」의 제작·인쇄 또한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로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 직업이 인쇄 노동자이기에 자 연스럽게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당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외친 구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와 '노동자의 서러움, 투쟁으로 끝장내자!'였습니다.

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절규했습니까? 무엇이 노동자를 그토록 서러운 인생으로 만들었습니까? 좋지 못한 작 업 환경 속에서 산업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오로 지 생존을 위해 잔업, 철야, 특근으로 몸을 혹사시키지만 돌아오 는 것은 멸시와 천대, 그리고 기약할 수 없는 내일이 있을 뿐입 니다. 이 땅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민중 모두가 마찬가지로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전 신문 기사에 동시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집 어린 아들딸들은 방학 때면 해외 여행을 다니고, 그들의 부모는 아이들 선생님에게 잘 봐달라고 자가용이나 피아노를 가볍게 선 물합니다. 그에 비해 경비원 아빠와 파출부 엄마가 맞벌이하는 지하 셋방집 아이들은, 돌보는 이 없고 탁아 시설조차 변변치 않아 할 수 없이 자물쇠를 채우고 돈벌러 다니다 갇힌 방에서 불이 나 남매가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부부는 내집 마련을 위해 한푼 두푼 모으던 돈까지 몽땅 털어 1,500만원에 네 식구 살 만한 방을 구한다는 가슴 아픈 광고를 실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살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한 사람들은 스스로 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땀흘리는 돈없고 빽없는 민중들은 도저히 살기 힘든 세상, 오로지 술수와 기만만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져오는 세상, 이런 세상은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스스로의 단결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민중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스스로의 단결 뿐입니다. 그들 스스로 정치 세력화가 되어 생존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노동자는 공장에서, 농민은 농촌에서, 교사는 학교에서 진정으로 이땅의 민주화와 민중의 생존을 위해 단결하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 즉,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이 국가 보안법, 교육에 관한 법, 노동 관계법,

안기부법 등 각종 악법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권력과 자본이 가진 자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더더욱 떨쳐 버릴 수 없게 합니다. 특히 국가 보안법은 노동 운동과 민중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노동자와 민중의 정치 활동,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와 조직결성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그들끼리 똘똘 뭉쳐 돈과 권력을 휘두르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해 뛰어다니는데, 왜, 생존을 위한 노동자와 민중의 진출은 가로막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밑등 빠진 지친 노동으로 희망없이 살아가는 서러운 노동자의 인생이, 우리 아버지 같은 삶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그 삶이 보상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 보안법은 반드시 철폐 되어야 합니다.

1990년 3월 28일

〈최후 진술 3〉~

# 최병국 최후 진술

(29, 공원)

<sup>&</sup>quot;남한의 현대사는 독점 재벌의 무제한적 수탈의 역사, 독재 정권의 가혹한 민중 운동 탄압의 역사이며 국가 보안법은 그 법 적 표현에 다름아닙니다."

## 소위 '이적성'의 근거가 무엇인가

저는 국가 보안법 7조 위반 혐위로 구속·기소되어 지금 이 법 정에 서 있습니다. 국가 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바로 그 법에 의해 재판받고 있는 마당에 별로 할 말은 없습니 다만, 재판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점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은 관련자들이 행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의 초점은 그러한 행위 사실들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였는가, 그리고 왜 북한을 이롭게 할목적으로 행동하였는가를 규명하는 데 두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과 검사 취조과정은 단지 행위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이 정도의 행위 사실로도 충분히 이적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이에 동의할 수 없으며 지극히 형식적인 공소장에서 그 논리적 근거를 도저히 발견해낼 수 없습니다. 이제 몇 가지문제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남한 사회에서 태어나 남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제정치적 견해와 가치관을 형성하였으며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합니다. 오히려 반공 세뇌 교육의 결과로 아직도 근거 없는 불신을 가지고 북한 문제를 의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확정적인 평가도 내리고 있지 못한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또한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요, 민중들로부터 이간질하려는 고질적인 술책입니다.

저는 남한 민중의 구체적인 상태와 이해에 입각하여 정치적 신념을 세우고 행동하며 그 연장선에서 북한의 문제를 고려합니다. 통일은 남한 민중의 이해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남과 북은 각자의 사회 현실에 기초한 발전 법칙에 따라 변화하고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미 남·북은 객관적 현실 속 에서 다른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남한 민중 운동가의 올바른 관점이요 자세입니다.

이제 공소장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소장에는 먼저 검찰에서 판단하는 제 생각과 북한의 소위 대남 적화 통일 노선을 나열·비교하고(단지 나열·비교일 뿐입니다) 이를 제가 잘 알고 있었다고 전제한 후에 공소장에 적시된 행위 사실들이 북한을이롭게 할 목적으로 행위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먼저이적 행위의 목적성은 전적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공소장에는 「노동자의 길」을 소지·탐독한 것까지 이적 행위의 목적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참으로 유치한 발상입니다. 「노동자의 길」한 권보는 데까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성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목적범이라는 표현을 수없이 반복함으로써 목적범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뿐입니다. 어디에도 목적성을 찾아낼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백보 양보하여 검찰의 논리를 인정해서 주장의부분적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북한을 이롭게 하였으며 또한 그것을 제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여전히 인식범규정을 제공할 뿐입니다. 검찰은 어디에서 목적성의 근거를 찾아내고 있습니까. 오로지 검찰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을뿐입니다. 이는 또한 정부 여당에서 제출한 국가 보안법 개정안의 허구성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부

가 국가 보안법을 엄밀하게 목적범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5공화국에 비해 국가 보안법에 의한 구속 자는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범 규정에서 저는 하나의 새로운 현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늉뿐이긴 하지만 검찰 측에게 마음에 내키지 않는 목적범 규정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것은 민중 운동의위대한 전진에 의한 것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중 운동 탄압과 정권 유지 법으로서의 국가 보안법이 민중의 심판대에올려져 있으며 정부로서도 부분적 개정은 이미 불가피한 것으로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적용 방식은 변경하지 않은 채표현만 목적범으로 함으로써 새로운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국가 보안법에 대한 민중적 항의에 검찰은 표현만 바뀌치기하는기만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중 운동의 새로운 전진은 검찰에게 허구적인 목적범 규정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데그치지 않고 국가 보안법을 전면 폐지할 때까지 밀고 나갈 것입니다.

이제 북한 주장과의 부분적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논리에 대해 언급해야겠습니다. 〈인노련〉의 정치노선과 주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북한과 다른가는 이미 변호인반대 신문 과정에서 밝혔으므로, 오늘은 이적성 논리 자체의 허구성과 그 허구성이 40년간 존속할 수 있었던 비밀에 대해 지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남한 민중 운동의 어떠한 주장과 행동이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물론 특정한 주장과 행동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객관적 조건, 즉 남북 관계, 북한의 상태, 남한 내의 정치·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그 이롭게 하는 정도는 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

다. 오히려 남한 정부의 폭력성과 비리가 객관적으로 북한의 명 분을 유리하게 해준 경우가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반미도 이적, 매판 재벌이라 비판해도 이적

이러한 문제를 실정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절대적 혼 란을 야기합니다. 혼란은 자의적 판단을 낳고 자의적 판단은 필 연적으로 정권 안보의 필요에 봉사합니다. 그리고 봉사했습니다. 주장의 동일성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혼란된 관념은 이제 남 한의 민중 운동에 대한 가차없는 탄압 도구라는 분명한 현실로 나타납니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주장은 이적시되었으며, 선진적 민중 운동이 고문실에서 이적 행위로 용공조작되고, 단순한 생존권 투쟁은 용공 단체에 의한 배후 조 종의 결과로 왜곡되었습니다. 북한의 존재와 주장이 남한의 민 주주의를 규정합니다. 남한 민중은 북한의 주장과 털끝 하나 닮 지 않게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재주를 배워야 했습니다. 반미는 이적이요, 매판 재벌이라고 비판해도 이적입니다. 노동 조합 하 나 만드는데도 빨갱이라고 의심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은 70년대의 한 국가 보안법 판례를 보 면 분명해집니다. 한 철거민이 철거반원에게 "너희들은 빨갱이 보다 나쁜 놈들이다"라고 했다고 국가 보안법으로 구속·기소되 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 을 받기까지 그가 겪었을 고통, 그 과정에서 철거민들의 요구가 어떻게 묵살되었겠는가 하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 아니 겠습니까? 게다가 정권의 위기 시에는 공안 사건을 집중적으로 터뜨리고 북한의 가상적 위협을 선전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

면서 독재를 합리화했습니다.

이 황폐한 반공주의의 사상적 테러와 이에 기초한 경찰·정보 기구의 폭력적 통치는 남한의 민주주의를 완전 매장시켰습니다. 독재 정권과 소수 독점 재벌에게 북한의 존재는 오히려 자신들 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판으로 작용했습니다. 남한 경제의 고도 성장의 한 비밀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남한 현대사에서 국가 보안법이 해온 객관적 역할입니다.

이제 국가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정치 활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국가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남한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는 실제로존재하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검찰의 견해는, 특정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해서 처벌하는 것이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자유 민주 질서를 위협하게 되면 용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상의 자유를 생각의 자유로 해석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생각의 자유는 인류 역사 어느 시대에도 금지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굳이헌법에서까지 보장할 자유도 아닙니다. 치졸한 언어 유회이고교활한 국민 기만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정부의 통치 이데올로기 이외에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솔직한 태도입니다.

보다 노련한 언어 유회를 하나 더 봅시다. 3월 6일 오전 이 진 전총리 비서실장은 국회 답변 과정에서 "현재 특정 사상에 의한 양심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적극 옹호하는 자는 국제적으로도 양심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는데, 이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모든 사상이 생각의 자유를 넘어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정부는 모든 혁신적 이념을 폭력 사상으로 취급하므로 이 말 역시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 부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우리 동지들과 현재 수감되어 있는 수많은 정치범들은 폭력범으로 매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 국가 보안법이 폐지되는 날 이 법정에 다시 서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검찰 측의 얄팍한 기만은 이제는 반공주 의의 기치 하에 모든 사상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 는 시대적 조건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태우가 작년 유럽 순방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정치범이 한 명도 없다"고 망언한 것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현저한 변화,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소련 공산당과 민자당이 당 대 당 교류를 추진하고 있 는 마당에, 국내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자가당착 입니다. 이제 사상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 부가 만병통치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 이 사상의 자유를 제한없이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주 권재민의 원칙은 어떠한 정치 권력과 사회 체제도 민중적 합의 에 기초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민중적 합의는 형식화된 투표 행위가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로 보증되는 민 중의 정치 활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의해서만 형성될 수 있 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어떠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도 파쇼 통치 로 전락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 입니다.

남한의 현대사는 독점 재벌의 무제한적 수탈의 역사, 독재 정

권의 가혹한 민중 운동 탄압의 역사이며 국가 보안법은 그 법적 표현에 다름아닙니다. 국가 보안법은 민중의 철저한 침묵과 굴종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 7, 8월 노동자 대파업 투쟁 이후 남한의 노동자와 민중은 자각적인역사의 주체로 일어서 국가 보안법의 철폐를 힘차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미 국가 보안법은 일보 후퇴하였으며, 이는 또한 민중 운동의 일보 전진을 의미합니다. 민중의 주체적인 자각과 국가 보안법은 결단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국가 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합법칙성에 의해 필연적으로 철폐될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 보안법의 운명입니다.

그때 저는 이 법정에 다시 서겠습니다.

1990년 4월 3일

〈최후 진술 4〉---

# 윤철호 최후 진술

(29)

<sup>&</sup>quot;사회주의 사상은 무엇보다도 인간 존중의 사상입니다."

<sup>&</sup>quot;혁명가? 그것이 본인을 규탄할 용어가 될 수 있을까요?"

### 혁명가? 그것이 본인을 규탄할 용어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역사는 진실이 허구로, 허구가 진실로 뒤바뀐 무수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933년의 히틀러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수상이 되어 국민의 지도자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가면서 그는 파시스트 독재자요, 살인마 전쟁광으로 이해됩니다. 멀리 갈것도 없이 아직까지도 폭도들의 난동이냐 정의로운 항쟁이냐로 엇갈리는 1980년 광주의 진실들도 그런 범주에 포함됩니다.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는 왜 진실과 허위가 뒤바뀌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 계급적 처지에 따라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계급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타당한 진실이란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당대의 진실은 당대의 계급 투쟁에서 승리한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을 뿐이라는 각성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 사건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진실을 주장하며 맞부딪치는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역사는 지배 세력과 진보 세력 사이에 벌어졌던 계급 투쟁의 한 장면으로 기록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저는 별다른 주목을 받을 수 없을 만큼이나 일상사가 되어버린 그런 류의 노동 운동 탄압 사건의 한 당사자로서, 결국은 저와 〈인노련〉에 대한 탄압을 위한 요식 절차처럼 되어버릴 지도 모를 이 재판정에서 도대체가 진지한 최후 진술이 가당키

나 한 일인가 하고 회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보 세력의 승리는 항상 반동 세력의 단죄에 맞선 성실한 답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신념에 따라, 저 또한 그 전통을 따르고자합니다.

공소장을 읽어 보면 본인은 사회주의 혁명가로 규정되어 있습 니다.

혁명가? 그것이 본인을 규탄할 용어가 될 수 있을까요? 혁명이란 보통 사회 관계의 근본적 개조요, 계급적 지배 관계의 변혁을 뜻합니다. 기존 사회 질서에 만족할 수 없는 대다수 피지배 민중의 열망이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진보시키고 인간의 삶을 크게 진보시킨 역사적 사건들에 우리는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영국의 명예 혁명, 프랑스의 프랑스 대혁명, 4·19 혁명이 그런 사건들입니다. 또한 혁명이라는 말이 가진 이러한 성격 때문에 반동 세력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혁명으로 미화하기도 합니다. 5·16 쿠데타를 박정희가 5·16 군사 혁명으로 참칭했던 경우가 그것이겠죠.

저는 혁명가란 사회 역사를 진보시키고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한 역사적 실천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붙여질 수 있는 영광스런 칭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내가 혁명가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자이며 사회주의 혁명가인 것이 문제라고 말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주의자라는 것이 본인을 감옥에 처넣어야 할 이유 가 된단 말입니까?

물론 사회주의자라는 말에서 살인, 폭력, 방화, 빨갱이, 간첩 같은 느낌만을 갖거나, 민중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국민학교 반 공 교과서의 그림, 혹은 김삿갓 북한 방랑기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사회주의는 사회의 암이며, 박멸되어야 할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사회주의자에 대한 그러한 악질적비방이 전혀 잘못된 것임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 본인은 사회주의자입니다

본인은 사회주의자이며, 사회주의자는 인간의 건전한 상식이 선택하는 자랑스런 칭호입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현실의 사회주의 사회들이 급격한 변화의 와 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입니다. 이 급격한 사회주의 나라들의 변화를 사회주의의 위기라고도 하고 새로운 모색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위기냐, 새로운 발전을 위한 진통이냐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둘 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느 것이 옳으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사회주의 이념의 이상이 무엇이냐를 밝히는 것이저의 의도입니다.

사회주의의 허구성을 여지없이 폭로한 것으로 선전되는 루마니아에서 차우셰스쿠가 어떻게 처형되었는가를 상기해 보는 일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최근 1990년 3월호 일본 『문예춘추』는 차우셰스쿠의 체포와 도주, 처형을 둘러싼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전하면서 차우셰스쿠에게 사형을 언도한 법정의 공방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검사는 법정에 차우셰스쿠의 처형을 요구하면서 그의 논고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사회주의의 제 원리를 위반한 차우셰스쿠"

이 말에는 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모든 혼란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가 가지는 가치의 한 자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가 인간의 존엄과 동격으로 거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은 무엇보다도 인간 존중의 정신입니다. 그런 만큼 그 전통은 오래된 것입니다. 계급적 차별의 현실과 절망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인간다운 삶을 희구했던 고대 노예들의 투쟁,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던 항변속에서 싹텄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들 속에서 모순을 발견했던 성현들에게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사회주의의 사상은 세계사의 중세 말에 각종의 종교적 외피를 쓰고서 노동하는 민중들의 혁명 운동을 고무시키기도 했습니다. 서구 유럽의 유토피아 사상과 종교개혁 사상에서부터 우리의 동 학 사상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사상의 뿌리는 깊고도 넓은 것 이었습니다.

근대 사회가 이룩한 두 가지의 진보, 즉 자유, 평등, 박애로 집약되는 부르주아 혁명의 이념과 산업 혁명으로 불리는 거대한 생산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근로 민중들의 삶은 여전한 것이었 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진보에서 소외된 민중들 특히나 노동자 계급은 자연발생적인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은 그들 속에서 각종 형태로 힘을 발휘해 왔습니 다.

근대 사회에 걸맞는 사회주의 사상의 근대적 형태는 마르크스 와 엥겔스에 의해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끝장낸다"는 사회주의적 이상에 과학적 실천 방도를 밝혔습니 다.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의 기초에는 일정한 역사 발전의 산물로 등장한 계급적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 사회주의적 이상은 사적 소유에 기반한 계급의 철폐로 실현된다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적 착취 제도를 끝장내고 인류 수천 년의 희망을 실현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 주체가 바로 노동자 계급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회주의가 공상으로부터 과학으로 발전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러한 근대의 과학적인 사회주의를 마르크스주의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 운동가였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사회적 삶에, 즉 그 시대의 혁명적 노동자 계급 운동의실제에 기초하면서 사회주의적 이상을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는 자신을 해방시키고 사회를 진보시킬 이념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 대중과 이해를 같이 하면서도 앞서 가는 사회주의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주의자는 실천적으로는 모든 나라들의 노동자당 가운데서 도 가장 단호하고 언제나 선진적인 부분이며, 이론적으로는 프롤 레타리아 운동의 조건과 결과, 그 전반적 경로를 예견하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 대중보다 앞선다.

사회가 자본주의화되고 노동자 계급이 인구의 핵심적 계급으로 자리한 모든 곳에서 사회주의 사상은 사람들의 가슴을 휘어잡아 사회 역사의 진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현재지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회주의 사회이며, 독재 국가로 지목되지 않는 국가라면 언제나 사회주의 정당이 공공연하게 합법적인

정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이룩한 거대한 생산력의 힘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끝장내는' 방향으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사상이 그만큼 진지하고 설득력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를 자기 이념으로 하는 노동자 계급에 의해서 세계는 거대한 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태어난 이래 자신의 삶을 어떤 왕조나 사회 체제, 생활 방식에 고정시켜 둔 적이 없다는 점을 상기하십시오! 자본주의가 지구상에 태어난 지 수 세기, 그것이 가진 역할이 다하고 있거나 근본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면,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요구된다면, 사회는 변화해야 합니다. 또 변화하게 됩니다. 20세기는 세계가 거대한 이행기에 돌입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1세기도 안되는 시간은 세계사의 시대가 변화하고 있음을 남김없이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특히나 최근의동구는 세계사의 흐름을 혼란스럽게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 세기의 자본주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세계가 어디로 향해 나가는가는 분명해집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렇게 길고 무거운 어조로 말하기도 어색한 교양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동구의 현실 사회주의의 변혁에 비추어 본다면 낡고 고루한 설명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 나라들의 현실은 사회주의가 옳으니그르니 하는 논란을 훨씬 벗어난 지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흐름에 따르더라도 사회주의가가진 자유의 사상으로서의 측면을 부각시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의 사상이 탄생한 사회적 기반이 여전한 한, 그 사상의 생명도 여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

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며, 바로 그런 이유로 사회주의자가 되었다는 이유에서 탄압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는 사회주의 사상을 더욱 요구하고 있고, 지배 세력은 더욱 탄압에 나서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할 것입니다.

#### 이불 속의 사회주의자, 진정한 사회주의자

#### 재판장님!

본인이 사회주의적 신념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불 속에서나 사회주의를 꿈꾸었다면 아마도 이 자리에 설 가능성은 별로 없 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회주의자'는 몸으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의 열성적 조직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인노련〉이 새로이 솟아 오르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 투쟁, '사회주의 운동'의 선봉 대열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 신념의 정당 성뿐만 아니라 〈인노련〉의 활동에 대해서도 말하고자 합니다.

〈인노련〉은 1987년도 결성 이래 그 활동 방향의 대강을 밝힌 강령에 따라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 여름 이래 사회주의적 실천의 강화를 당면 과제로 설정,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를 요구하는 사회·정치적 상황, 민족 민주운동의 반성적 검토, 노동자 해방 투쟁의 요청 등이 놓여져 있습니다.

6공화국의 노태우 정부가 자신이 5공과 다르다고 누차 주장해 왔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똥묻은 놈이 겨 문은 놈 나무란다는 식의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공 정부가 달라졌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선 대통령 직선제, 국회 의원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하여 형식상의 민주주의가 진전되었습니다. 민중은 정치 생활의 기본 권리인 보통 선거권을 회복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6월 항쟁까지 몰고온 민중들이 품었을 현실 개혁 열망의 폭과 깊이로 보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부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보나 민중들의 요구에 얼마나 근접하는 것이겠습니까?

6공이 떠들어대는 성과는 사실상 벼랑에 몰린 지배 세력이 내놓은 민중 분열책이었을 뿐입니다. 군사 파시즘 세력이 부르주아적인 야당 반대파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었을 뿐입니다. 이른바 직선제 개헌이란 군사 파쇼 세력과 독점재벌, 보수 야당 사이의 야합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 규칙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야당들이 너나없이 서로 여당을 하겠다고 설치다 3당 합당까지 실현시켜 놓고, 재벌의 목소리는 날로 커져가고, 노동자와 민중의 이익은 입에 발린 말조차 정치판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은 도대체 무얼 말한단 말입니까?

일찍이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본주의적 착취라는 조건 때문에 근대의 임금 노예들은 너무 나도 기아와 빈곤으로 압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민주 주의와 정치를 귀찮게 여기게 된다. 일상적으로 평화로운 사건들 의 전개 과정 속에서 대다수 대중은 정치와 공화국에의 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다. 국소수를 위한 민주주의, 부자들을 위한 민주주의——그것이 곧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인 것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기제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그것의 구석구석에는, 즉 선거의 쁘띠적인 면에서라든지(주거에 따른 제한, 역성의 배제 등), 대의 제도를 구성하는 기술상의 문제에서라든지, 단체 조직권에 대한 실질적인 방해라든지(공공 건물은 결코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일간지를 순전히 자본주의적으로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첩첩이 쌓인 장애를 발견한다. 그 자신의 빈곤을 알지 못하고 대중들과의 생활 속에서 피억압 계급과 가까이 접하고 있지 않은 자(열에서 아홉은, 아니 백에서 아흔 아홉의부르주아 공화주의자들과 정치가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의 눈에는 이러한 장애들과, 단서 조항들과 배제와 방해물들이 경미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이런 현실을 지적하는 우리 식의 말이 금권 정치라는 말 아닙니까? 민중은 정치 생활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국회는 사장들이 모여앉아 이권 배분이나 하고 자신들을 위한 법이나 만드는 곳으로 전략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생각하면 70년 전에 레닌이했던 말이 오늘의 우리 현실에도 본질적으로 타당한 지적으로만 여겨집니다.

6공화국이 자랑하는 소위 민주화가 얼마만큼이나 민중에 대한 배신인가는 이 체제가 여전한 부르주아 독재라는 데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야 전 민중은 단순한 민주화나 군사 독재가 문제가 아니라 독점 재벌 위주의 부르주아적 계급 지배 체제 자체가 문제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계급 지배 체제를 그냥 둔 민주화란 가진 자의 민주주의일 뿐이며, 민

중 생활의 개선과는 무관한 허구적인 것일 뿐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신동아』 2월호에 실린 한 재벌 회사의 연구소장은 경기 침체의 해소책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과 기업인이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업 환경을 봄날씨같이 포근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투자를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 서도록 해주어야 하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것자체가 재미있고 신바람 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 사회의 안정과 산업 평화의 정착이 급선무이다. 정치가 어지럽고 사회기강이 무너지면 기업할 마음이 내킬 수 없다. 사업을 확대해보았댔자 언제 어떤 정치·사회 변화나 극심한 노사 분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기업인에게 투자를 하도록 권유해도 기업인은 냉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자를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돈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 가진 자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하는 식이라면 결코 투자가 확대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파쇼적 부르주아 지배 체제에 대해 국민이 가지는 저항감에 대한 공포와 함께 최근의 3당 합당 및 노동 운동 탄압에 대한 독점 재벌들의 노골적인 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누구나 지금의 현실과 위의 말이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들이 손해를 겪어야만 한다는 논리, 노동자와 민중에게 착취와 억압을 강요하지 않고는 자신들이 성장할 수 없다는 파렴치, 자신들이 아니고는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는 강변, 그리고 모든 수단을 통해 그 논리를 강제

해가는 현실, 대통령이 누가 되고 국회 의원이 누가 되건 상관 없이 여전히 잔업, 철야에 찌들리고, 월세 전세값 마련에 눈앞이 팽팽 돌아가는 노동자 계급은 이 현실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우리는 부르주아 독재 체제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가의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 뿌리부터 흔들리는 부르주아 독재 체제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민중들은 "정치가 언제 밥먹여 주었냐", "그놈이 다 그놈이야. 죄다 도둑놈들" 하는 식으로 정치 허무주의와 냉소감을 표현합니다. 물론 현 지배 세력은 이러한 대중의 정치적 허무주의를 보면서 대중은 구경꾼으로 역사의 뒤켠에 제쳐둔 채 자신들이 영원히 지배할 수 있겠다 싶은 야망을 키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주아 독재가 아니라 민중 주체의 민주주의 국가를 가져올 사회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국민을 잠재우고 우리는 국민을 일깨웁니다.

그러나 사실상 부르주아 독재 체제는 그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재벌 회사 간부의 말이 표현하는 바를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바꾸면 이른바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참예한 모순을 보게 됩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이룩한 거대한 생산력이 더 이상 독점 재벌 위주의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로는 관리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산업화의산물로 생겨난 노동자 계급이 더 이상 현재의 체제 그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회 혁명의 시대는 시작됩니다.

대공업의 발전은 부르주아지의 발밑으로부터, 그들이 생산하고 그 생산물을 자기 것으로 하는 기반 자체를 제거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을 생산한다. 그들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는 똑같이 불가피하다(마르크스).

1987년도 6월 항쟁 이후를 바라보면 우리는 두 개의 커다란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 민족 자주 등과 같은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것은 5공 청산, 악법 개폐, 통일 운동과 같은 계기로 우리 앞에 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언뜻 보는 것은 자명한 과제 앞에서 타협해가는 기존의 정치 세력입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이면 새로운 곳에서 움터오는 세력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력의 중심은 노동자 계급입니다.

"1987년 7, 8월 이후에는 이미 격렬한 계급 투쟁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노동자 계급의 대 중 운동은 본격적 성장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 계급에게서 미래를 개척할 힘을 봅니다. 노동 자 계급은 가진 자의 것으로 허구화된 민주주의를 민중의 것으로 완성하고 민족 통일과 민족 자주를 실현할 주도적 세력이요 민중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부르주아적 정치 세력의 허구적 몸짓과는 그 출발부터 다르며 그만큼 진실된 것입니다.

〈인노련〉의 강령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은, 노동자들에게 현 질서 하에서의 계급

상승의 환상을 가질 수 없게 하고 단결과 투쟁만이 빈곤과 무권리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인간다운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 여러 공장을 전전하면서 경험한 채험을 통해, 또한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전 생활을 바칠 것을 강요하면서도 앞날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주지 않는 자본의 억압과 착취의 실상을 깨닫게 된 지금에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단결과 투쟁의 욕구가 맹렬히 불타오르고 있다. 노동자 계급은 고립적인 투쟁으로부터 전 계급적인 해방 투쟁으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노동자 계급이 우리 역사와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여전히 고립되고 낮은 생존권 차원에 머무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패배해 왔습니다. 1989년도 현대 중공업 투쟁, 마창 투쟁 등은 그러한 예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목적을 실현할 방법을 알지 못하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도 단결하지 못한 집단이 자신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한 역사는 없습니다.

레닌은 "인간은 정치에서 항상 기만과 자기 기만의 희생자들이었다. 인간은 모든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미사려구와 선언 및 약속의 배후에서 특정 계급의 이해를 찾아내는 법을 터득하지 않는 한, 항상 희생자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노동자 계급에게 자신의 이해에 맞는 계급적 관점에서 모든 사회정치적 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인노련〉은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케 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적 활동의 강화에 포 팔되며,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표현은 "이 사업(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의 역사, 조건 및 성질 자체를 고찰하고, 나아가 현재 억압받고 있는 계급인 노동자 계급으로 하여금 그 사업의 본성과 조건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노동자 계급 운동의 이론적 표현, 즉 과학적 사회주의의 임무이다"(엥겔스, 『반듀링론』)라는 엥겔스의 말 그대로를 빌어서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각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노련》이 1988년도 여름 이래 강조해온 '사회주의적 실천의 강화'란 앞서 누누이 말했듯 노동자 계급 운동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자, 현실 운동의 변화 추세를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의계급이나 세력이 자신의 고유한 이해 관계를 자각하고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자면 자신의 고유한 사상, 이론적 토대를 갖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노동자 계급이 어찌할 수 없는 계급적 처지로부터 투쟁을 계속하면서도 수십 년간 놓여져 온 부르주아 계급의사상적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고본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필요는 다수의 조직원이 과거의 학생 운동, 노동 운동의 경험을 깊게 몸에 밴 탓으로 인하여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상 운동의 현실을 부정하려는 데서 생겼습니 다. 1987년 7, 8월을 전후하여 사상 운동에도 혁명적 민족주의 및 혁명적 민주주의와 결부된 소부르주아 사회주의 운동의 두 조류를 극복하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노동자 대중을 구출하기 위 한 투쟁이 개시되었습니다. 〈인노런〉은 그 운동의 주도적 일부 입니다.

### 사회주의적 실천은 이 시대의 요구

본인이 사회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인노련〉이 사회주의적 실천의 강화를 과제로 활동한 측면, 이것을 가지고 본인과 〈인노련〉을 비난하고 탄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듯이, 사회주의적 신념과 사회주의적 실천의 정당성에 대해서 누구나, 특히 노동자 계급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화의 백성들이 사기꾼들에게 속고 임금님의 권위에 눌려 진실을 보지 못하듯, 우리의 현실도 사회주의에 대한 왜곡과 권력에 의한 억압으로 인해 진실이 가려질 뿐입니다. 그러나 왜곡과 편견, 권위에 억눌리지 않는 동화 속의 어린이들은 진실을 쉽게 발견하고, 그 진실은 마침내 모두에게 인정받습니다. 나와 〈인노련〉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진실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말할 뿐입니다.

#### 유물론자는 현재에 주목합니다

이제까지 나는 내가 가진 사회주의적 신념과 〈인노련〉의 사회주의적 활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용어나 인용을 여러 차례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오히려 현재의 검사나 지배 세력의 구미에 맞게 한정으로

걸어들어간 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동안의 설명으로 사회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어투들에 대한 편견을 씻어내기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소장은 이러한 사정을 정확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철호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 남북 통일을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는 자이며, 〈인노련〉은 "궁극목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삼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는 지하 노동자당을 조직하는 ……" 조직이다 등등.

이러한 구절들은 말이 앞뒤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인노련〉의 문건이나 활동 내용 어디서도 출처를 찾아볼 수 없는 용어들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소장이 아니라 어차피감상문이고, 그 목적은 나와〈인노련〉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할수 있도록 공포감을 심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음모에 맞서나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정서에 밀착된 좀더 현실적인 답변을 해야겠다고 느낍니다.

내가 사회주의자이며 혁명가라는 것, 〈인노련〉이 사회주의 혁명 조직이라는 것,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까? 아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리의 소매치기 패거리들이 남의 호주머니를 노릴 때 호주머니 주인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일컬어 '바람잡는다'고 합니다. 그 소매치기가 앞뒤에서 밀치는 이유가 사람이 많거나 차가 흔들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돈을 훔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공소장도이와 마찬가지로 치졸한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주의자, 혁명가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일

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이미 철저히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버린 사회주의자의 개념을 액면 그대로 사용한다면 본인을 사회주의 혁명 조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나는 사회주의자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자이며 민족주의자이자 평화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노동 운동가이기도 하지요. 〈인노련〉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조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입견이 아닙니다. 무슨 용어를 쓰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인노련)은 무엇을 하고자 했던가?

본인이 사회주의자이며 (인노련)이 사회주의적 실천의 강화를 과제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사회주의 혁명만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인노련)에 대한 중대한 곡해입 니다 〈인노련〉 사건 발생 당시의 치안본부 발표에 따라 만들어 진 신문 기사를 보거나 제 공소장을 보면 (인노련)이 지금 무엇 을 하고 있는가는 제처놓고 사회주의 혁명을 (궁극)목표로 활동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검사가 제 공소장에서 말하는 이른바 궁극 목표에 대하여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 맹〉도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 의 종착점은 스스로의 완전한 해방,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진정한 자유의 나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것은 사회주의적인 이상입니다. 이 구절을 보았을 검사조차 빨 갱이라고 낙인찍기엔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언급하지 않았을 정 도로 추상적이긴 합니다. 술취한 사람과 말상대하며 싸워 보았 자 멀쩡한 사람만 봉변당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사회주의에 대한 왜곡과 편견, 탄압이 극심한 현실에서 쓸데없는 말싸움보 다 노동자 계급의 실제 삶과 운동이 몇백 배나 중요하다는 우리

《인노련》의 현실주의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인노련》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만 미래에 접근합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쁩니다. 아마 언젠가 강령은 더 상세한 언급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상당 기간은 아닙니다.

본인이 속한 〈인노련〉의 첫째 가는 관심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관심 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적 조치, 민족적 자존의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방향의 개조들도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 각 조치들을 〈인노련〉은 당면 목표로서 22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조항의 재벌 해체, 기간 산업의 국유화 주장은 민주주의와 민족 자존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령의 조항 하나하나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 민중의 삶이 당장에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강령은 이들을 총괄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이 당면에 쟁취해야 할 목표는 미·일 등 제국주의 독점 자본의 남한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구조를 깨뜨리고 완전한 민족 해방을 쟁취하는 것, 또 한줌도 안되는 소수 독점 자본가와 군부 독재의 지배 체제를 깨뜨리고 민중 민주주의를 이 루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유물론자이며, 유물론자는 사회를 어떤 공상이나 교조에 따라 만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검사가 갖다붙이는 그런 황당한 용어들로 불투명한 미래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미래에 대한 몽상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부터, 즉 존재하는 현재의 발전 경향과 모순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부터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주목합니다.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본인과 〈인노련〉은 지금 당장 이 사회를 개혁하자는 민중의 편, 노동자의 편에 서 있고 검사는 안된다, 싫다고 말하는 지배 세력의 편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검사는 나와 〈인노련〉이 빨갱이라는 등, 북한 공산 집단을 이롭게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등 하며 엉뚱한 문제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그러면 안되지 하는 교훈을 배우게 되는 셰 익스피어의 희곡『베니스의 상인』에 생명을 노리고 돈을 못갚으 면 살을 떼어내겠다고 하는 악덕 상인이 나옵니다. 검사와 현 당국의 의도가 바로 악덕 상인의 의도 그대로라고 생각됩니다. 살을 떼어내겠다고 협박한 샤일록의 의도가 고리대를 받아내겠 다는 데 있었듯이 사회주의를 떼어내겠다는 당신들의 의도는 그 것을 빌미로 이 사회의 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개혁 요구와 실천 속에서 빨갱이로 몰아붙일 수 있는 요소만을 따로 떼어내겠다는 음모는 결국 재판부를 포 함하여 우리 사회가 가진 반공 의식을 이용하여 이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의 진보를 향한 숨통을 끊어놓더라도, 기득권을 수호하 겠다는 지배 세력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노련〉은 당신들의 탄압으로 조직이 붕괴될 시기가 지났습니다

우리의 현대사에서 진보 세력에 대한 탄압은 처음이 아닙니

다. 오랜 전통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탄압의 무기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사회주의자이고 〈인노련〉이 사회주의적 활동을 수행했다는 점 자체만으로 우리를 탄압하는 직접적인 명분으로 삼기도 힘들어 갑니다. 지배 세력이 떠들어 대는 소위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 바로 자유로운 사상, 정치 활동의 보장에 있고, 민중들은 이 원칙을 지배 세력에게 강요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 세력은 우리의 특수한 분단 현실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활동이 북한 공산 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의 이적 활동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와 〈인노련〉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 보안법으로 구속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노동 운동을 탄압해야 할 특수한 현실'을 갖지 않았던 나라가 어디 있으며, 초기의 노동 운동이 그런 이유로, 그런 따위의 법률들로 탄압받지 않은 경우가 언제 한 번 있었습니까? 19세기 말 독일의 노동 운동을 탄압하던 「사회주의자 단속법」이나 일제 하의 「치안 유지법」이나 모두 그런 것들 아닙니까? 한편으로 그런 법률은 오히려 노동자 계급의 해방 투쟁의산물이며 그 투쟁의 성과로 휴지가 되어버리지 않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국가 보안법 자체가 몰락의 운명에 처해 있음은 분명합니다. 독립된 주권을 갖고 운영되며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의 행위 자체가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한 위에서 수행돼가는 것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물며 분단 현실을 빌미로 진보 세력을 탄압하는 일은 점점 더국민적 공분을 살 뿐입니다.

이른바 보혁 구도를 만들겠다는 정부 여당의 말은 보수 대연합을 위한 명분입니다만, 〈인노련〉과 같은 진보 혁신 세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인노련〉은 강령에서 〈인노련〉이 가는 길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인노련은 당면한 민족 해방과 민중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 인천, 부천 지역의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구심이 되어 노동자들의 정치 의식을 발전시키고, 여러 형태의 대중 조직을 촉진시키며,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을 발전시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 부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정치적 통일과 노동자 정당의 건설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저들은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이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노런〉이 가고자 하는 길은 우리 나라 노동자 계급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고, 전 민족이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머지않아 노동자 계급의 정당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동자 계급은 자기 해방 투쟁과 전 민중의 투쟁을 지도할 위력한 무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우리 나라에 국가 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서 일체의 진보적 움직임을 탄압한 적이 있단다 하며 후세들에게 역사의 웃음거리로 전략할 과거를 이야기해 줄 미래를 앞당길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노련〉이 이러한 과정을 지금까지 촉진시켜 왔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20여

명이 비록 옥중에 있다 하나 밖에 있는 우리의 동지들이 노동자계급이 나아갈 길을 여전히 함께 개척해 가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자부심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미〈인노련〉은 당신들의 탄압으로 조직이 붕괴될 시기가 지났습니다.〈인노련〉과 노동자계급 간의 애정은 당신들이 각 공장마다 뿌려대는〈인노련〉 비방 책자로 끊어지지도 않습니다.〈인노련〉이나아가는 길은 우리 노동자계급이 가고자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소리를 들은 바 없습니다. 저들 지배 세력이 물러서지 않는 한, 이 싸움은 끝이 없는 전쟁입니다. 머지않아 노동자 계급은 미래를 짊어지고 쓰레기, 기생충 같은 무리들을 쓸어낼 노동자 정당이라는 무기를 갖게 될 것이며, 노동자 계급의 해방 투쟁은 더 한층 발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단언하는 바입니다.

1990년 3월 28일

오동렬 항소 이유서 / 61 윤철호 항소 이유서 / 102

# 사법부 판결 앞두고 논란 가열

'노돗자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하 며 인천지역에서 활동해온 대표 적 노동운동단체인 인천지역 면 주노동자연맹(인노런) 사건 공판 에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노력은 정부가 '이적성'의 상 대해 찬성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 은 기소돼 첫 공판을 앞두고 있

하고 있다는 정 에서도, 국가보 아버사의 이제 단체 가입 형의 로 구속기소원 이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어떤 관객이 내

려질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는 것 이다

특히 지난 28일에는 대학 교수 1백47명이 인노련이 '노동자들의 의식적 각성을 위해 활동한 정당 한 노동운동단체'리는 내용의 탄 원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지난히 10월 치안본부에 의해 노범직(37·서울대 경영학과 출) 씨 등 18명이 구속된 뒤 같은 해 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

전노형 가입 노조에 대한 업무 12월 노회찬(34 고려대 정외과 조사등 정부의 노동운동 단압 용 출)씨 등 3명이 다시, 구속돼 이 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 사건 관련 구속자는 모두 21명오 로 늘어났고 이중 이적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노병적씨 등 10명 은 5명씩 나뉘어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와 23부에서 각각 신리 를 진행, 29일까지 결심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징으로 보고 있는 '주체사상'에 또 노회찬씨 등 추가 구속자 3명

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볼 수 있 느니 하는 점이다

추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만큼 국가보안법 7 조3함에 규정된 이적단체에 해당 한다고 공소장에서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강령을 통해 '미 국 일본 등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남한 민중에 대한 복취와 역압구 조를 깨뜨리고 민족해방을 생취 하는 것과 소수 독점자본기와 군 부목패의 지배체제를 깨뜨리고 정부는 민주화를 공연해 왔으나 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지나치

반면 피고인들은 벌정에서 "해 방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검찰은 이 단체가 '마르크스- 급격한 자본주의의 발전은 오히 레닌주의를 기초로 자유민주주의 려 노동자들에게 빈곤만을 안겨 체제를 통략적인으로 전복, 사회, 주었고 이는 필련적으로 노동자 등의 계급적 각성을 촉진시켰다" 면서 "1천만명이 넣는 이들의 이 배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없는 사 함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다"고 밝혔다. 당연한 일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광통했다는 이유만으로 어쩍단체 로 모는 것은 노동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말셨다.

이돌은 또 "87년 6월항쟁 이후

는 모든 민준이 잘 사는 사회로 의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

또 김찬국 연세대 부총장 등 각 대학 교수 1백47명은 재판부 에 낸 탄원시를 통해 "소수 독점 재발의 손에 우리 사회의 엄청난 부가 집중돼 있고 그로 인해 많 은 폐배가 야기되는 데 반해 노 돗자들의 정치의식은 여전히 낮 은 현실에서 불평등한 정치·경제 를 바로잡기 위한 인노범의 활동 은 정당한 일면을 갖고 있다"면 서 "인노변이야말로 정부가 육성 하겠다고 공연한 혁신세월인 만 큼 이같은 조직의 활동이 보장될 때만이 참된 면주주의가 가능하

법률적으로 보아 현행 대법원 판례는 목목과인 이적단책 기업 규정에 대해 "반국가단세에 이익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로 축하고 목적의심까지 인

> 게 폭넓게 해석 하고 있다. 그 러나 최근 정부 여당 차원에서 도 국가보안법 의 문제정을 인 정, '이적 목적' 에 대해 종전 '인

름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반민 - 機다는 점도 이 사건 판결을 앞 투고 눈길을 끌고 있다.

3당 통합 이후의 노동운동 탄 밥 움직임과 정부 여당 차원의 국가보안법 개정안 마련여라는 상반된 조류 속에서, 법원이 어떤 해석을 내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 (기이택 기지)

# 사회개혁 지향 노동자 정치활동 불가피 혁명으로 체제 전복 노려…이적성 뚜렷

고 이적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되 지 않은 5명은 단독제판부에서 심리중이며 3명은 검찰에서 석방 됐다

지금까지의 공판에서 제정으로 부가림 것은 역시 이 단체의 이 적성 여부, 노동자들의 정치세력 화, 나아가 노동자정당 건설을 목적으로 절성된 조작을 반국가 적했다

또 공개발행되는 기관지인 〈노 동자의 길〉과 〈정세와 실원〉 내 용에 따르면 남한 사회에 자본가 와 노동자, 미제국주의와 남한 사이 등 4개의 모순이 존재한다. 고 보는 계급적 시각을 갖고 있 다고 강조했다.

민중민주주의를 이루어내는 것' 제업급과 장시간 노동 등 노동자, 식별'으로 돼 있던 것을 '목적임' 을 목표로 한다는 점도 함께 지. 등의 열악한 환경은 그대로인 한 으로 바꾸는 등의 계정안을 마련 축석 독점지벌의 해제의 그들이 소유한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을 통해 민중민주주의 사회가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이 인노련의 활 등 목표"라여 "토지공개님화 과 잘 등에서도 잘 나타니듯 소수 목정자본이 지배하는 현상태에서 된다.

ĸ 劎 30 ᆒ 'n 凹 1066 ٦ 바 긱 盂 포 히

# 오 동 렬 항소 이유서 .

안양 교도소 재감중

수 번:5002

생년월일 : 1960년 4월 5일생

본 적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1-18

죄 명: 국가 보안법

` 형 \_ 량 :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sup>&</sup>quot;우리 인노련이 북한의 노선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단순히 북한의 노선과 이러저러한 점에서 다르다는 데 그쳤던 것이 아니라, 북한의 노선에 대하여, 그리고 북한에 대하여 완전히 자주적이며, 남한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 확고히 선다는 주체적인 노선과 입장을 분명히 한 데 있습니다."

본 항소인은 1990년 4월 14일 서울 형사 지방 법원 합의 23 부에서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및 자격 정지 3년을 선 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함으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 재판장님께

저는 1987년 6월 이래 인천·부천 지역에서 노동자의 정치 세 력화를 위해 다양한 실천을 수행해 온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이하〈인노련〉)의 회원입니다. 제가 가입해서 활동해 오 던 (인노련)은 인천·부천 지역의 노동자와 노동 운동가들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노련〉은 1980년 이후 노동 운동의 발 전을 위해 헌신해 온 많은 선진 노동자들의 땀과 투쟁의 귀중한 결실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안본부는 3년째 공개적 으로 활동해 오던 〈인노련〉을 노동 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공세와 함께 검거에 나섰으며, 검찰은 치안본부의 수사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우리를 이적 단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우 리는 오랫동안 남한 노동자의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노 력해 왔는데,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진 이적 단체라니 기 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도 원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 을 인정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인노련) 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러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본인을 포함하여 〈인노련〉 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국 가 보안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가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먼저 저는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의 부당성을 거론하기에 앞서 국가 보안법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국가 보안법은 민족간 적대적 대립의 산물이자, 동시에 그 같은 대립과 분열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장치입니다. 그뿐 아니라 국가 보안법은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명분으로 민중의기본권 등 민주적 제권리를 탄압해 온 지배 장치입니다.

그 동안 국가 보안법의 폐지와 관련된 주장은 여러 갈래로 개진되어 왔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더이상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는 점에 있습니다. 더이상 반국가 단체일 수 없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해 놓은 국가 보안법이 통일과 남북 대화에 기본적인 장애가 되고 있음은 물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커다란 문제 의식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당연합니다.

물론 국가 보안법이 폐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착 오적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30년간 군사 통 치로 인권을 유린하고, 민중들을 억압해 온 일부 정치 군인, 군 출신자들은 지난 6월 25일 군복 차림으로 시위를 벌여 국민들을 협박한 바 있는데, 이들과 같은 우익 보수, 반동 세력들은 여전 히 국가 보안법이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여전 히 북한을 무력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 심스럽습니다. 저는 북한이 반국가 단체라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은 철폐되어 야 하며, 북한이 반국가 단체라는 규정을 대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국가 보안법은 폐지되어 마땅함을 먼저 주장합니다.

왜 그런가?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을 더 이상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 합법적인 주권국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도 합치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남한이 북한을 사실과 다르게 주관적으로도 반국가 단체, 이른바 반란 단체로 규정하고서는 평화 통일의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반국가 단 체가 아니라 북한 사회를 대표하는 합법적인 주권 국가라는 것 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현재 인민, 영토, 주권을 완벽하게 갖는 합법적 국가입니 다. 그리고 이미 1백여 개 국가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등 몇몇 나라만이 북한을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남한 정부만이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합니다.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을 이 야기하자면 올해 5월 북한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국가 단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1989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반국 가 단체는 중국이었습니다. 대만은 1940년대 내전 시기에 입법 된 「반란 진정 시기 특별조치법(動員勘亂 시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중국을 반란 단체로 규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0일 리덩후이 대만 총통이 본토 정권을 적으로, 현 상황을 반 란 진압 시기로 규정하는 동원감란(動員勘亂) 시기를 최단 시일 내에 종식시킬 것을 약속함에 따라, 세계 최대의 반국가 단체의 영예는 북한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희화는 북한=반국 가 단체라는 규정이 냉전 시대의 마지막 유산으로 얼마나 터무 니없는 규정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또한 저는 북한을 현 정권조차 사실상 하나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 정권이 유엔 동시가입을 주장하는 것이나, 남북 대화 제의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가 아닌합법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 정권이 그토록 성사되기를 열망하는 남북 정상 회담이 북한이라는 국가의 주석을 만나는 것이 아닌, 반란 단체의 수괴를 만난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나서 하는 회담이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국가로 갈라진 현실을 인정하는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미국이 북한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유해송환 협상이나 벌이고있는 그러한 것이란 말입니까?

또한 저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한, 평화 통일의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남한 국가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았던 이유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동시에 북한이 남한을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미제의 식민 지역, 괴뢰 정권에 불과한 것으로 여겼던 까닭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공히 1945~53년 시기까지 남북한이 하나의 사회, 두 개의 지역이었던 시절의역사적 경험에서 연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였던 사회에서벌어진 전쟁, 한국 전쟁의 직접적 결과가 남한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북한은 남한을 식민지 미해방 지역으로 규정하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양자의 규정이 모두 한국 전쟁의 직접적연장에 서 있는 규정이며, 무력 전쟁에 의한 통일을 전제로 한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 이후 분단은 고착화되었고, 남북한은 서로 다른 정세 하에서 서로 다른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서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1970년대 이후 그 점은 대단히 분명해졌습니다. 그

와 함께 또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새로운 결합과 창조적 하나 됨으로서의 통일은 한국 전쟁의 직접적 연장 위에서가 아니라, 그 이후 40년이 경과하여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발전의 길을 걸 어온 현재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 서 이 문제를 더 길게 거론할 여유가 없으므로 결론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통일은 한국 전쟁의 직접적 연장에서 무력 전쟁 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부터 평화적 통일의 방식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반국가 단체, 즉 반란 단체나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력 전쟁에 의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그러므로 북한을 반국가 단체가 아닌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일 없이는 평화 통일의 길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상의 두 가지 이유로 북한은 반국가 단체 가 아니라 합법적인 주권 국가로 인정되어야 하며, 통일의 한 주체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반국가 단체라는 규정의 부산물이자, 그 규정을 강제하는 장치인 국가 보안법은 그 성립의 대전제인 북한 = 반국가 단체라는 규정과 함께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보안법과 함께 민족간 적대를 상징하는 군사적 대결 상태도 종식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미군의 주둔, 핵무기도 함께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종식되어야 하는 것은 남북한 적대 상황을 전제로 한 특수한 안보 상황을 빌미로 한 독재, 민중 기본권에 대한 유보·제한입니다.

2. 〈인노련〉은 북한의 노선에 대해 완전히 자주적이며, 남 한의 현실에 뿌리를 두고 주체적으로 성장해온 노동자 정치 조직이다

앞에서 국가 보안법은 민족간 적대적 대립을 유지,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남한 내적으로는 특수한 안보 상황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 특히 민중의 생존권, 정치적 자유를 탄압해 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인노련〉사건 또한 그간 숱하게 벌어졌던 민중 운동 탄압, 민중 기본권 억압 사례에 또 하나를 추가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검찰은 〈인노련〉이 북한의 노선에 동조,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결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심 또한 검찰의 공소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에서도 원심의 판결문에서도 왜 〈인노련〉이 북한에 동조했다고 하는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우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제1심 과정을 통하여 북한의 혁명 노선, 남한 사회관과 우리의 정치 노선 및 남한 사회관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려 하였습니다만, 그 차이가 갖는 의미를 원심재판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심지어 원심 재판부는 북한과 〈인노련〉의 본질적 차이에 대하여 고의로 눈감아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들게 합니다. 북한의 노선과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 완전히 자주적인 정치 단체에 대하여 '동조'의 혐의를 씌우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지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조금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인노런〉의 남한 사회관과 남한 혁명 노선의 자주성

먼저 밝혀야 하는 것은 북한의 남한 혁명 전략과 〈인노련〉의 정치 노선이 갖는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만일 〈인노련〉을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는 이적 단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분적인 견해의 일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이해의 일치를 지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그 기본적인 노선의 일치를 입증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에 동조했다는 혐의는 독재 정권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북한의 노선과 〈인노련〉의 노선은 도저히 '동조'에 의해서 연결될 수 없는 기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남한 사회와 남한의 정치 권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당면 시기 남한 혁명 운동의 성격, 사회 발전의 주요 일정에 이르기까지 〈인노런〉과 북한이 서로 다른 견해를 형성하고 있는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차이는 하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40여 년 간의 분단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남한혁명과 통일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노선의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널리 알려진 바, 북한은 한국 사회를 '일제 시대 조선 충독부 지배 하의 구식민지와 형태만 다를 뿐 아무런 본질적 변화도 없는 식민지, 일체의 주권과 독자성을 상실하고 외세의 전일적지배가 관철되는 완전한 식민지'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남한의정치 권력은 국민 국가로서의 아무런 독자적 실체를 갖지 않는

단순한 외세의 지배 도구, 대리 통치 체제'일 뿐입니다. 이와 같 은 북한의 남한 사회관은 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으로는 적합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처럼 남한 사회를 이해한다면 "엄 연한 하나의 독자적 실체로 존재하는 국민 국가의 장에서 펼쳐 지고 있는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영역들에서의 구체적 현실 생 활, 그 살아 움직이는 동학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북한의 남한 사회관은 선동적 표현으 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남한의 민중들 속에서 생활하며 남한 사회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남한의 민중 운동 세력들에 게 올바른 실천의 준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의 남 한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내적 모순과 그 발현으로서의 위기를 수반하면서도, 그러나 바로 이 모순과 위기를 통해 발전해가는 남한 자본주의의 생명력, 종속적 조건 속에서도 발휘되는 발전 의 동학을, 따라서 남한 부르주아지의 지배력과 민중 운동과의 대치 속에서 민중수탈적 질서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그 필사적 인 노력을 전혀 현실과 동떨어지게 평가하게 하는 점"에 있습니 다. 이러한 남한관에 기초하여 북한이 제시하는 남한 사회 발전 의 주요한 과제는 구식민지 시대 민족 운동의 기본 과제인 정치 적 독립의 달성, 국민 국가의 형성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며, 그러한 견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노동자의 길」40호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남한 정권의 주인은 미제이며 남한 정권의 모든 행위가 미제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생각이 현실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인 식하는 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는 1987년 이래의 정치 정세 를 판단하는 데서 주사파가 보여준 무능함으로 극명하게 드러났

다. 우리는, 남한 국가는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지의 또는 그 일 분 파의 계급 지배 도구라고 생각한다. 즉 남한 국가 역시 국가의 보 편성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진 종속성은 하나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1945년 이후 40 년간의 역사에서 그 종속성의 양과 질은 계속 변해 왔다고 본다. 국가 예산의 반 이상을 미국 원조에 의해 충당하던 시절, 미국무 부의 하급 관리가 예산 편성에 직접 간섭하던 1950년대와, 양국 부르주아지의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여 양국 정부가 무역 협상을 벌이는 1980년대 후반의 상황은 크게 다른 것이며, 그간에 종속성 의 양과 질은 많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소부 르주아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국가의 종속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들 은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고자 하는 부르주아지와 그 위원회(정부)에 의해 적절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 다. '한미 관계의 재정립'을 부르짖는 관리들과 부르주아 이데올로 그들은 '적당한 반미는 좋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정 치 위기와 노동 운동』, 거름, 16쪽).

우리 〈인노련〉이 북한의 노선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단순히 북한의 노선과 이러저러한 점에서 다르다는 데 그쳤던 것이 아니라, 북한의 노선에 대하여, 그리고 북한에 대하여 완전히 자주적이며 남한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 확고히 선다는 주체적인 노선과 입장을 분명히 한 데 있습니다. 몇몇 문제에 의견의 일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체적인 입장과 자주적인 노선으로 인하여 본질적인 일치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우리의 강령이 주장하는 '주한 미군 철수, 한반도를 핵기지화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 철수'

같은 요구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반면에 북한이 주장하 는 고려민주연방제 통일 방안에 대하여는 그 의미가 제한적이며 무엇보다도 현재로서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제안이므로 비판 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 리는 북한이 남한을 완전한 식민지로, 남한의 국가를 단순한 외 세의 지배 도구, 대리 통치 체제로 보는 주장과 그러한 남한 사 회관에 기초한 전술에 반대해 왔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어 디까지나 한국 사람들의 국민 국가로 보며, 비록 정치 권력이 미국에 종속성을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남한의 자본가들 특히 독점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 지배의 도구라고 봅니 다. 따라서 북한이 모든 투쟁을 반미 투쟁으로 집결할 것을 주 장하는 데 비해, 우리 〈인노련〉은 당면 시기에 반독점, 반독재 투쟁을 주요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여기서 중 요한 것은 그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인 입장과 독자적인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또한 우리가 공개 발행한 기관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천명해 온 바입니다. 다음 은 그 중의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한 현실세계는 복잡합니다. 복잡한 현실을 보는 데 있어 자신이 누구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가를 분명히하는 것은 옳은 방법과 옳은 정신으로 문제를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착취와 억압 속에 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가장 철저히 부정할 수 있는 '남한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 서서' 모든 문제를 바라볼 것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어떤 계급적 입장에도 확고히서지 않고 동요하는 사람들은 결코 현실을 일관되게 과학적으로

바라볼 수 없으며, 연구대상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로부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로 오자마자 금방 혼란에 빠져 버리는 것입니다. 북한의 통일정책이나 주체사상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남한 노동자 계급과 민중의 입장에서 바라보자!(『정치 위기와 노동 운동』, 거름, 30쪽)

이상이 북한과 (인노련)의 '남한 사회 성격과 남한 혁명'을 바 라보는 견해의 차이를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인데, 여기에서 보 다 중요한 것은 양 노선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있지 않고, 왜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가, 이 차이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 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남한 사회의 성격과 남한 혁명의 과제 설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는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나친 단순화의 우려를 무릅쓰고 감 히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그것이 북한이 남한 사회를 남한 사회 의 밖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반면에 우리는 남한에서 펼쳐지는 구체적 현실 생활 속에서, 남한 사회 내에서 남한 노 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같은 차이는, 이제 남한 사회의 발 전 문제는 더이상 '북한의 위협', '북한의 개입', '동조' 등이 문제 가 되는 남북 대결의 차원이 아니라, 남한 내적인 문제 즉 남한 사회의 발전 방향을 놓고 지배 계급인 부르주아지의 개량의 길 이나, 아니면 혁명적인 민중의 길이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주장만으로도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인노련〉에 대하여 '북한 동조'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 원심은 그 점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왜 인정 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 2) 〈인노련〉의 형성 배경——남한에서의 계급 투쟁, 노동 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

지금까지 저는 북한의 혁명 노선과 〈인노련〉 노선의 차이를 통해 〈인노런〉의 주체적 입장을 설명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인노련〉의 형성 배경과 결성 목적을 밝힘으로써 '이적단체' 혐 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검찰은 〈인노련〉이 우리 사회를 "독점 재벌과 미·일 제국주의, 군부 독재 정권이 노동자 계급을 무제한적으로 착취, 수탈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사회로 규정하고,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 노동자 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이민중과 연대하여 계급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일 등 제국주의독점 자본의 남한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구조를 깨뜨리고,이들의 하수인으로서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군부 파쇼 정부를 타도하고,민중 민주 정부를 수립해야(검찰측 항소 이유서)"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입각하여 활동함으로써 북한에 동조하여,북한을 이롭게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이는 〈인노련〉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북한에 동조하여 형성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인노련〉이북한에 동조하여 결성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하나의 방법은 〈인노련〉의 주장과 활동이 남한 사회의 객관적 현실에 기초한 것임을 밝히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동시에 그러한 해명은 공

안 당국이 '〈인노련〉 사건'을 노동 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로 악용하려는 또다른 의도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찰이 '대한민국이 독점 재벌과 미·일 제국주의 그리고 군부 독재 정권이 노동자 계급을 무제한적으로 착취, 수탈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진 사회가 아닌데도, 〈인노련〉이 북한에 동조 하여 노동자들에게 계급 대립의 이념을 주입시키고 계급 투쟁을 선동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찰과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계급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계급이 폐지된 평등한 사회,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세계인가? 아니면 계급은 존재하지 만 계급간의 관계는 적대적 대립 관계가 아니며 단지 역할 분담 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는 어차피 자본가와 노동자의 두 개의 계급이 존재하지만 자본주의 로 인하여 고통받는 노동자 계급은 없다고 할 것인가? 그러면 그간의 남한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적산의 불하, 원조 물자의 배분, 차관의 도입 과정을 통해 미군정, 이승만, 박정희 독재 권력, 관료와 결탁했던 친일·친미파 소수정상 모리배들이 일찍부터 독점 재벌의 그룹을 형성해 왔으며, 그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뇌물수수, 매수와 특혜 등 온갖 부정한수단을 동원하는 자본가 상호간의 경쟁은 새로운 독점 재벌을 탄생시켜 왔다. 그들은 전 자본가 계급의 두목이 되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위험한 작업 환경과, 과학 기술을 동원한감시 체계로 노동자 계급을 노예화시키고, 그 고통을 더욱 참을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데 앞장 서고 있다. 또한 이미 전세계적인자본주의 체계에서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일 독점 자본은

그 강대한 자본의 힘으로 남한 경제를 자신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속시키고 불평등한 교역 관계를 강요하면서, 남한 노동자가 생산해 낸 부를 강탈해 갈 뿐만 아니라 직접 남한에 자본을 투자하여 많은 남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더욱이 군부 독재 정권은 미·일 독점 자본 및 국내 독점 자본 의 공공연한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들을 노예적인 무권리 상태에 묶어두고 무한정한 착취를 보장하고 있다(〈인노련〉 강령에서).

사실 이 같은 남한의 현실 속에서 계급 대립을 첨예하게 느끼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입니다.

기계, 공장, 토지, 건물, 은행, 광산, 어선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거의 모든 생산 수단을 소수 자본가의 손아귀에 집중시키고 전민중을 무산화시켜온 발전 과정은 노동자들에게 현 질서 하에서의 계급 상승의 환상을 가질 수 없게 하고 단결과 투쟁만이 빈곤과 무권리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인간다운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 여러 공장을 전전하면서 경험한 체험을통해, 또한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전 생활을 바칠 것을 강요하면서도 앞날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주지 않는 자본의 억압과 착취의 실상을 깨닫게 된 지금에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단결과 투쟁의 욕구가 맹렬히 불타오르고 있다(〈인노런〉강령에서〉.

〈인노련〉은 바로 이러한 남한에서의 계급 대립, 자본주의와 성장과 함께 심화되는 노동자 계급의 고통, 그리고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따라서 〈인노련〉은 북한의 영향 아래, 북한에 동조하여 형성된 조직이 아니고, 남한 사회의 모순과 그 모순의 발현으로서 계급

투쟁의 발전 과정이라는 남한의 객관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어온 조직, 흐름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노련〉은 주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디까지나 생산 수단과 권력에서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권, 정치 조직권, 언론과 집회의 자유조차 박탈당한 채 오로지 생존만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 남한의 민중들이 자신들의 삶과 남한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꿔내고 새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피나는 노력과 투쟁 속에서 자라나는 혁명적 민중 운동 세력의 일부입니다.

- 3. 〈인노련〉의 결성 목적은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를 역사 창조의 주체로, 독립된 정치세력으로 일으켜 세우는 데 있다
  - 1)노동자 계급 운동은 경제 투쟁에 한정되어야 하는가?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소위 학생운동권 출신자들이 각종 사업장에 위장 침투한 후 노동 운동을 빙자하여 선량한 대다수의 근로자들에게 계급 투쟁 이념을 주입시키고, 현재의 사회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민중 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로 체제를 변혁시켜야 한다는 등 근로자들을 좌경 의식화시키고, 각종 노사분규를 배후 조종하거나 선동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전복할 것을 기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은 엄청난 사실 왜곡입니다. 이 주장은 반드시 〈인노련〉에게만 해당되는 언급은 아니고, 노동 운동을 바라보는 검찰의 기본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검찰의 이 같은 시각은 노동 운동은 '순수한 근로 개선'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공세의 일환입니다. 또 이러한 논리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노동자 대중의 의식 깊숙이 자리잡은 '정치적 노동 운동'에 대한 피해 의식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노동 운동'에 대한 피해 의식은 정치적 노동 운동 자체에 대한 피해 의식이 아니라 그로 인해 초래하게 될 탄압에 대한 피해 의식인 것입니다. 이 피해 의식의 뿌리는 참으로 오래된 것으로 한국 전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전쟁에서 극악무도한 미제국주의는 제2차 세계 대전에 맞먹는 물량을 퍼부어 수백만 민중을 살해하면서 우리나라가 통일된 민중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했으며, 1953년 휴전과함께 분단은 완전히 고착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 대대적인 계급투쟁, 민족 해방 투쟁, 양대 진영 간의 전쟁에서 최대의 희생자가된 남한의 노동자, 농민은 비참한 패배자, 포로의 신세가 되어 총칼뿐만 아니라 정당, 조직, 지도자, 사상을 포함한 계급 투쟁의 모든 무기를 빼앗기고 오직 생존만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인노련〉강령에서).

이 같은 역사적 경험은 왜 노동자 계급이 정치적 노동 운동에 대한 피해 의식을 갖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게 할 뿐 아니라, 노동 운동은 순수한 근로 조건 개선 투쟁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일제

하에서부터 노동자 계급은 자신들의 이념, 조직을 가지고 당시의 가장 중요한 정치 투쟁인 민족 해방 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사적 경험을 통해 볼 때 노동자 계급은 '계급의 발생 초기부터'부르주아지에 맞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념과 조직을 형성하고, 자신을 지배 계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투쟁해 왔습니다. 피억압 민중이 자신의 정치 조직을 만들 권리, 그것은 민주적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 운동은 경제 투쟁에 한정되어야 하며, 정치 투쟁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는 검찰의 입장은 노동자들을 완전한 무권리상태에 묶어 놓고 마음껏 착취하겠다는 자본가 계급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 2) 노동 운동의 정치 세력화는 민족 운동의 요구이다

지난 40년간에 걸쳐 남한 사회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사회적 변화의 핵심적 내용은 흔히 '부르주아지의 성장 강화, 프롤레타리아트의 성장, 소부르주아지의 축소 구성의다양화'로 요약됩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사회적 변화가 정치적 영역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남한에서의 민족 운동'은 사회적 변화, 사회 계급 구조를 올바르게 반영하여 발전하지 못하고 왜곡된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배 계급인 자본가 계급은 처음부터 진보적인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와 전 민중의 수탈로 인해 급속하게 자본을 축적하고 부와 사치를 누렸음에도, 전 민

중의 고통만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독점 재벌의 형성은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더욱 빠르게 강화해 나갔습니다. 독점 자본가들은 자본가들 가운데서도 특권층을 형성하고 엄청난 규모의 생산 수단을 지배하며 수많은 노동자, 농민, 소부르주아지를 착취·수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자본가들, 비독점 중소 부르주아지를 수탈하였습니다. 또한 독점 자본가 계급은 자신들의 사회적 기초의 빈약함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허약성의 문제를 군부와의 동맹을 통한 전 민중에 대한 파쇼적 억압, 폭력적 독재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군사 독재 정권의 파쇼적 억압과 독점 자본의 전 민중에 대한 가혹한 수탈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 같은 독점 자본가 계급의 지배에 맞서 줄기차게 항거해 온 것은 지식인 등 소부르주아지 민족주의자들과 일부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노동자 계급과 농민이완전히 무장해제당한 '남한에서의 민족 운동'을 대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표해온 민족 운동에는 근본적 한계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인구의 절대 다수인 민중을 항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묶어내지 못하는 운동 방식의 한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운동의 전망이 여전히 '부르주아적 전망'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이들이 이끄는 민족운동은 독점 재벌의 지배를 종식시킬 힘도 없었으며, 독점 자본가 계급이 제시하는 사회 발전 전망을 대신할 독자적인 역사적전망을 제시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980년대를 통하여 흔히 민주화 운동이라 일컬어지 던 소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과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에 주도되 던 민족 운동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족 운동을 보다 근본 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려 꾸준히 노력해 왔던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 노력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함께 시작됩니다. "부르주아지가 아니라면 누가 남한 사회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수 있는가?" 세계사적 운동의 보편적 경험과 남한 사회의계급 변화는 남한 사회의미래는 노동자계급이 떠맡을 수밖에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0여 년에 걸친 남한 사회에서의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는 부르주아지의 성장 강화, 프롤레타리아트의성장, 소부르주아지의 축소 구성의 다양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남한의 정치적 영역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의미가있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역사 창조의 주체로, 하나의 독립된정치적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프롤레타리아트는 아무런 정치적 전망도 주지 못하는 부르주아지를 밀쳐내고 남한 사회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떠맡고자 한다. 물론 프롤레타리아트가 제시하는 전망은 노동 해방과 민족 통일이며, 나아가 종국적으로는 모든 위대한 성인과 위대한 사상가들을 비롯한 인류 모두가 수천 년 전부터 꿈꾸어 왔던 이상과 일치한다. 인간의 인간에 대한 모든 억압과 착취가 폐지된, 그리하여 인간의 창조적 본성이완전히 구현되는 사회!(『정치 위기와 노동 운동』, 거름, 53쪽)

이러한 선언을 더 이상 원칙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과제로 눈앞에 다가오게 한 것은 1987년 7,8월 투쟁으로 열린 본격적인 계급 투쟁의 시대입니다. 1953년 휴전으로 분단이 고착되고 반민중적 독재 정권의 통치가 계속되면서 노동자 계급의 자주적인 조직과 투쟁은 '단절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그 후 남한 사회에서의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은 노동자 계급의 양적 성장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세계 최장의 노동 시간, 최고의 산업 재해율이 입증하듯 노동자 계급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강도를 높여 왔다. 가중되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군사 독재 정권의 군화발에 짓밟힌 채 일규적 저항으로 그쳤을 뿐이다.

'7,8월 대파업 투쟁'은 바로 이러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 속에서 잉태되었으며, 전국민적 반독재 투쟁이었던 '6월 투쟁'을 거치면서 자신의 모습을 갖추었고, '6·29선언'을 통해 군사 독재 정권의 후퇴를 확인하면서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발생 배경과 이후의 전개 과정은 '7,8월 대파업 투쟁'이 남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역사에서 갖는 지위와 함께 그 한계까지 규정해 주고 있다.

'7,8월 대파업 투쟁'이 갖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동자 계급 스스로의 힘으로 40여 년에 이르는 침묵의 세월, 그 굴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과거와 단호히 결별함으로써 계급 투쟁의 새로운 장을 연 데 있다. 투쟁의 확산과 노동 조합의 건설이라는 두양상으로 대표되는 '7,8월 대파업 투쟁'은 광범한 노동자 대중의투쟁 경험을 통한 계급적 자각과 조직적 훈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반제 반독점 혁명 대열의 주력군을 꾸리는 데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정치 위기와 노동 운동』, 거름, 421쪽).

이제 남한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는 남한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 3)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는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사상, 조직을 되찾고 역사 창조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다

저는 앞에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가 남한의 객관적 현실에 기초한 요구이며, 남한에서의 민족 운동 전개 과정의 연장선 위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인노런〉은 바로 이같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입니다. 〈인노런〉의 강령은 자신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인노련〉은 당면한 민족 해방과 민중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 인천·부천 지역의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구심이 되며, 노동 자들의 정치 의식을 발전시키고, 여러 형태의 대중 조직을 촉진시키며,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을 발전시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 부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정치적 통일과 노동자 정당의 건설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한편으로, 〈인노련〉은 파쇼 정권에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계급 계층 및 정치 세력과 적극 연대할 것이며, 특히 전 민중의 정치적 통일 조직을 형성해 나아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정치 위기와 노동 운동』, 거름, 37쪽).

여기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 정치 부대화란 남한의 특수한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사상과 조직을 되찾는 과정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목표를 전국적 규모로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가장 절실한 조직인 노동자당과 대중의 당면한 이해에 기초하여 대중의 투쟁을 조직하고 훈련시켜

나갈 전국적 노동 조합 조직의 건설이 시급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동자의 사상을 회복한다 함은 사회주의 운동을 대중의 정치 생활 한가운데 형성시켜 내려는 것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1987년 7,8월 이후에는 이미 격렬한 계급 투쟁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프롤레타리아 대중 운동은 본격적 성장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또한 7,8월을 전후하여 사상 운동에 있어서도 혁명적 민족주의 및 혁명적 민주주의와 결부된 소부르주아 사회주의 운동의 두 조류를 극복하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프롤레타리아 대중을 구출하기 위한 투쟁이 개시되었다. 그 투쟁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운동은 자기 자신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 1988년 여름 사회주의적 실천의 강화를 당면 과제로 설정한 이래 그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아직 혁명적 노동 운동의 실천은 민주주의적 실천과 노동 조합 운동의 지도 지원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사회주의적 실천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사회주의적 실천을 과감히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운동을 대중의정치 생활 한가운데에서 형성시켜 내려 한다"(『정치 위기와 노동 운동』, 거름, 4쪽).

이와 같은 〈인노련〉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남한 사회의 계급 구조, 모순에 기초한 것이며, 또 동시에 남한에서의 사회 운동의 가장 절실한 과제인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라는 과제를 실 현하려는 남한 노동자들의 노력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노런〉은 북한의 노선에 대해 완전히 자주적이며, 남한의 현실에 뿌리를 두고 주체적으로 성장해 온 노동자 정치 조직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인노런〉을 '이적 단체'라 주장하고, 원심 재판부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의 대의를 훼손하고, 노동자의 사상, 조직 결성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 4. (인노련)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저는 앞의 글을 통해 '(인노런)이 북한의 노선에 동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은 어느 정도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검찰이 '북한 동조 혐의'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와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설명이 어려웠으며——당연히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맥빠지는 일도 없습니다——솔직히 만족스러운 설명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인노련〉이 북한의 노선에 대해 완전히 주체적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해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자 검찰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인노런〉이 폭력 혁명을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또한 북한의 주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엎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인 만큼 이적 단체로 볼 수밖에 없

다"(『신동아』6월호, 489쪽).

또〈인노련〉사건 1심 재판부는 "국가 존립 안정에 위해가 되는지를 별론으로 하고 사유 재산, 시장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가 되는 점은 인정된다"고 판결 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의 발언과 위 재판부의 판결문에서〈인노련〉을 구속, 처벌하는 것은 북한 동조라는 데 그 근거가 있기보다는〈인노련〉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가 됨으로 결과적으로 이적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볼 것이 요구됩니다. 도대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노련〉이 '그 것을 위태롭게 했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과 해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1)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무엇인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대단히 모호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물론 자본주의를 꼭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그 경제적 기초로 한 사상 유례없는 독재 파시즘이 존재했으며, 그와 유사한 국가 형태가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는 자유 민주주의를 파시즘과는 구별되는 국가 형태로 이해하고자 하며 자본주의가 이룩한 민주주

의라는 의미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 같은 개념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파악할 때 대한민국이 자 유 민주주의 체제라는 주장에는 사실상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렇다고 현재를 극한적인 파쇼 체제로 이해하는 것도 5공화국까 지의 광포한 파쇼 체제와 현 시기의 특징을 구별하기 힘들게 하 는 난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국가는 광적인 파시즘적 요소와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며 아직 그 발전 경향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향한 전진일지 파시즘으로의 복귀를 향한 반동일지가 불투명한 과도기의 국가라고 생각됩니 다.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 부르주아 민 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민중의 기본적 권리 특히 민중이 자신의 정치 조직을 만들 권리를 비롯한 집회, 언 론, 출판, 결사의 자유 그리고 노동 3권 등 민중생존권적 기본권 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 는 어디까지나 모든 시민의 형식적인 법률적 평등과 다수의 소 수 지배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는 그것이 형식 적인 의미밖에 갖지 못하더라도 피지배 계급의 기본권, 정치 조 직권, 노동 3권 등이 제약되거나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 주주의 제도보다는 치안본부, 안기부, 전투경찰 등 폭력 억압 기 구에 주로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 주의라 부를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도 어쩔 수 없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강요하는 것은 민중 운동의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대한민국 국가의 민주주의적 요소의 결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개념화와 역사적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논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형식적인, 법률적인 평등과 다수에 의한 소수의 지배를 근본 원리로 하는 국가 형태입니다. 그러한 국가의 구체적 기능 방식은 헌법, 다당제의 의회 제도, 입법·사법·행정으로의 권력 분립, 그리고 시민의 형식적인 평등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유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인류의 값진 유산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실재하는 자유 민주주의란 어디까지나 형식적평등에 불과하며 그 민주주의의 실제 내용과 기능은 사회적 생산 관계, 즉 경제적 기초에 의해 결정된다는 데 문제가 존재합니다. 흔히 폭력적 지배와 독재에 질려 버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절대화하여 계급 내용이 사상되어 버린 상태에서 민주주의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계급 사회에서 민주주의란 지배계급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피지배 계급에 대한 독재입니다. 계급 사회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지배 형태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가 형식과 국가의 한 변종이다. 따라서 그 것은 모든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완력의 행사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한 측면이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는 시민들 내의 평등, 즉 국가 헌법을 결정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문제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형식적 민주주의의 기능과 내용은 전적으로 사회적 생산 관계, 그것의 경제적 기초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극심하게 존재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는 그러한 경제적 기초에 의해 제약받기 마련입니다. 자본이 주인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지배 계급인 자본가 계급의 민주주의이자, 피지배 계급인 노동자계급에 대한 독재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갖는 역사적 한계입니다. 또 자유 민주주의가 갖는 이 역사적 한계에 주목하여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계급적 제약을 받는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 2) 자유 민주주의가 남한에서의 사회 운동, 민족 운동의 종국 목표가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에서도 민주주의는 운동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전쟁 이후 노동자와 빈농 등 모든 일하는 민중이 정치에서 소외되고 오직 생존만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던 테다가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치 이념으로 하는 군사 파쇼 독재의 압제 하에서 민주주의의 확보는 모든 계급 계층의 절박한 요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를 둘러싼 투쟁의 한 시기가 마감해 가고 있습니다. 형식적 민주주의만으로는, 형식적 민주주의 인 자유 민주주의만으로는 민중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물론생존권의 확보조차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부르주아지만이 그리고 부르주아적 전망만이 모든 계급 계

층의 이해를 표현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민중의 이익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자유 민주주의가 사회 운동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평등의 원리와 그 장치의 고도화라는 민주주의의 진보적 성과를 항상 지켜내면서도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엄청난 경제적 불평등, 날로 심해지는 빈부 격차, 여전히존재하는 절대적 빈곤 속에서 독점 재벌을 주축으로 하는 자본가들의 경제적 지배가 모든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보성조차 무력화시키는 사회에서 형식적 민주주의의 획득만으로 민주주의의종결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유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생산 관계의 변혁, 경제적 기초의 개혁을 통해서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내용을 갖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새로운 질의 민주주의, 사회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합리적 핵심인 '다수의 지배, 자유 평등'은 사회주의에 이르러 최초로 가난한 사람들, 민중을 위한 민주주의가 될 민주주의의 거대한 확장을 경험하며 보다 완전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비로소 국가 경제 문화 생활의 관리와 계획에 제한 없이 주인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에 이르러 비로소 진정한 대중 운동이 시작된다든가, 착취와 억압이폐지된 사회에서의 인간의 전면적인 물질적 도덕적 발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 위에서 생겨나며

따라서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물질적으로 보장된 권리들과 자유를 의미하게 된다. 시민 민주주의와는 달리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전 민중을 국가 경제 문화 생활의 관리와 계획으로끌어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민중 지배를 실현하고자 한다.

사회주의는 좁은 의미의 정치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사회 경 제적 민주화를 의미하며, 그것은 민주주의 역사 발전에서 새로 운 질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민중 세상을 건설하려는 〈인노련〉의 활동과 이념은 자본주의 착취 제도로 인해 고통받는 계급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바로 그들 남한의 노동자 계급에 현실적 근거를 갖고 있는 사회 운동의 정당한 형태이며, 우리의 역사적 정당성은 자유 민주주의의 좁은 지평을 훨씬 뛰어넘어 존재합니다.

# 5. 현존 사회주의 사회의 개혁과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 1) 사회주의에 내재해 온 숭고한 이념을 놓치지 말자

저는 앞에서 '자유 민주주의'란 그것의 진보적 의의를 최대한 살린 부르주아 민주주의라 정의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제한된 민 주주의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한계는 자유 민 주주의라는 형식적 민주주의 장치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경제적 토대 즉,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 보다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적 관계로 개편하여, 사회적, 경제적 토대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 운동과 민족 운동의 궁극목적이 '자유 민주주의의 형식적 평등'에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자유 민주주의의 역사적·계급적 제약을 뛰어넘어 보다 철저한 민주주의인 사회주의로 그 시야를 넓혀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가 거론되자마자, "이념은 좋지만, 현실이 문제가 아니냐", 혹은 "현존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로 되돌아오지 않느냐"는 반론이 등장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엄청난 사건들, 사회주의 사회들의 위기와 대개혁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석 없이 사회주의를 운동의 이념, 목표로 제시하는 것, 자본주의의 첨예한 모순만을 들먹이는 것은 아무래도 결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사회주의의 위기와 개혁은 세계 인류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개혁은 세계 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며, 세계 역사를 평화의 시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개혁의 소식은 이 땅의 언론에게도 가장 큰 관심거리이며,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개혁의 소식과 사회주의 사회의 실상은 사회주의를 뿔 달린 도깨비가 사는 나라가 아닌 현실의 세계로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회에 대해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혁과 위기의 소식은 부르주아 언론의 조작에 의해 새로운 반공 논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사회주의란 말조차 떠올리는 것이 금기

시되었던 남한 사회에서, 모든 민주화 운동, 생존권 투쟁조차 '좌경 용공 세력'이란 이름 아래 응징되던 남한에서 드디어 민중 이 자신의 이념과 조직을 되찾으려는 바로 그 순간에 사회주의 의 위기와 개혁은 민중 운동에도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 다.

저는 지금부터 사회주의의 위기와 대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 소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갇힌 상황, 제한된 정보, 부족한 이론 역량 때문에 이 문제를 올바로 평가하기에는 저로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회주의의 위기와 개혁이 남한 민중의 변혁에로의 길, 사회주의 운동의 이념을 결코 훼손하는 것일 수 없으며 더욱이 그것이 남한에서 새로운 반공의 논리가 되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노동자 계급과 민중을 탄압하는 논리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밝히는 데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존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개혁과 위기에 대한 남한 언론의 태도는 한마디로 '자본주의 승리, 사회주의 붕괴'입니다. 이 같은 견해는 남한의 지배 계급인 자본가 계급의 주관적인 희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동구의 몇몇 나라가 자본주의로역이행하는 현상을 드러내자 사회주의의 붕괴를 기정 사실인 양떠벌리고, 소련 등에서 사유 재산 제도가 허용되고 시장 경제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보면서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열렬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 사회에서 위기의 현상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존 사회주의권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화에 대하여 '혁명'이라거나 '혁명적 개혁'이라고 부르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이념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깊은 회의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는 사회주

의 사상의 생명력에 관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련과 동구의 엄청난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장해 요인이 있음을 경계하여 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르주아지의 주관적 희망이 섞인 해석 과 과장되거나 선별된 정보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교조주의적 해석, 도 식적 견해도 사태를 냉정히 관찰하고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됩니 다. 이러한 교조주의적 견해는 사회주의에 대한 일종의 '환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 환상은 이 현실의 고통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성된 공상적 사회주의 경향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먼저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위기를 보 는 입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주의권의 위기와 개혁을 바라봄에 있어 사회주의에 내재해 온 심오하고 숭고한 이념을 놓치지 않을 것과 어디까지나 남한 민중의 주체 적 입장에 설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현실 사회주의의 위기와 개혁이 곧바로 이 땅의 민중 운동의 위 기가 남한의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고, 민중적 변혁의 길을 부정 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남한의 미래는 어디까지나 이 땅의 현 실, 오늘의 현실로부터 성숙되어 갑니다. 남한 민중의 미래는 기 성의 도식을 사회에 강요하는 것일 수 없으며, 현재에 내재한 모순과 발전 경향으로부터, 그리고 이 땅의 민중들의 위대한 창 의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위에서 언급된 기본관점을 염두에 두고 "사회 주의 사회의 위기와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그것은 남한 에서의 민중 운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하여 몇 가지 소감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주의의 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존 사회주의 국가의 위기란 무엇인가? 그것은 정녕 사회주의의 붕괴라 할 수 있는가? 사회주의의 위기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사회주의권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혁신의 물결은 아직 몇몇 나라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혁명적 변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그 근저에는 스탈란주의, 네오스탈란주의 사회 구성 모델의 위기가 깔려 있다. 이 위기는 수십년에 걸쳐 심화되어 온 것인데 그것(스탈란주의, 네오스탈란주의 사회 구성 모델——역자)이 이제 완전히 희망이 없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다. 기술 진보, 노동 생산성, 생활 수준의 측면에서 서구 자본주의 사회와의 심한 격차, 생태계의 위기, 인플레이션, 생활 필수품의 만성적인 부족, 거의 모든 제품에서의 경쟁력 저하, 경제성장률의 하락, 국가 기구의 경직화와 관료주의의 강화, 사회에서 인간의 종속적 상태——이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위기의 특징적 현상들이다(『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 풀빛, 8쪽).

이같은 위기의 특징적 현상들을 보고 부르주아지들은 '사회주의 실험의 좌절', '사회주의 체제의 파탄'을 이야기합니다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혁을 이끄는 당사자들은 그러한 위기가 사회주의 체제 자체의 파탄, 사회주의 이념의 몰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모델의 한계 혹은 과오라고 평가합니다.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소련의 전 이념 담당 정치국원메드베제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1970년대 말부터 우리 사회에서 현저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부정적인 경향들, 그리고 우리가 왜 경제 성장률에서 우월성을 상실하기 시작했고, 기술의 새로운 영역에서 뒤떨어졌으며, 점증하는 어려운 곤란에 직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주요한 원인이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원칙에 있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은 이전의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서 형성된 특수한 형태의 사회조직에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규범으로 인정되고 영원불변의 것으로 간주되어 현대적인 진보에 질곡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원인들은 과학적 사회주의와 당 및 사회 생활의 레닌적 기준으로부터의 심각한 일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건설물의 토대는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물과 함께 강고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설물은 그 모든 층에 걸쳐 근본적인 수리가 필요합니다"(『사회주의 대개혁의논리』, 풀빛, 50쪽).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개혁 세력들은 위기의 원인이 '사회주의 이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 가운데에서 이전의 사회주의 발전단계에서 형성된 특수한 형태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개혁은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원칙'에 조응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모델의 모색과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 같은 개혁 세력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올바른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되었다든가, 몇몇 동유럽 국가에서 비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사회민주주의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든

가,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좌익 독재와 경제 건설의 위 기에 대한 결과물로 반사회주의 세력이 형성된다든가, 개혁 사 회주의의 성과가 아직 민중의 삶의 획기적 개선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회주의의 진로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혼란 과 더 큰 위기의 조짐까지 엿보입니다. 과연 새로운 사회주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내고 '문명의 더 높은 단계로서의 사 회주의'를 성취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도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자기 해방 운동 으로서의 사회주의는 몰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후퇴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같은 후퇴는 새로운 전진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전진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일 수 없 으며, 그 나라 민중들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형성해내고 위대한 창의력을 발휘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주의의 위기와 개혁을 평가함에 있어 사회주의와 자 본주의를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거론하는 것은 몰역사적인 시각이며, 대단히 그릇된 시각이 아닐 수 없습 니다. 그러한 시각에 서 가지고서는 사회주의 사상의 형성 배경 도,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적 지위와 역할도, 사회주의 운동의 미 래인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올바른 평가도 내릴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이념과 운동은 어디까지나 구체적 역사 속에서 평가되 어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토대 로 하여 자라나온 것이지 자본주의와 경쟁적인 두 개의 길 가운 데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는 이상이 아니라 자신 의 낡은 상태를 종식시키려는 사회 자신의 현실적인 운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자본가 계급의 이데올로그들은 사회 주의를 이상으로, 현존 사회주의 국가를 이상의 실험인 양 선전

하는데 현존 사회주의는 세계사에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세계사에 있어 한 시대의 획을 그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변신 또한 사회주의 운동의 주도적 영향과 관 련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사회주의의 위기를 바 라보는 사람들은 그 위기의 원인이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발 생한 스탈린적 사회주의 모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 의의 선택 그 자체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10월 혁명에 모든 악의 근원이 있다는 시각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는 사회주의의 실험은 70년 만에 파탄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고르바초프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10월 혁명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위대한 세계사적 돌파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10월 혁명은 사회 문제를 인민의 이익에 맞게 해결하고 최고의 물질적, 정신적 진보를 위한사회적 조건을 창출하며, 의식적인 사회적 창조의 과정에 전체 근로 대중을 참가시키려는 의지의 표시였던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는 자신이 탄생해야 했던 진정한 이유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구체적 사실 속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대체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주의가 더 높은 사회적 노동 생산성과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인간의 개성을 실제로 자유롭고 전면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데 있다"는 바로 그와 같은 사회주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회주의가 역사 속에서 이룩한 성과를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후진 농업국이었던 러시아를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끌어올린 것, 자본주의의 파쇼적,

제국주의적 독재에 맞서 이들 독재의 위신을 실추시킴으로써 민주 진영을 강화한 것, 일부 선진 자본주의로 하여금 민중의 복지와 사회 보장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 등 인류를 자본주의로부터 지켜내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같은 역할은 자본주의 착취 제도를 폐지하고 계급 없는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사회주의의 역사적 사명에 비해서는 틀림없이 부차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운동이 인류 문명과 세계역사에 얼마나 깊숙이 관련되어 왔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주의권의 개혁 또한 그것이 성공적인 '사회주의의 건설'을 달성할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인류에게 커다란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현실의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위기에 대한 소감을 간단히 밝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사회주의의 위기와 예측불허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를 향한 진보적 세력의 진지한 노력, 인류의 전진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민중들의 해방,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향한 인류의 노력이 항상 순탄한 길만을 걸어갈 수는 없으며 항상 전진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민중의 해방에 대한 열망과 위대한 창의력에 기초하여 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자유로우며 이상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존 사회주의의 엄청난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많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감하고 솔직하게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를 개혁할 때 인간적이고 자유로우며 이성적인 사회의 건설이라는 사회주의 사상의 거대한 지적, 도덕적 잠재력에 의거 할 것이다.

### 2) 남한 민중은 사회주의의 개혁과 위기를 주체적 관점에 서 바라보아야 한다

현존 사회주의의 위기와 개혁, 그리고 그와 더불어 알려진 현존 사회주의의 실상은 한편으로는 대중적으로 잘못 알려진 조야한 평등주의나 병영 사회주의가 사회주의의 고유한 모습이 아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중 속에서 그리고 민중 운동 속에서 사회주의적 지향이 성장하기 시작한 바로그 순간에 민중 운동에 엄청난 충격과 당혹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내재해 있던 본질이 드러났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사회주의는 이상도 전망도 아니며 이제남은 길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성과를 따라 선진 자본주의로나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회민주주의를 대안적 이념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사회주의의 위기가 자본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들과는 전혀 다른 조건에 있는 남한의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심각한 모순, 극도의 반민중성, 민중의 고통을 유지·재생산하려는 독점 자본가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둘째, 사회민주주의 제도——스웨덴 모델, 서독 모델 등—— 와 사회민주주의 이념은 어디까지나 치열했던 계급 투쟁의 부산 물이며, 제도화된 계급 타협의 형태인데 서유럽처럼 사회주의 운동의 전통이 깊거나 강력하지도 않고 민중 운동의 강력한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대한민국에서 자본가 계급이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타협과 양보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운동의 부산물이라는 것이 저의생각입니다. 개량은 그 자체로 존속한 적이 없으며 언제나 혁명의 부산물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그 같은 의문에 답변하자면, 저는 현존 사회주의의 위기나 개혁이 남한 민중의 고통을 유지·강화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더욱이 정당한 민중 운동, 노동 운동 탄압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착취 제도로 인한노동자 계급의 고통, 민중의 고통이 존재하는 한 자본주의 체제자체를 극복하고, 억압과 착취를 폐지하려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 운동, 민중의 자기 해방 운동은 정당한 것입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의 위기를 이 땅의 민중 운동의 위기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양자가 전혀 다른 조건과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존 사회주의의 위기와 개혁이 사회주의 건설 이후수십 년이 지난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남한은 사회주의화의 전제 조건에 있어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조건에 있습니다. 농민이 80%를 차지했던 러시아나 중국의 경험을 보고 혹자는 빈농은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식으로 평가했다는데, 남한은 물질적전제 조건들의 성숙이나 사회 세력의 성장에서 대단히 유리한조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 민중들이 사회의 발전과 스스로의 해방을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길은 기존 사회주의 모델의 도식을 강요하는 길일 수 없으며, 남한 사회의 현실의 모순과 발전 경향, 그리고 민중의 위대한 창의력에 의해 이룩될 민중의

세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이 이적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주로 논리적으로 해명하려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밝히고자 했던 것은 이적 단체란 탄압의 빌미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인노런〉 사건의 객관적 의미는 이적 단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인노런〉 사건은 노동 운동에 대한 탄압 사건이며 그것은 노동 운동의 현재에 대한 탄압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탄압입니다.

〈인노련〉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 부대화를 활동 목적으로 합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사상, 정당 등을 갖추고 역사의 창조적 주체로 당당히 나서는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 〈인노련〉의 활동 목적입니다.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의 사상적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되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해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노련〉은 노동자의 정치적 독립을 준비해 온 조직이며 따라서 〈인노련〉에 대한 탄압은 노동 운동의 미래에 대한 탄압이기도합니다.

〈인노런〉 사건은 이 같은 정황 속에서 그 의미가 평가되어야 합니다.

재판부의 진지한 판단을 바라며 이상으로 항소 이유서를 종결 하고자 합니다.

1990년 7월 16일

피고인 오동렬

#### 〈항소 이유서 2〉--

### 윤철호 항소 이유서

안양 교도소 재감중

수 번:5016

생년월일: 1962년 3월 3일생

본 적 :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336번지

죄 명: 국가 보안법

형 량: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sup>&</sup>quot;도대체 사회주의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동자 계급과 민중이 서 있는 절망과 분노의 대지 위에 새롭게 인간답게살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다름아닙니다."

본 항소인은 상기 죄명으로 서울 지방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 다음의 이유를 들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성숙한 인간에게 퍼부어지는 노망든 말투, "에비!"

"에비!"

에비라는 말을 아십니까? 어린 시절의 호기심을 가로막던 목소리. 미성숙한 어린 아이와 신뢰받는 어른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법 말입니다. 할머니의 등 뒤에 있는 저건 뭔가, 재미있는 것일 텐데. 하지만 아이는 할머니의 눈과 등 너머를 번갈아 살피며 눈치를 봅니다. 말 안듣는다 혼났던 언젠가의 기억도 되살아 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가될 만큼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성숙은 사회 현상에 대한합리적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들 성숙한 인간들에게 '에비'라는 말로 설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노망든 노인네들은 예전 몇십년 전의 말투를 고집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상적 사회 생활에서 제외되고 새로운 세대의 보호 아래 놓이게됩니다. 저들 지배 세력은 1심 판결까지 오면서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을 이적 단체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나저제나 '에비'하는 사고 방식을 우리 모두에게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도 저들의 말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들로부터 배워 저들처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10

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수십년이 흘러, 이제 우리 노동자들도 본 대로 느낀 대로 말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한 겨울 벼밑동만 남은 논바닥에 떨어진 뼈라를 주워모아 총 천연색 사진이 빳빳한 종이에 멋지게 인쇄된 「자유 세계」와 바 꾸던 학교 앞 파출소, 서예 시간이면 으레 '멸공 통일' 같은 구호 를 칠판에 그려놓고 글자에 줄을 맞추는 게 우선 중요하다던 여 선생님, 초여름이면 벌어지던 반공응변 대회를 위해 "만장하신 신사숙녀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원고로 목청을 가다듬던 텅 빈 교실들로 기억되는 국민학교 시절, 환경 미화를 위해 만들던 교 실 뒤 게시판마다 큼직하게 자리잡은 반공판, 교내 반공 글짓기 대회 입상작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가 휘날릴 때까지」 따위의 글을 낭독하던 구령대, 귀가 길에 선생님 말씀대로 군복을 입고 사투리를 쓰던 모의 간첩이 주는 쪽지를 받아 뜀박질로 3분 만 에 파출소까지 신고했다고 상 타던 친구를 보며 '나한텐 왜 모 의 간첩도 안 나타나나' 하며 부러워하던 조회 시간. 이런 일들 로 중학교 시절을 회상하는 나의 머리는 꽉 차옵니다.

저들은 그렇게 우리들을, 적절한 몸무게 90킬로그램이 될 때까지 껌껌한 어둠 속에 가두어 기르는 도살용 돼지처럼 사육해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천성처럼 북한을 적으로 삼는 데서그 지주를 삼는 반공 이념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들이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을 이적 단체로 규정하는 논리가 터잡고 있습니다.

저려오는 팔뚝으로 둑을 막았다던 네덜란드의 소년은 팔을 ♥️ 버리고 싶은 고통과 유혹의 순간마다 "둑이 무너질 테고 그러면 정든 집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떠내려가 버리고 말거야" 하 며 자신을 달랬다지만, 반공이라는 허구적 이념의 둑은 제 정신 이 들 때마다 파괴의 충동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성숙이 가져오는 필연적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공설 운동장으로 반공 규탄 대회를 가곤 하던 고교 시절을 기억하지만 그때는 벌써 지겨운 학교 수업을 빼먹는 날에 지나지 않았고, 그 해방감 덕택에 반공 대회 분위기를 흐려놓는다고 군데군데서 기합을 받곤 했습니다. 또 반은 교양으로 반은 겉멋으로 읽은 『팡세』 같은 책에서 대략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에 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서로 싸우고 죽이는게 정당화되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로 기억되는 구절만 읽고도 우리의 남북 분단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 후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월맹의 침략으로 시작되었다던 월남전이 사실은 미국의 야만적 침략으로 시작되었다는 진실을 깨닫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분명히 벌어졌던 학살극이 유언비 어라고 주장되는 어이없는 현실을 겪었습니다. 그때도 혼란을 조장하려는 간첩이 서울역 지하도에선가 잡혔지요. 그리고 나 자신이 부정한 현실에 저항하고, 우리들 모두가 빨갱이로 치부 당하면서 음모라고나 부를 이념 조작이 그토록 악의적이고 거대 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 사회 체제의 비밀과 반공 이념 의 허구성을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 저들 체제수호의 무기고 '6·25'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노동자들은 현실이 뒤집혀 있음을 '통박'으로 압니다. 가끔씩 조회석상에 나타나는 사장님 말씀은 작년에도 올해도 회사 사정은 어렵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해줘야 한다는 소

리뿐, 괜히 기름문은 작업화로 식당 바닥을 긁어대거나, 그 괜한 얘기 듣자고 30분은 일찍 출근을 서둘러야 했나 투덜거리며 기계 앞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들은 깨달아 갑니다. 지난번 공장에서도 그랬지, 올해는 딸네미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데, 그것만 따져도 얼마나 올라야 하나, 전세값 올려주려고 마누라는 계를 들었다던데, 술이나 한잔 하자는 얘기에도 주머니가 부담스러워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다며 돌아오면서, 아 세상은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우울을 삼킵니다. 밥상머리의 텔레비전은선진국으로 향해가는 GNP를 떠드는데 '이 놈의 살림은 앉으나서나 제자리', 그래서 '공장에선 벙어리도 말 안하고는 못배깁'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고 일한 만큼 보장받는다는 얘기가 듣기 좋은 개소리임을 깨달은 어린 시절, 그후부터 수십 년 생활경험보다도 많은 것을 우리 노동자들은 투쟁하면서 깨달아왔습니다. 우리 노동자들도 단결할 수 있구나, 단결하면 이길 수 있구나. 임금 인상을 해도 멀쩡하니, 회사가 망한다던 얘기도 거짓말이었구나. 우리 동료들이 구사대의 쇠파이프에 쫒겨 담을 넘는 장면이 신문에는 우리가 두들겨 패는 것으로 뒤바뀌어 버리는구나. 그뿐입니까? 노동자들을 칼로 쑤시고 쇠파이프로 두들기는 놈은 멀쩡해도 관리직 멱살 한번 잡고 그 옆에서 눈 한번 똑똑히 뜨기만 해도 징역으로 가는 걸 봅니다. 파업을 해보면 소위 '공권력'이란 게 자본가들의 '공깡패'요 '공폭력'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만든 재산, 노동자들의 일터, 잠시나마 일군 해방구를 향해 쳐들어 와 다시 자본가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자본가의 용병, 경찰, 백골단이란 이름의 조직폭력 배들. 파업을 해보면 노동자의 편은 빨갱이들밖에 없다는 걸 압

니다. 그리하여 도우러 와주는 좌경 학생들이 고맙고, '외부 세력 개입 말라'는 소리는 촌놈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이제는 노동자들 내에도 좌경 용공 세력, 불온 세력이 있답니다. 파업 주도 핵심 세력과 그 배후에는 그런 세력이 있다지요. 자본 가들은 오래 전부터 노조와 파업을 빨갱이들이나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반은 맞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혁명을 일으킬 불꽃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1987년도 7, 8월 대투쟁 이후 전진했던 거리의 상당 부분을 침탈당하면서 우리는 다시 전열을 추스려야 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전선의 선두를 감당해야 할 선진층이 다져야 할, 무엇을 목표로 우리는 싸우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노동자 계급 안팎에 존재하는 노동 운동의 혁명성에 대한 모든 거부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들이 그 실천적 귀결의 하나입니다.

그 한 지점에서 우리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은 또다시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동안 저들만이 숨겨두고 써먹던 저들의 체제 수호의 마르지 않는 무기고, 6·25에 대해서부터 말하고자 합니다. 파업을 하다, 가두 시위를 하다, 사장님과 대거리를 하다 우리는 빨갱이 소리를 듣습니다. 저들이 돈주고 키우는 조직폭력배, 백골단들이 우리의 동료들에게 쇠파이프를 날릴 때마다 장단처럼 넣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우리〈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도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표현을 바꾸어 이적 단체라고.

저들이 〈인노련〉을 비롯한 모든 진보적 조류에 비난을 퍼붓는 배후에는 6·25 동란의 역사적 경험이 강력한 근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들 지배 세력은 옳았고 사회주의자들은 잘못되었다 는 주장.

그러나 그 전쟁이 발발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볼때, 과연 6·25가 저들의 지배 행위를 영원히 면죄케 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빨갱이들은 영원히 민족 앞에 고개를 들수 없는 죄인일까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범죄자, 역사의 죄인은 저들 지배 세력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진실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사회주의자는 6·25의 죄인인가

머리에 명중될 때의 기분은 정말로 통쾌했다. 나를 쳐다보는 부 상자를 목표로 겨냥해서 방아쇠를 당기면 두개골이 날아가고 눈 에서는 눈동자가 뽀르륵 소리나며 떨어졌다. 나야말로 명사수가 아닌가?

이것은 월남전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 한 미군 병사가 고향에 보낸 편지의 한 토막입니다.

학살 이후 먼저 창고문을 열자 입구 부분에 어린이들의 시체가 겹겹이 쌓여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창고에서 모두 도망치려고 발버둥친 상황을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얼어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 이외에도 불에 타 죽은 사람 또한 많았습니다. 대 부분의 어린이들은 고통에 못이겨 몸부림치느라고 손톱이 빠져 있거나 닳아져 있었고 몸부림치며 긁어댄 자리마다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 통으로 몸부림쳤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해도 신천군 월암리에서 벌어진 미군의 집단 학살극에서 살아남은 주민의 중언입니다. 미군은 신천군 점령 후 45일 동안전체 인구 14만 명 중 약 25%인 3만5천 명을 학살하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용기를 내고 힘을 북돋워 줌으로써 역사의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 역사적 사실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국군은 후퇴하면서 수만 명이 넘는 보도연맹원에 가입된 좌경 혐의자들을 남녀노소 가림없이 무차별 학살한 전과를 올렸다는 것, 1951년 지리산 유격대를 토벌한다던 11사단 부대들이거창군에서 대부분 노약자, 부녀자, 어린이들인 주민들을 수백 명씩 무더기로 곳곳에서 학살했다는 것, 이런 일들은 전쟁 기간중 수없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의 일단이 드러나자신성모 국방 장관은 "그들은 공비와 내통한 불순 분자임이 밝혀졌다", "외국의 원조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마당에 이 같은 군의 비행이 외국에 알려진다면 전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군의 사기를 해친다"고 말했다지요.

전쟁 기간을 통틀어 인명 피해를 보면 북한군이 인명 손실 52만 명, 민간인 피해는 사망 실종 부상자 등을 포함하여 2백만명, 남한 쪽은 군인 30만명, 민간인 99만명이라고 합니다. 절대수로 따져도 북한 측의 피해가 두 배는 되니 상대적인 인구비례로 보면 피해 정도는 4배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빨갱이는 죽어도 괜찮다는 비정상적인 논리에서 벗어난다면, 사상자의 80%가 양민이라는 사실에도 눈을 돌린다면, 우리는 사회주의자들의 잔학성과 폭력성에 대한 저들의 주장, 그를 근 거로 오늘날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도덕적 손상을 입히려는 고루한 전통이 사실의 심각한 왜곡에 기초한 것임에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의 전쟁이 어느 한편만의 잔학성을 드러내는 계기가될 수 있다는 것은 전쟁이 무장한 살상집단 간의 충돌이라는 기초 상식에도 위배되는 발상에 불과합니다. 하물며 국군과 미군을 주 구성원으로 하는 유엔군이 "한국에 더 이상의 폭격 목표는 없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전 한반도(북한만이 아니다——인용자주)는 단지 끔찍스러운 잿더미일 뿐이다"고 미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토록 한 몰살 작전……심지어 세균 전쟁을 벌인 사실까지 폭로된 것이 진상인 바에야.

# 한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 민중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저들 지배세력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행위를 두고 자유 세계를 수호하기 위한 영단으로 칭송해 왔습니다. 당시의 이승만 정부가 이렇게 생각했음은 당연하게 짐작가는 일이나 40년의 시간적 거리를 둔 지금에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할까요? 오히려 미국이 부당하게 한반도의 내전에 개입하였으며그로부터 중공군 개입의 정국이 마련되고 한국전이 한민족 대량학살의 국제전으로 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진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한반도가 '공산화'되도록 그냥 놔두었어야 했 단 말이냐고 저들은 흥분할 것이고, 사실 이때부터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빨갱이들 으레 하는 소리로나 치부되겠지요. 지금도 난민이 떠돌아다니며 패망한 자유 세계 국민의 고통을 상기시키 는 교훈으로 선전되는 베트남에 우리 젊은이들이 파병됐던 경험 까지 되살려지며 저의 주장이 묵살당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베트남에의 파병이 명분 없는 미국의 침략 전쟁에 끼어들어 괴뢰 용병 노릇에 젊은 목숨을 걸어야했던 잘못된 역사 이외에 무엇으로 평가돼야 합니까? 베트남 민중들이 사회주의를 선택하든 자본주의를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의 선택에 전적으로 맡겨야 할 문제였습니다. 이 논리는 해방후 한국 전쟁에 이르는 한반도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한 민족의 내부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든 그 결정 과정에 간섭할 자격이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군사 출판물인 『브레세이 연감』 1951년 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남한 사람들에 대한 고려 없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불행한 남한은 자유로워야 할 나라가 아니라 격전장으로 간주되 었다. 결과적으로 전투는 정말 무자비했고, 남한이 더 이상 국가로 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다. 마을들은 파괴되었 으며, 생계 수단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시민들은 자선 에 의지하는, 의욕을 잃은 대중으로 변모했다. 미군이 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시도된 적이 거의 없다. 공산주의에 대한 국가적 중오와 공포가 대부분의 경우에 병사들을 더욱 무분별한 교전 상태로 몰아넣었다. 어쨌든 남한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형태 의 동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물론 예외로 무수한 작은 친절의 행렬이 아이들과 살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향했지만 남한 사람 들은 불행하게도 38선 북쪽의 그들의 동포처럼 멍청하게 취급당 했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지요. 19세기 말 봉건 왕조에 맞서 궐기한 동학 농민들의 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몇 차례 관군을 보냈다가 패배를 맛본 부패무능한 이씨 봉건 왕조는 일본군을 우리 땅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들 양반 세력들은 이제까지 인간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농투성이 상놈들에 의해 왕조가 무너지는 체제 변혁의 위험을 죽어도 받아들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양반이 왕조를 유지하든, 상놈들이 그왕조를 붕괴시키든 민족 내부의 문제요, 일본군을 개입시켜서는 안되는 문제 아니었을까요? 일본군 파병 요청은 곧 일제의 침략 아래 망국의 길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셈 아니었던가요? 일본군은 그러한 계획 없이 개입했겠습니까?

또 하나 다른 나라 얘기를 해보지요. 1861년에 미국에서 벌어 졌던 남북 전쟁은 대표적인 내전 중의 하나였습니다. 남쪽 주들은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하면서 상반된 이해 관계를 놓고 전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만일이 전쟁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개입했다면 그것이 무슨 명분으로 포장되었든 정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전쟁에 개입한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 이외에 무슨 이유로 개입하겠습니까? 그 결과는 또 자주성의 침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시간상으로든 거리상으로든 약간의 여유를 두고 살펴보면 보이는 진실들이 그토록 알아채기 힘든 유례없는 경우가 바로 한국 전쟁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사고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저들의 준비된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소련의 괴뢰 위성국가요, 그 침략은 소련의 적화 전략에 따른 꼭두각시의 것이므로 이 전쟁은 처음부터 내전이 아니라는 반론 말입니다.

그러나 전쟁 전 소련의 원조가 있었다 해도 미국의 군사 원조가 그에 못미치는 것이 아니었으며, 전쟁 기간 중 전쟁의 지휘권을 장악하고 십수만의 군대를 줄곧 유지해온 미군에 비교할수 없다는 극히 단순한 사실에 의해서도 저들의 주장이 사태의본질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 인간이 왜 투쟁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다만 한소 관계가 경제 교류를 넘어 정식 국교 수립으로까지 가는 흐름 속에서 이 문제에서도 묘한 논점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음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소련의 저명한 역사가 미하일 스미르 노프가 소련의 한 라디오 대담 프로에서 6·25는 북한의 단독 남 침이었다고 말했다지요. 이 사실에 대한 신문, 방송의 보도는 모 두 북한의 남침을 소련도 인정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만 한편에서는 6·25가 갖는 내전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 으로 보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지난『신동 아』 6월호에 실린 6·공화국의 한 두뇌 김학준의 글에서도 드러나 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과 소련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우선 한국 전쟁이일어났을 때 소련이 어떤 태도를 취했던지를 살피기로 한다. 이미 잘 분석되어 있듯이 한국전쟁 개전 초기에 있어서 한국 전쟁에 대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소련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 미국이 즉각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다짐하면서 신속하게 국제 연합을 중심으로 서방 세계를 결속시킨 것에 반

해, 평양과 모스크바의 또는 평양과 북경 및 모스크바의 3각 관계에는 여러가지로 조정이 덜 된 일종의 비협조적 측면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말하며 몇 가지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 다음 "종합하건대, 한국 전쟁의 개전 초기에 보여준 소련의 대응은 매우소극적이었고 신중했다. 이러한 자세는 한국 전쟁의 계획과 추진에 소련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전통주의적 추론에 의문을 갖게 하는" 근거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냉전 시대 철의 장막, 공산 종주국으로 선전되어온 소련과 수교까지 맺게 된 현 단계에서 허물어지는 반공 논리와 드러나는 6·25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반(反)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반공 논리와 그 역사적 근거들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군 개입의 성격은 38도선 북진으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전쟁의 원상 회복'이라는 최초의 개입 명분을 결정적으로 일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루먼은 "유엔이 결정해 주면 북진하겠다"고 했지만 10월 7일의 유엔 결정 이전인 9월 29일에 이미 북진해도 좋다고 맥아더에게 명령서를 내려 보냈고, 1950년 7월 1일 국무부의 동북 아시아 과장 앨리슨은 "한미 양군이 38선에서 정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며 "만일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만주와 시베리아 국경까지 진군하여유엔 감시 아래 전 한국 총선거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승만의 북진 통일을 적극 지지하는 주장입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에 걸친 한국 전쟁에서 초기 2~3개월간 국군이 일방적으로 밀렸던 전황을 근 거로 북한의 불법 남침과 그에 따른 전쟁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결국 한국 전쟁에 관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도대체 한국 전쟁이란 무엇이었는가,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데 있다 할 것인데, 그에 비추어 누가 덤볐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다는 논리는 시장 바닥에서 벌어진 싸움도 설명할 수 없는 논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침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개입, 38선 북진, 중공군 참전, 휴전 협상 등의 사건을 담고 있는 3년여의 역사적 전개를 추적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쟁에까지 이르는 역사적 배경, 해방 전후사를 고려해야만 한국 전쟁이란 무엇이었느냐 하는 질문에 답할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싸워야만 했는가 말입니다.

1950년 이전의 한국 내 게릴라 전쟁도, 한국 전쟁 그 자체—— 월남전도 마찬가지이다——도 인간이 왜 투쟁하는가의 문제를 다 루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존 할리데이).

인간이 왜 투쟁하는가 하는 질문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문제로도 보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공산 괴뢰의 조종, 적화 야욕 같은 용어들로 해명할 수는 없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포함한 전 민족이 3년여의 시간 동안 휩쓸려야 했던 현실적이고 절실한 이유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수백만 명의 민중이 전국 각지에서들고 일어난 6월 민주화 투쟁, 이것이 이를테면 민주 헌법 쟁취국민 운동 본부의 조종과 재야 인사들의 어떤 야욕에 의해 벌어진 사건으로 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입니다. 6·25라는 사변이었기 전에 분단이 있었고 분단 이전에 해방과 일제 40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인노련〉강령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마침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자유 발전의 광야 앞에 서게 되었다. 그 환희에 찬 해방의 시점에 우리나라는, 이전 제국주의 및 친일 자본가와 지주의가혹한 착취, 수탈 하에 노동자 농민이 신음하던 식민지적 반봉건적 상태를 극복하고 자주적 민중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나아가 보다 이상적인 사회로 무한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내적 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노동자와 농민을 대중적 기초로 하는 혁명 역량이 오랜 항일 민족 해방 투쟁으로 단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라가 없던 우리 민족은 민족 독립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애국적 열정을 결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가 수립의 열망은 건국 준비 위원회에 담겨지기 시작하여 8월 말경에는 전국에 1백45개의 건국 준비 위원회 지부가 등장하였고 이 건준은 지방 수준에서는 인민 위원회로 전환하여 일제 식민 통치 기구가 붕괴된 한반도에서 민중적 자치 기관, 권력 기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8월 16일에는 건국 청년 치안대가 조직, 전국에 1백62개의 지부를 둔 단일한 체계의 건국 치안부로 재차 공식출발하였고 국군 준비대가 창설되기도 하였습니다.

동시에 8·15 직후부터 노동자, 농민, 청년 및 여성들의 대중 조직이 싹터 1945년 11월과 12월에는 중앙 조직들이 건설되었 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오랜 항일 민족 해방 투쟁으로 단련된 노 동자와 농민을 기초로 하는 혁명적 역량이, 붕괴된 일제 식민 통치 기구를 대신하여 사회 정치 생활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량들은 무엇을 해야 했던가? 민족 독립 국가를 만들어야 했고, 일제 시대의 친일 반역 혐의 자를 처단해야 했으며, 농민에게는 토지를, 노동자에게는 공장을, 적산을 경제 발전의 자산으로 삼는 사회경제적 혁명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방을 맞은 조선 민중이 자연스레 나아가던 행로이기도 했습니다.

1945년 9월 6일 1천여 명의 대표들이 서울에서 회합, '조선 인민 공화국'의 창건을 선포하기에까지 이르렀고, 제국주의 잔재 와 봉건주의에 반대하는 27개항의 강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혁명의 확대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야심으로 우리나라의 남쪽 반을 점령한 이래, 미제국 주의는 자본가와 친일 관료 등 반동적 세력들의 보호자가 되어 그들을 극력 지원, 육성하는 한편, 통일된 민중 민주주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 투쟁을 온갖 수단으로 억 압하였다.

그리하여 이북에서 토지 개혁 등 제 민주 개혁(반제 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순조로이 완료한 1947년도 이후에도 이남에서는 혁명적 민중이 미군정의 탄압과 월남한 지주 친일파의 합세로 강화된 우익 반동 세력의 광란적 백색 테러에 맞서 싸우지 않을 수없었다(〈인노련〉 강령에서).

일제 시대와 진지하게 대결했던 작가 김학철은 한 소설에서 지금은 모든 이들이 다같이 민족 독립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 겠거니 하고 짐작하는 일제 시대에 살아갔던 인물들을 세 유형 으로 묘사합니다.

의식마저 일본화되어 버린 조선인 출신 일본군 포로들은 독립

군과의 전투에서 사로잡힌 후 '독립군 조선의용군'이란 말을 듣자, "독립? 이 이가 꿈을 꾸고 있나?" 하는 소리로 첫 반응들을 보입니다. 출신 성분이 서로 달랐던 그들은 그 후 하나는 완전한 조선의용군의 병사로 탈바꿈했고 또 한 명은 조선의용군의 병사가 되었다가 전투 중 끝내는 탈출하여 일본군으로 되돌아가 버리며 나머지 한 명은 끝까지 조선의용군 포로수용소에서도 일본군의 승리를 꿈꾸다가 병사합니다.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 소설적 유형화를 예로 들었지만, '끝까지 일본군의 승리를 꿈꾸'거나 시류에 따라 일제에 협력했던 자들 역시 민족의 한 구성원으로 해방된 조선을 맞이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보수 세력은 해방 직후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해 주던 일제의 패망으로 인해 진보 세력에 맞설 수는 없었습니다. 해방 직후의 치안을 맡아 달라는 조선 총독의 제안을 자신에게 돌려질 친일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송진우로부터 지주, 자본가들은 정치의 전면에 조심스럽게 나설수밖에 없었으며, 일제 식민 통치의 앞잡이로 원성을 샀던 경찰은 대부분 근무지를 이탈, 도피해 있었고 일제 기관에 근무하던 관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보수 세력은 1945년 9월 11일 한국민주당을 창당하여 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으나, 인민공화국에 반대하는 것 이외에는 '애매하고 신비적인 계획'밖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 6월 25일은 그간의 전쟁이 '확대'된 날일 뿐

38도선 이남에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은 38도선 이북의 소련 군이 곧 인민 위원회와 건국 준비 위원회를 인정한 것과는 달리 조선 민중이 기울여온 건국의 열정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일제 식민 통치 기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일제 식민 통치 기구를 구성하던 조선의 보수 세력이 다시 정비되고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혹은 앞서 폐기된 것이 아닌 모든 현행법과 과거의 총독부가 공포한 규정, 명령, 지시 및 각종 문서들에서 1945년 8월 15일까지 유효했던 것은 합법적 당국(미군정)에 의하여 폐기될 때까지 계속 발효한다(1945. 11. 21 군정법령 21호).

남한 내에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던 미군정은 한민당을 주요 동맹 세력으로 삼아 식민통치 기구를 재정비하고 조병옥이 유일하게 "남한 전역에 걸쳐서 인민 공화국과 인민 위원회를 해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미군정이 "우리는 (국립 경찰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서 충성했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충성을 바칠 것이라고 믿었다"던 경찰의 재정비를 도왔으며 국립 경찰을 지원하는 보조 부대로 한국군의 창설을 결정했습니다. 보수 세력들은 "노동자와 농민을 생각할 때는 지배를 생각하게 되므로 조합이나 대중 조직대신 경찰과 관료에 관심을 돌리게"되는 법이고, 사태의 진행은 이들 조직된 부대가 민중의 자주적 조직을 분쇄하는 데 앞장서 갔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미군정의 정책은 한 마디로 반혁명 정책이었습니다. 일제 잔재의 청산도, 민중 자치 권력의 인정도 거부한 그들은 토지 개

혁에도, 민족 자립 경제의 토대와 근로 조건의 개선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를 향한 민중 운동을 탄압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남의 민중들에게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에서는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발족된 후 3월부터 토지 개혁을 본격화하였습니다. 토지의 재분배가 실시되어 농촌 인구의 70% 이상, 즉 북한 총인구의 약 50%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재분배된 토지 면적은 전북한 농지 면적의 50%에 달하였고, 그 해 6월에는 8시간 노동제, 사회 보장 보험, 개선된 근로 조건을 규정한 노동법령이 공포되어시행에 옮겨졌으며, 주요 산업 국유화령이 공포되어 일본인이나민족 반역자가 소유했던 철도, 은행 및 주요 기간 산업 등 1천34개의 공장 기업소가 국유화되어 노동자의 관리에 맡겨지는 등이른바 민주 개혁이 실시되었습니다.

결국 해방 후 초기의 건국을 위한 노력이 미군정에 의해 무산된 후 인민 위원회에 모였던 힘들은 1946년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결성과 미군정이 강요하는 정치 경제적 반동에 대한 투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투쟁이 부산 철도 노동자의 파업으로 시작된 1946년 10월 인민 항쟁입니다.

이북에서 민주 혁명이 신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지주, 친일파가 무더기로 월남하게 되고 '빨갱이'들에게 조상 대대로 터잡고살던 고향의 토지와 사회적 지위를 빼앗기고 쫓겨내려온 지주, 친일파는 이남의 우익 반동 세력의 전위 세력이 되었으며 그들은 남한의 보수 세력의 또다른 폭력 조직인 대한 민주 청년 동맹, 조선 민족 청년단, 서북 청년단 등의 구성원으로 되어 남한 민중은 그만큼 힘든 사회 혁명의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남한에서의 우익 반동 세력은 단독 정부 수립으로까지 나아갑 니다.

1948년 8월 15일, 우익 반동세력은 미제의 비호와 지원 아래 이남에 친미적 자본가 정권(이승만 정권)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나라가 분단된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혁명적 민중은 불굴의 무장항쟁을 계속 전개하였다(〈인노런〉 강령에서).

미소 공동 위원회가 무산되고 미소 양군의 협력에 의한 통일 정부 수립의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가운데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 처리하게 됩니다. 한편 이승만을 비롯한 우익 세력은 미군정의 정책에 앞서 남조선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단독 정부 수립의 길로 나아갑니다. 물론 이러한 반민족적인 분단의 길에는 광범위한 민중의 저항이 가로놓여 있었으니 '2·7구국투쟁', '남북 연석회의', '4·3 제주 민중 항쟁'이 그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기는 공산 도배들의 폭력 테러와 파괴 난동으로 기억됩니다만 그 사건들의 이면을 들여다볼 때마다 어처구니없 는 허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주도 폭동 사건은 북한 공산당의 사주 아래 제주도에서 공산 무장 폭도가 봉기하여 국정을 위협하고 질서를 무너뜨렸던 남한 교란 작전 중의 하나였다.

공산당들은 도민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한라산을 근거로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등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후 우리나라는 군경의 활약과 주민들의 협조로 평온과 질서를 되찾 았다.

고등학교 1989년 국사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사실을 따져보면 제주도 도민들의 평화적인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발포 탄압으로부터 시작하여 서북 청년단의 테러에 대한 저항을 거쳐 1948년 4월 3일의 남한 단독 선거 저지를 위한 무장 항쟁으로 발전한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은 4·3항쟁의 한 원인을 짐작케 해주는 주민의 증언입니다.

군인도 아니고 사람 피쟁이(백정) 서북 청년단들 다 사람 백정이지……순 엿장수나 하던 무식한 것들이었지……매일 소한 마리 말 한마리 잡으라 하고, 조금만 거슬리면 잡아다가 총대가리로 때리고 죽였지……시계 달라고 해서 안주면 죽여버렸지. 낮에는 일시키고 밤에도 대창 들고 보초 서고……징그럽고 억울하게 그 빌어먹을 놈들의 종노릇하며 생명까지 바치며 산 우리들. 우리들끼리 울며 분노하며 한탄하며 떨며 살았지. 산 목숨으로 산게 아니었지. 지옥살이하듯 죽지 못해 살았지……그래 살기 위해, 싸우기 위해 산으로 갔지.

- 4·3 항쟁의 주장은 무엇이었던가?
- 1. 미군은 즉시 철수하라.
- 2. 남한 단독 선거 절대 반대.
- 3. 투옥 중인 애국자를 무조건 즉각 석방하라.
- 4.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은 즉각 돌아가라.
- 5. 이승만 매국 도당을 타도하자.

- 6. 경찰대와 테러 집단을 즉시 철수시켜라.
- 7. 한국 통일 독립 만세.

"제주도 놈들은 모조리 죽이시오" 했던 이승만의 말처럼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8만6천 명의 살상, 1만5천 호의 방화, 7만8천 두의 소 도살…….

도대체 이렇게 해서 이루는 단독 정부는 무엇이며 이렇게 해야 지켜지는 공산도당으로부터의 자유는 누굴 위한 것입니까? 수만 명의 사망자를 내느니 제주 도민의 자주적 의사에 따랐다면, 차라리 제주도를 빨갱이 나라가 되도록 놔누었다면 제주 도민들은 천배 만배 행복했을 겁니다.

이승만 정부의 단독 정부 수립과 반혁명 정책에 맞선 남한 민중의 투쟁은 더이상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표현을 갖지 못하고 무장 항쟁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하여 빨치산의투쟁이, 4·3항쟁과 여수·순천 반란 사건을 거치면서 호남, 태백산, 지리산 등지에 유격전구가 형성된 것입니다. 또 한편 이 과정에 많은 이들이 월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루어진 분단의 현실을 떠나 당시 한국인들이 보았던 대로 한국을 보면서" 답해야 합니다(브루스 커밍스). 미소 점령군이 진주한 조건에서 해방 후 민족 독립 국가의 수립과 사회경제적 혁명의 과제를 안고 있던 한반도의 38선 이남 이북 지역이 혁명과 반혁명의 길로 갈리어 나간 다음, 북한에서의 소련군 철수 후 남한에서도 미군이 철수하였을 때 이남 내부에서 첨예하게 벌어졌던 계급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을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아직 남한과 북한이 두 사회가 아니었고 단지 두 지역이었을 뿐이었다. 분단은 아직 기정 사실이

아니었다. 분단은 대다수 민중에게는 아직 '현실'이 아니었다" (『정치 위기와 노동 운동』, 거름, 17쪽).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시작되었다고 하나 그 날은 전쟁이 확대된 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남에서 계속되던 양대 세력 간의 투쟁이 전국적 규모의 계급 투쟁으로 확대"(〈인노련〉 강령에서)된 것이란 말입니다. 마치 오랜동안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증상을 동반하면서도 참아낼 수 있을정도로 잠복해 있던 어떤 고질병이 어느날 증병으로 판명되고 몸져 눕게 되는 것처럼.

동족은 적, 일본은 친구? 그 감각은 대단히 불균형한 것 아닙니까?

얼마전 일간 신문마다 좀 희한하게 느껴지는 사진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6·25 40주년을 맞아 당시의 '참전용사'들이 가두행진을 벌이는 장면이었는데, 그 대열에는 군화와 군모까지 고급스럽게 갖춘 군복 차림의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보무도당당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김종필, 유학성, 백선엽, 정일권 같은 유명짜한 사람들이 선두에 서서 말입니다.

그 시위를 기획한 사람들이나 그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 젊은 세대에 대한 반공 의식의 고취 같은 모종의 교훈을 주겠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진을 징역 마루 바닥위에 펼쳐놓고 바라보면서 나는 이 사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 가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시 참호 속에서 M1 소총을 들고 적진을 겨눠보았던 병사들은 인민군을 가늠쇠 위의 움직이는 표적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국군 병사에게 인민군은 오른 손가락에 느껴지는 방아쇠의 서늘함으로, 혹은 자신처럼 상대방을 겨누는 또 다른 총부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총성이 멈춘 지 40년이 가까워가는 시대를 살고 있고, 휴전 상태를 더이상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지배 세력은 참호속에서 인민군을 바라보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60년대에 이미 우리는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양국의 국민들은 서로를 쪽바리, 조센징으로 부릅니다. 그들은 식량 수탈로, 자원 약탈로, 정병 정용으로, 고문 학살로, 정신대로 우리 민족에게 무한한 착취와 억압을 가해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일본을 우리 사회의 지배 세력은 결코 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방이라 부르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족은 적이라 부르면서도 그 이상의 정당하게 증오해야 할 이유를 가진 일본 같은 나라를 친구라고 부르는 사실이. 그 감각은 대단히 불균형한 것 아닙니까?

한국 전쟁에 관한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는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 전쟁의 기원  $II_{
m J}$ 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국 전쟁을 시작했는가? 이러한 물음을 제기해서는 안된다. 특히 한국인들은 이러한 물음을 제기하는 것을 스스로 그만두어야 한다. 대신에 그 질문의 현실적 의미를, 니체가 독일 국민에게 요구했던 협애한 '조국애'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즉 그들은 '남은 북을 사랑하고 북은 남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한 미국인이 생색내어 충고하는 말이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가장 어렵게 이러한 교훈을 배웠을 뿐이었다. 한국인들은 아

직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을 남의 젯상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이야기로 간주해야 할까요? 남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우리 얘기를 하면서 남의 얘기를 인용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가지 평범한 상식을 저는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사사로운 싸움에서도 화해를 하자면 잘잘못을 덮어두는 데서 시작합니다. 화해를 하고 시간이 흐른 다음 서로가 감정이 가라앉고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뒤에야 서로간의 잘잘못을 따지기도 하고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미래와 화목을 위한 것이지 허물을 들추자거나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정자들은 이런 평범한 상식에도 어긋나는 언행들로 시종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시대에 분열을, 화해의 시대에 대립을 조장합니다. 국가 보안법이란 바로 그러한 법입니다. 나아가 진실하지 않은 과거를 빌미로 우리 사회의 진보적 운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 40여 년에 걸쳐 우리 노동자 계급은 새로 태어났습니다

# 재판장님!

저들 지배 세력이 주장해온 진실이란 한 손에는 코란을 또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이슬람교를 전파시켰던 중동의 어느 왕조가 강요했던 신앙에나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백만의 사상자 를 눈앞에서 겪은 민중들은 그 시대 남한 땅에서 그 믿음을 받 아들이지 않고는 죽음의 칼을 면치 못하였으니 말입니다.

나는 본 항소 이유서를 쓰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1950년의 역사 속에 던져져 있다면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면 방법이야 어찌 되었든 친미이승만 정권의 분단화, 반혁명 정책에 저항하는 것이 양심 있는 자의 선택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수히 많은 결함과 오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당시의 사회주의자의 대의가 올바른 것이었다는 결론으로 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 선택 이후에 있을 수도 있을 후회라든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이승만 친미 부르주아 집단에 대해우월한 사회 개혁을 했다고 평가되는 북한 체제가 그 이유만으로 영원히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사회든 정통성은 내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정통성은 허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연 사회주의자가 한국 전쟁의 죄인이냐는 처음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 앞서의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도 답도 가능한 것은 그 시대에 대해 '무책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직접 겪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질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현대 남한 사회는 비로소 형성되었습니다. 이 땅의 노동자 계급은 1960~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출생하였습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그리하여 저들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사고 방식이 건전한 노동자 계급은 저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의 입장에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말했고, 전쟁을 겪은 남북한이 어떠한 관계로 지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와 가정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그 아이의 잘못은 때로 그 부모의 탓으로 돌려지지만 다 자란 성인에 대해서는 본디 자신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가 맡겨집니 다. 그렇듯 출발부터 남한 사회의 지배 세력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에, 태어난 지 40년에 이르는 남한 사회의 주된 문제 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 계급이 이 문제에 주 된 관심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 계급은 전쟁이 끝나고 "정당, 조직, 지도자, 사상을 포함한 계급 투쟁의 모든 무기를 빼앗기고 오직 생존만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 ((인노련) 강령에서)의 현대 남한 사회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라 고 느끼며 이 사회의 근본적 개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 계급에게 첫째 가는 관심은 노동자 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개선될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 들의 투쟁에는 처음부터 북한을 이롭게 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문제 의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런 식으로 뒤바 꾸는 것은 저들 지배 세력의 사고 방식일 뿐입니다. 문제를 현 실에서 발견하고 현실에서 그 답을 찾는 태도, 그것은 이 땅에 서 성실히 살아가는 노동자 계급의 삶의 태도입니다. 저들은 노 동자들로부터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 다. 또한 우리는 통일이 시대적 목표로 되어가는 현실에서 그 담당자가 될 정신적 풍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에게 는 저들 지배 세력의 전통과는 달리 북한을 적으로 바라보는 적 대 의식이 없습니다. 또한 보다 나은 생활의 추구라는 현실의 직접적인 과제와 분리된 채 통일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 점 에서도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만, 저들의 지배를 연 장하기 위해서만 통일에 접근하는 지배 세력과는 다릅니다.

## 사회주의에 대한 비난을 노동자의 눈으로 곱씹어보면……

많은 위대한 역사의 창조가 어쩔 수 없는 절망으로부터 출발 하지만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과 확신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 니다.

오늘 이 땅에 솟아오르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 투쟁, 사회주의 운동 역시 마찬가지의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회주의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동자 계급과 민중이 서 있는 절망과 분노의 대지 위에 새롭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다름아닙니다. 노동자들의 이마 위에 질끈 동여진 '노동 해방'의 절절한 염원에 보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을 채워넣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1천만 노동자를 단결시키는 일입니다.

노동자 계급에게 솟아오르는 희망과 확신은 '사회의 기본 질 서를 위협하는' 반역으로 됩니다. 저들은 당연히 사회주의 운동 에 대한 봉쇄에 전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 의 동구 유럽에서 전개되는 최근의 사태는 우리의 지배 세력으 로 하여금 착취 억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노동자 계급의 꿈과 희망이 부질없는 것임을 증명해 주는 좋은 예로 선전되고 있습니다.

"보라,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동료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나라의 여행을 권하기도 합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여행을 해보면 사회주의 나라들이 별볼일없다는 걸 알게 될 테지'하는 판단을 깔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사회주의 나라를 방문하는 노동자라

면 누구나 "어, 여기도 사람사는 동네로군, 괜찮은데"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추측입니다. 여전히 우리들로부터는 차단된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말입니다. 나는 사회주의자에 대한 온갖 비난들을 우리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한 번 곱씹어 보고 싶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주택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우리보다 심각하답니까? 그들도 우리 노동자들처럼 공단 주변에 닥지닥지 붙은 닭장집에서 번갈아 자고 아침이면 공동 변소에 길게줄을 늘어선답니까? 우리처럼 도시 인구의 60%가 셋방살이하는데도 한편에선 독점 재벌이 땅투기로 수천억, 수조 원씩 벌어들인다던가요? 그들도 임금 인상 교섭 때 주거비용 보조하라고우리처럼 절실하게 싸운답니까? 그들도 우리 국민들처럼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가난이 나에게 물려졌고 기적이 없는 한 자식들에게도 물려질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끝날 조집은 없다.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내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매년 오르는 집세도 충당할 수 없는 비애를 자식들에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서를 남기고 일가족이 집단자살했다는 기사가 끊이지 않고 신문 한 구석을 차지한답니까?

저들은 김만철 씨가 월남했을 때도 한탄했습니다. 의사의 월급이 일반 노동자들 월급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 얘긴 뒤집어노동자의 월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얘기 아니던가요? 그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의사의 월급이 최소한 몇백만 원 되어야하고 노동자들의 월급은 대부분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쳐야 정상이란 말입니까? 그런 이유로 사회주의 사회를 비난한다면,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까? 가진 자의 눈으로 보는 것아닙니까? 반대로 노동자의 눈으로 본다면 사회주의 사회는 다

론 건 차치하고 이 점만으로도 노동자에게는 천국이 아닐까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의 노동자들은 공산당 감시원의 채찍 앞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근래 들어 갑자기 신문과 텔레비전에서는 사회주의 나라의 노동자들은 게을러서 되는 일이 없다고 합니까? 으레저들이 하는 말로는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면서 할 만큼 하고는 그만둔다면서요? 그렇게 노동자들이 여유를 누리는 건 해고당할 위험도 기본 의식주에 쪼들릴 걱정도 있을 수가 없는 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생활하다보니 그런 일이 생겼다지요? 아마 우리 노동자들이 들으면 천국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 번 살아 봤으면 할 겁니다.

물론 이 사회에도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노동자들이 늘상 겪는 문제들, 세계 최장의 노동 시간, 그로 인해 필연적인 '1분 15초 당 1명이 죽거나 다친다'는 노동 조건, 항의 한 번 하면 듣는 열 마디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소리, 정당한 노동 운동에 조여지는 징계 위원회와 해고의 위협에 생명을 걸고 싸워도 결국 생명을 가벼이 여긴다느니, 극단적인 과격 투쟁이니하는 소리로 매도당하는 현실 같은 것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일 겁니다.

우리의 회장님 정주영 씨가 북한에 가서 했다는 말은 또 뭡니까?

상상하던 거하고는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하천이 잘 정리되고 수리 사업이 정리되고 그리고 고향이 과거에 그 흙집, 초가집에 비하여 이번에 가 보니까 문화 주택 거주 지역을 마련하고 살고 있는 우리 동네까지는 달구지도 못 들어가던 길에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처형되시는 분들도 다 74~75세 되시는데, 생존해 있는 걸 보고 아주 그 반가움을 다 말할 수 없고, 이 정부에서 이 나라 의료 사업, 사회 보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원산에서도 여러 가지 구경을 하고 순천에서도 화학 공장을 봤고, 남포에 가서 종합 기계 공장을 봤습니다. 대단위 여러 가지 공장을 견학했는데, 그 빠른 속도로 그렇게 잘되고 있는 것은 모두 국민이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자기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공화국(북한)은 사회 보장이 잘되어 있는 반면, 남쪽은 외국 자본에 의해 경제 개발이 이루어져 종속 경제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상 「정주영의 평양 기자 회견」(『동아일보』 1989년 2월 3일자, 『일요 신문』 1989년 3월 5일자) 중에서]

(『노동자의 사상』, 거름, 255쪽에서 재인용).

이런 얘기들은 손님된 입장에서 한마디 해본 것에 불과한 걸까요?

또한 소련에서 벌어진 탄광 파업에 고르바초프가 끝까지 대화로 임하는 장면과 현대 중공업 파업에 진격해 들어가는 6공화국정부의 경찰 병력을 비교해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아무리 개판이며 말뿐인 사회주의라 해도권력의 직접적인 기반이 노동자 계급에 존재한다는 것, 반면 우리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무슨 말을 어떻게 늘어놓던 그 권력이 노동자가 아니라 독점 자본가 계급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느끼게 되는

#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 지배 세력을 통해 전달되는 사회주의 사회의 모습은 왜 곡되고 과장되기 일쑤입니다. 그들이 장사꾼으로 혹은 관료로 사회주의 사회를 상대하게 될 때는 피할 수 없는 일의 경로상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하지만, 그 사실들을 국내의 국민들에게 전할 때는 벌써 계급적 입장에 따라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동유럽에서 벌어지는 격변들은 사회주의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간주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까지 이르면 강요된다고나 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멀리 떨어진 남의 땅에서 1917년의 러시아 혁명 이 래 최대의 세계적 변혁으로 이야기되는 동유럽의 변화에 대해가타부타 할 만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수도 서울을 비켜선한 교도소에서 부르주아 언론이 넘치도록 쏟아내는 반사회주의선전에 혼자 파묻히는 기분에 간혹 무력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작태라고나 부를 저들의 반사회주의 선전에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1천만 노동자와 함께투쟁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 계급의 대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여전히 결론보다는 토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들의 비방에 맞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 태어난 이래 줄곧 탄압받아온 사회주의 운동

### 재판장님!

노동자들이 자본가들로부터 구박과 설움, 억압과 착취를 당하 듯, 사회주의 운동 역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이래 온갖 탄 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운동의 발전사는 수많은 위기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근로 민중의 이론으로부터 정치 권력을 장악한 현실적 힘이 된 러시아 혁명에서 갓 탄생한노동자 권력은 모든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빵과 평화 그리고 토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시기의 위기는 사회주의자들 내부에서조차 과연 후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으로도 드러난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는 제국주의 침략과 1차 세계 대전으로까지 인류에게 고통을 강요하던 제국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인류는새로운 사회 체제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누구도 증명할수 없던 문제에 러시아의 노동자 계급이 성공적으로 답한 시기였습니다.

1917년이란 해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양자 택일이 우리 시대의 주요 과제이며, 20세기에 있어서 보다 고도의 사회 조직 형태인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고는 결코 전진할 수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10월 혁명과 페레스트로이카』에서).

그 후 러시아의 사회주의 노동자 계급은 제국주의 파시즘 세력의 분쇄에 맞서 노동자 계급의 지혜와 헌신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파시즘의 침략에 맞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선발 자본주의의 사회주의 세력은 반파시즘 투쟁에 나서야 했던 근로 민중의 선두에서 인간의 존엄과 평화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성스런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에 맞선 식민지 종속국에서도 사회주의 정치 세력은 식민지 민중의 선봉에서 민족 해방 운동과 사회 혁명

의 주도 세력으로서 역할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도정이 사회주의자들의 민중에 대한 헌신, 현실에 대한 창조적 대응에 대한 시험이자 엄청난 시련과 위기의시대였으나, 사회주의자들은 민중들의 선두에 섬으로써 모든 난관을 제치고 이 시대의 진보적 조류에 굳건히 터잡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파시즘과 2차 세계 대전이라는 자본주의 체제가 초래한 인류적 재앙에 맞서 소비에트 러시아와 서구 노동자 계급은 반파시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라를 지켜냈으며, 식민지 종속국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이 새로운 발전 단계로 돌입하였고, 그 사이 다수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이 형성되어 반제국주의 국가들이 하나의 세계 체제로 성립하였습니다.

2차대전이 끝난 후 각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변화된 정세 속에서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해, 새로운 단계의 민족 해방운동을 통해, 새로운 군국주의의 냉전과 군비 확장에 대한 저항을 통해 이 시대의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세계사의 장구한 시간에 비추어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급속히 성장해온 사회주의 운동은 제국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대안으로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된 근로 민중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한 과정이기도 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주의는 당시의 경제적 및 사회적 수준으로 보아 선진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사회경제적 제도 및 역사적 전통으로 보아 아주 차이나는 국가들에서 건설되었습니다." 적과의 전투에서 당해야 했던 처절한 죽음이 있고, 기존의 이해 관계를 고수하려는 자들과

벌여야만 했던 냉혹한 계급 투쟁, 그 위에 사적인 원한과 횡포까지 수반되는 대중들의 통제할 수 없는 행위들, 새로운 사회의담당자들로서는 부족했던 대중들의 역량, 인간의 숱한 약점들, 그리고 쉽게 개선되지 않는 생활 수준, 새롭게 닥치는 상황에대한 이론적·실천적 무능력, 제국주의의 부단한 군사·경제·정치적 및 심리적 압력과 국방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 노동자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로막는 숱한 관료주의의 발호, 그를 조장하는 교조주의와 출세주의, 사회주의라는 명분과 그초기의 정당성으로 모든 사회 현상을 합리화하려는 행위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개발 도상국에서는 사회주의를 도용한 독재 체제의 구호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에도 전진과 후퇴, 정체와 비약, 혼란과 동요 그리고 희망과 확신의 계기들이 포함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출발점에는 자본주의의 낡은 잔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자본주의 국가의 물적 기술적 수준, 노동자 계급의 낮은 기술적 문화적 수준, 주변 제국주의 국가의 도전들과 같은 악조건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창조에 수반되는 오류와 시행 착오도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날 사회주의 진영의 동유럽에서는 수십 년간의 사회주의 역사에서 빚어진 오류와 시행착오를 시정하기 위한 급격한 개혁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한 흐름은 이렇게 과거를 평가합니다.

사회주의를 국가 소유의 독점 체제에 입각한 사회로 규정한 잘 못된 사회주의관과 당과 국가기구원들의 지도붕당이 프롤레타리 아트의 이름으로 행한 독재는 전횡과 무법, 소유권과 권력으로부 터의 인간의 소외를 가져왔다. 자연 환경은 극도로 파괴되고 교조 주의는 점점 강성해져 정치적 이견자들에 대한 불관용의 원천이 되었다. 모든 민족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와 지적 자산에 대한 무 시풍조가 만연하고 세계는 사회 체제 간의 비타협적인 대결의 무 대로 간주되었다.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으로부터의 일탈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능성을 제약해 왔다. 하지만 과학 기술 혁명 및 산업 사회의 마지막 단계로의 돌파와 관련해 전 인류의 생활 과정의 근본적 변동으로 특징지어지는 20세기 후반에 우리나라를 문명적 진보의 도정으로 이끌 수 없는 권위적 관료 체제의 무능력은 노골화되었다 (28차 당대회 제출, 「소련 공산당 강령 선언 초안」에서).

이러한 평가는 현실의 급격한 개혁을 실천적 귀결로 합니다. 그 흐름에는 스탈린주의적 노선으로부터 노골적인 자본주의 찬양 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향들 내부에는 제국주의 시대에 계급 없는 사회를 실현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계급 투쟁의 치열한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류적인 흐름을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 사회주의 운동의 몰락인가 후퇴인가

사회주의의 몰락은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독일에서는 40여 년 전의 혁명이 그 나라 내부의 완전한 자력에 의해서보다는 자본주의 지배 세력의 공백, 소련군의 분할 점령이라는 조건에서 진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동독이 그 동안의 문제들을 한

민족간의 통일의 문제로, 자본주의 부국 서독과의 통일을 통한 해결로 바라보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른바 '사회주의 동독의 침 몰'입니다.

또 최근 혁명 성공 후 10년 동안 집권해왔던 니카라과의 산디 니스타 정권은 자신의 안뜰을 친미 정권으로 유지하고자, 미제 국주의자가 지원하는 반(反)산디니스타 게릴라와 막대한 달러로 인해 선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자본주의 세력 에 맞선 사회주의 세력의 패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회주의 진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것을 사회주의의 몰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 듯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에도 전진과 후퇴, 정체와 비약, 혼란과 동요 그리고 희망과 확신의 계기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음을 알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강력한 사회주의 운동의 잠 재력을 봅니다. 후퇴 속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의 토대는 의연 존 재합니다.

앞서와 같은 반성적 평가 위에서 소련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련 공산당은 다음과 같이 확신한다. 위기의 깊은 뿌리는 사회주의 이념의 견인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이념이 초창기에 경험한 외곡에 있다.……소련 공산당은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창조적 접근을 옹호하고, 20세기의 역사적 경험과 교조적 해석으로부터 해방된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유산에 대한 건설적 평가에 입각해 사회주의 이론과 실천을 발전시킬 것을 옹호한다(28차 당대회 제출, 「소련 공산당 강령 선언 초안」에서).

아마도 동독 같은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라는 말이 지닌 매력이 당분간 자취를 감출지도 모르지만, 홍분의 도취가 지나가고 현실과 냉정함이 다시 일상사에 자리잡게 되면 사회주의는 여전히 정치와 생활의 주요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회주의'라는 네 글자가 갖는 좋고 싫음을 떠나 노동하는 인간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불가피한 현실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니카라파의 혁명 운동 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본주의란 10여 년 전, 혁명이전의 미국에 예속된 독재 체제를 의미할 텐데 그들이 혁명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겠습니까? 한 번의 선거에서 미국의달러로 승리한 정권이 산디니스타 혁명 세력의 사회적 뿌리를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들 혁명 세력은 저들 친미 부르주아 정권의 온갖 부정을 목격하고도 정권을 이양하였습니다. 그것은아마도 그들 혁명 세력이 모든 부정을 압도하고도 남을 정도의대충적 역량이 있어야만 혁명이 진행될 수 있을 터이나, 적의모략이든 무엇이든 당시의 혁명 역량이 압도적 다수의 대중을결집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사회주의 민족 해방 운동 세력은 다시 권력 장악 이전의 상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현실주의적 판단의 토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어쨌거나 이것을 운동의 후퇴라고 할지언정 운동의 몰락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제국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사회주의 운동이 진행되어온 모든 나라에서, 그것이 선진 자본주의건, 남미 아프리카의 제3세계 국가이건 동구 개혁으로 인해 사회주의 운동의 대의, 반제국주의 민족 해방 운동의 대의를 포기한 나라가 어디에

# 있단 말입니까?

나는 사회주의가 그 이상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자본주의 체제의 우위를 주장하는 데도 반대합니다. 중세 봉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이해하는 데는 수세기 동안의 위기와 이행기를 거쳤으며 그 동안 중세 봉건 사회가 절대 왕정 시대를 비롯한 여러 강화 재편의 시기를 거쳤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행 했음을 아는 우리가 어찌 해서 자본주의의 새로운 사회 체제로 의 이행이라는 세계사적 전환이 70여 년이란 짧은 시간에 이루 어지지 않았다고, 한 가지 방식의 실험으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세계사의 변화 추세를 부인해야 한단 말입니까? 자본주의 는 최근에까지 계속되는 과학 기술 혁명과 경제 구조의 개선으 로 계속되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역사 는 끊임없이 축소되면서도 강화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체제의 이행기에 돌입한 자본주의조차 이처럼 체제 변화를 거듭하는데, 사회주의가 하나의 체제로 등장한 지 40여 년 동안 하나의 발전 모델을 추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몰락이라는 사고 방식은 비웃음을 사 마땅한 일입니다.

자본주의가 수억 민중을 제국주의 침략 아래 고통받도록 만들고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양차 세계 대전에서 수천만 명의 인명을 희생물로 삼아왔다는 사실, 수억의 근로 민중에게 일하는 자로서의 자긍심보다는 피착취자로서의 고통을 강요했으며 한편에 재부를 쌓아 놓고도 노동자 계급에게 빈곤을 강요했다는 사실, 자본의 이윤욕 아래 인류의 터전을 오염시키고 핵전쟁의 위험 아래 인류를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 전부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저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온갖 비방은 자신들의 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한 술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 사회주의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대안 속에 발전

사회주의 운동은 누구의 운동입니까? 그것은 일하는 노동자 계급의 운동입니다. 그 운동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모든 나라에, 노동자 계급의 삶과 투쟁이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사회주 의의 이념이 추구하는 이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존엄 과 자유와 평등의 추구에 있습니다. 그 이상이 부르주아들의 수 사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추상적 인간이 현실에서는 계급으로 나뉘어 존재함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현실의 계급 적 이해가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에게 서로 다르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모든 문제에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 서 접근하며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수호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운동을 전개합니다. 계급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종국적인 지향점입니다. 사회주의자는 기계의 발전이 인류 문명 발전의 풍부한 토대가 될 것으로 반가워 하지만 계급 사회에서 그것이 자본가 계급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의 강화로 연결되는 수 단이 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자가 말 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말도,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옹 호하고 노동자 계급에게는 고통을 강요하는 부르주아지의 말들 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논리에서도 노동자들 가슴에 쌓이는 한과 노동의 고통 속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꿈과 같은 존재로부터 자라나 오 늘에 이른 사회주의 운동은 노동자 계급이 존재하는 한 그 생명 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와 실천적으로 그것에 의해 확실히 입증

된 탐구와 경험은 전인류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체제는 인류 존재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으며, 노동하는 인간에 중점을 둔 그 인도적이며 집단주의적인 가치를 승인했습니다. 사회주의 제도는 노동하는 인간에게 존엄과 국가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심어 주었고 사회적 보호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부여했습니다"(『10월 혁명과 페레스트로이카』에서). 이러한 자부는 여전히 충분한 이유를 갖습니다.

사회주의 개혁이 전개되는 모든 나라에서 사회주의 이론은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원칙과 방법이 변화되고 또 자본주의적 원칙들이 주장되기도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 이념의정당성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짜르 러시아에서는 전쟁과평화의 문제에 맞선 투쟁을 통해 사회주의자가 민중으로부터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도록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항일 투쟁과 봉건 세력에 맞선 토지 혁명을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에 이르렀습니다. 등소평은 "10억 인민이먹고 살자면 사회주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지요. 이처럼 사회주의자는 전 민중적 열망에 대한 헌신적이고 정확한 대안을 통해 민중의 가슴을 휘어잡은 것이고, 어느 나라나 혁명의 출발에는 현실적이고 절실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나는 레닌이 한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마르크스의 이론을 영원하고 변화 불가능한 어떤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 이론이 단지, 사회주의자들이 삶에 뒤지지 않고 따라가려면 반드시 그것을 모든 방향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과학의 초석을 놓았을 뿐이라고 확신

하고 있다(「우리의 강령」, 『레닌 저작선』, 거름).

모든 나라의 사회주의 운동은 현실에 대한 창조적 대응을 통해 삶에 뒤지지 않고 민중의 후위로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념에 불과하지만 백수십 년의 노동자 계급의 운동사에 근거한 신념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 운동은 그 폭이 넓은 만큼 차이도 큰 것이며 어느 한 나라의 움직임을 다른 나라가 좇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 노동자 계급 운동은 처음 마르크스가 제1 인터내셔널의 정력적인 운동가로 활약하던 시기 이래 그 사회주의적 이상을 공유하면서도 그 발전한 정도에 따라 나라마다 다양한 존재 양 식을 취해 왔습니다. 그 발전에는 분열의 경향과 함께 통일의 경향이, 수정주의와 함께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려는 흐름이 합 류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주의 세계는 우리 앞에 민족적, 사회적 다양성의 모든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훌륭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성이란 전혀 동일성이나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에는 만인이 따르지 않으면 안될 모델은 없으며 있을 수 없습니다(『10월 혁명과 페레스트로이카』에서).

# 동구와 우리는 '전혀' 다른 사회이다

동유럽에서 진행되는 변혁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운동

에도 일정한 주춤거림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주의가 가지는 호소력이 줄어들었기 때문도 아니며 동유럽과 같은 이유 에서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배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1987년도를 기점으로 급속히 성장해 오던 노동 운동에 대한 현 지배 세력의 광폭하면서도 조직적인 탄압 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1987년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투 쟁을 거치면서 퇴각한 저들의 빈 공간을 신속히 채우면서 대중 들의 자생적 투쟁력에 힘입어 순조롭게 성장해 오던 노동 운동 이 1989년을 고비로 다시 전열을 정비한 저들 지배 세력에 의해 밀리면서 대중 투쟁의 상승 기조는 사라졌습니다. 투쟁은 전반 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고 그간 성취한 것을 잃지 않으려는 대중 들의 욕구와 그간 성장한 선진적인 노동자층의 전투적 투쟁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회주의 운동은 각성 해 가는 노동자 계급의 대중 투쟁에 기반하여 활성화되는 것인 만큼 낮아진 대중 투쟁의 파고가 사회주의 운동의 전체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파업을 거 치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노동자들의 학습 서클들, 노동 조 합에 만족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여기저기의 노동자 학교에 기 웃거리는 일이 그런다고 없어지겠습니까?

또 다른 면을 지적한다면 혁명적 노동 운동 세력이 여전히 '사회주의적 실천'에 익숙치 못하며, 우리들 스스로가 간혹 원칙 으로부터의 일탈을 겪는 경우들 때문인 것입니다.

노동자 대중을 계급 의식으로 무장시킨다는 것, 사회주의적 실천을 강화한다는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옹호를 '외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옹호해야 할 사회주의의 대 의란 근로 대중의 피와 땀이 배어든 그러한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가 그들 속에서 살아 풍부해질 때 진정한 옹호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간단하지만 지금은 불확실해진 명제를 전해주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한편으로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저들의 주된 반공 캠페인이 그간 저질적이고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일관된 19세기, 20세기 초의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새롭게 쏟아지는 반(反)사회주의 선전은 주로 사실에 대한 부르주아적 해석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에 맞선 우리들의 투쟁 역시 19세기, 20세 초 마르크스주의의 옹호가 아니라 20세기 말의 현대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옹호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투쟁을 통해이제 갓 자라나기 시작한 사회주의 운동은 더욱 현실적이며 창조적인 이론을 갖추게 되며 비약적 발전의 계기로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동구 개혁 사회주의 논리를 우리 현실에 직결시키는 것 또한 올바른 실천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의 노동 운동을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혁 사회주의자들의 논 리가 우리 노동자 계급의 해방 투쟁에 발목을 잡고 있는 측면 또한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실천과 이론을 명백 히 거부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상품-화폐 관계의 재평가와 시장 경제의 도입이 우리에게도 당면한 문제입니까? 우리는 시장의 과잉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입니다. 독점 재벌과 주요 기간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리를 통해 노동자 계급의 이해가 관철되기를 요구받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적 자본주의 기업의 도입이 그들 사회에선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이상 도입할 여지가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모순의 변화와 계급적 모순의 희석화, 그로부터 오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의 중립적 역할,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의 성과를 이유로 전망 없는 개량을 주장하는 견해에 반대 합니다. 그것은 우리 노동자 계급의 일상적 경험과 정면으로 배 치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사소한 억압에도 생명을 내던져야 하는 처지입니다.

또한 노동자 계급의 구성이 변화했다는 이유로 노동 운동의 중심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사명이 란 대다수 노동자 대중에게 동떨어진 운동 목표라는 주장에도 반대합니다.

또한 소련의 개혁 정책이 계급적 가치로부터 전인류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논지를 대외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보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반제국주의적 외침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소련에서는 그레나다처럼 침공한다든가 니카라과에서처럼 우익을 지원하여 정권의 전복을 꾀하기힘들 테지만,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상당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임이 분명하기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제국주의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에 존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우리 세계는 반제국주의의 슬로건의 도움에 의해 경력을 쌓아가고 그에 의해 매우 편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다"(『혁명은 계속되고 있다』에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와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회주의 사회가 변한다고 〈인노련〉의 강령이 변하진 않습니다

우리 (인노런)은 부르주아 정치와 선거판에도 그에 참여할 기본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그에 참여하여 민중적 대의를 실천하는 데 주저하지 않지만, 그 활동들을 개량이라는 좁은 틀 속에 결코 한정하지 않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어 기존 선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정 필요하면 구미에 맞게 뜯어고치기도 하며현 지배 구조에서의 출세를 통해서만 대중에게 알려지고 대중을 구경꾼으로 소외시키기 마련인 그 부르주아 정치는, 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참여시키고 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는 과정이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노련〉의 강령 22개 항목 하나하나는 남의 나라 운동사나 강령을 베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회주의 사회가 변한 다고 해서 따라서 변하는 강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의 변화에 눈돌리는 교조주의에 반대해 왔지만 러시아의 선배 노동운동가가 했던 다음과 같은 말을 여전히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행동을 다시 결정하는 것, 일상적인 사건들에 순응하는 것, 사소한 정치적 사건의 급격한 전환에 순응하는 것, 프롤레타리아트의 근본 이익과 자본주의 질서 전체의 기본 특징을 망각하고…… 그것이 실제이든 아니면 가상적이든 일상적인 이익을 위해 근본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것이 바로 수정주의 정책이다."

〈인노련〉이 실천해온 사회주의 운동은 모든 나라의 운동과 마

찬가지로 자주적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운동은 우리 노동자 계급의 피와 땀, 그들의 눈물과 한숨, 꿈과 희망, 서러움과 분노 위에 뿌려진 것입니다.

잘 못먹고 잘 못입어도 인간다운 삶의 맛이 나는 세상이 그립습니다. 잘살고 못살고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더군요.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 같이 어우러져 사는 세상,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 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주식회사 통일노조 대의원 이영현 동지가 죽음을 향하면서 남긴 유서입니다. 순박한 얼굴의 노동자 이영현 씨가 죽어가면서그린 세상은 어떤 걸까요? 노동 해방의 세상,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우리의 사회주의 운동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노동자의간절한 염원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저들 지배 세력은 절망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저들은 죽음을 강요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주고자 합니다. 저들은 사회주의 운동의발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노동자 계급의 해방 투쟁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 말 잘하는 지배 세력의 대변자들은 노동자 계급이 자본 주의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는 신념을 비웃으며 사회주의의 이상은 실현될 수 없는 착각이 라고 비난합니다.

저들은 때로 '착각'이 위대한 역사적 창조의 출발점이 되기도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젊고 모험심 강했던 콜럼버스는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 마르

코 폴로가 갔던 동방을 탐험하겠노라고 결심했는데, 그것은 지 구가 둥근 것이라는 전제 위에 대서양의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 하다 보면 둥근 지구 표면을 돌아 동방에 이를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 바다에는 낭떠러지가 있다는 속설, 돛으 로 가는 범선 정도의 항해 장비, 식량을 장기간 보관할 수 없음 으로 해서 불가피한 질병 등의 난관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만, 콜럼버스는 신대륙 발견의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지구의 둘레를 거의 정확하게 계산했던 에라스토네스의 계산이 틀렸다고 생각하여 에라스토네스의 측정값보다 4분의 1에서 6분 의 1 정도로 작게 지구 둘레를 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콜럼버 스의 계산에 의하면 한 달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동방 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니, 콜럼버스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의 착각은 거 기에 머물지 않고 1492년의 항해에서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의 어느 곳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아마도 콜럼버스에게 착각이 없었더라면 그의 모험도 없을 것이고 그가 신대륙 발견자로, 마젤란의 선구자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 다.

우리 노동자 계급이 사회주의 운동에 거는 희망이 착각이라면 그것은 콜럼버스의 착각에나 비견되는 의미있는 착각일 것입니다. 사회주의 노동자 계급 해방 투쟁의 역사가 무수한 난관과이론적 혼란들로 겹겹이 싸여 있으며 그것들을 해쳐나가는 데에는 무한한 헌신적 열정과 창조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미처짐작하지 못하였다고 노동자 계급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역사의 진보는 현실의 절망을 딛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실천가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노동자 계급의 착각은 착각

이 아니라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념일 뿐입니다.

#### 노동자 계급의 전위를, 그러면 저들 지배 세력이 키우겠답니까?

#### 재판장님!

본 사건의 검사는 자신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를 통해 그간 인 노련이 정력적으로 추진해온 실천 내용을 조목조목 비방하고 있 습니다. 저는 비단 본 사건의 검사만이 아니라 저들 지배 세력 에 의해 왜곡되어온 사회주의자 노동 운동가들의 자랑스런 모습 을 옹호하고자 합니다.

'선진 노동 혁명가 육성'. 이 말은 〈인노련〉에 대한 비방 책자에도 있고 검사의 항소 이유서에서 〈인노련〉을 집중적으로 비방하는 출발점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저들 지배 세력들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일본 육사에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선 만주의 독립군에 충부리를 들이댄 박정희처럼 말입니까? 아니면 유신 시대, 전두환 시대를 이어 6공화국을 이끌어가는 TK 출신의 파벌 엘리트처럼 '육성'돼야 한단 말입니까? 육사에서 반공과지배의 논리, 인간은 적군 아니면 아군이라는 식의 사고를 배운자들, 정 안되면 수만 명의 국민들도 죽여 버릴 수 있다고 호언하는 자들처럼? 그리고 그들과 도타운 우정을 일찍부터 관리해오며, 잘난 놈이 다스리게 되어 있다는 사고 방식 속에서 일신의 출세만을 꿈꾸는 서울대 고시 출신처럼 말입니까? 아니면 돈이 최고라며 착취의 역사를 '산업보국'이라는 말로 뒤집어 버리는 자들처럼 육성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하여 결국 앞으로

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군화발 독재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가 설치고, 언제는 세상고른 적 있었느냐, 돈 없고 능력 없는 놈이 죽어 지내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는 소리가 떳떳해야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일하는 자가 주인 되는 세상으로 가야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 일하는 자들이 독점재벌과 출세주의자들의 사적 이해를 사회 대다수 구성원 전체의이익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러한 요구를 실현할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저들 지배 세력이 그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들 속에서는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저들 지배 세력이 으레 생각하는, 나라를 다스릴수 있는 자라는 사고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당신들이 부르는 이름하여 '선진 노동 혁명가'요, 우리는 그들을 '노동자 계급의 전위'라고 부릅니다.

노동자 계급의 전위, 선진 노동 혁명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별볼일없이 태어나 별볼일없이 살아 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노 동자 계급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 항상 앞장 서 노동자를 대변하고 잔대가리 돌리는 자본가에 분노하여 싸우며 경사 때는 몰라도 애사 때는 잔업이 끝나도 꼭 찾아와 철야해 주고 가는 회식 때는 쇳가루로 탁해진 가는 귀먹어 커다래진 목청으로 목포의 눈물을 한가닥쯤 해대는

술기운이 목구멍에까지 올라오면
"집에 토끼 같은 새끼 여우 같은 마누라 두고
야 나는 못가, 아니 시낸 안 간다
같이 일어서자구"하며 돌아가는
그가
"남이 뭐래도 당해 본 놈이, 노동자가 그렇다면 그런거야"
하고 관리자와 눈알 부라리며 싸울 줄 아는
그가 우리의 대표이다
재검 통지서 받고 사십의 어깨를 늘어뜨리고 퇴근하시는
서씨 아저씨 뒤따라가 술받아 주고
밤새도록 울어주기도 하는 사내
단지 우리를 위해 앞장서 일했다고 해고된 동지
그 가슴속 약 한첩 못 쓰고 누우신 노모를
'어머니' 하며 찾아가 보는

그는 노동자를 팔아 먹지 않는다
그 대가로 노동귀족이 되어 노동자를 짓밟지 않는다
절대로 폭력테러 일삼는 자본가의 개가 되지 않는다
바로 우리처럼 노동하고
노동으로 인간답게 살고 싶은
우리다
지금도 해고와 감방을 두려워 하지 않고
밤잠도 거르면서 앞장 서는
좌경이니 폭력이니 누가 뭐래도 오로지
"노동자가 그렇다면 그런거야!"
"노동자보다 깨끗한 놈 있으며 나와 봐"소리치는
노동이 즐거움이 되어야 할

노동뿐이 가진 것 없는

이 세계의 주인

ユ

그가 진짜 이 땅의 대표다 쩌렁쩌렁한 쇠붙이 같은 목소리 우리의 희망이다

(민중 해방 문학 창작단,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에서)

지금도 저들은 노동 해방의 싹, 노동자 계급 전위의 싹을 뿌리 뽑기 위하여 해고와 구속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노동자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장에서 뿌리뽑히면서 좌절 속에서도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한 개인이 영원히 현장 속에서만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성실한 노조 활동가만으로도 노동자 계급의 전위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노동자 계급의 진정한 희망이란 뛰어난 한 개인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뿌리뽑힐 수 없는 노동자의 정치 조직, 노동자 정당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탄압과 고통'을 극복하고 신념과 희망의 노동자 계급의 전위로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는 새롭게 변화한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노동자 계급의 전위요 선진 노동 혁명가 없이 새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 그 운동이 추진될 수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 노동자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배워야 하겠습니까?

'조직원 및 포섭 대상자에 대한 마르크스 레닌 원전 등을 교 재로 한 사상학습'. 이것 역시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 쓰인 말입 니다.

저들의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고 현 사회 질서에 대한 의문을 잠재우자는 것 이외에 마르크스 레닌 원전 등을 교재로 한 사상학습을 탄압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노동자 계급이현 사회 질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언제 한번 준 적이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받아먹는 식의 당신들의 가르침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같은 책만을 보라는 강요를 거부합니다.

우리 노동자 계급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해방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료 형제들보다 한 발 앞선 '선진 노동 혁명가', 노동자 계급의 성스런 전위, 사회주의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워야 한단말입니까? 노동자 계급 해방 투쟁의 위대한 선배, 스승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마르크스 레닌은 그 선배 스승 중의 하나입니다. 노동자는 도움이 되는 그 누구로부터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인노련〉은 노동자 형제들의 이러한 바람과 함께 해온 것뿐입니다.

저들은 모를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자들이 이러한 학습을 얼마나 갈구하는지 말입니다. 매일의 고단한 노동을 마치고 밤을

새우며 마르크스 레닌의 '좌경 서적'들을 읽습니다. 낯선 개념들에 쩔쩔매면서 짧은 가방끈을 탓합니다. 스승 없는 배움을 거듭되는 독서로 대신하면서 다음날의 '사상학습'모임을 준비합니다. 그 속에서 열리는 사회주의적 전망에 짜릿한 기쁨을 느낍니다. 이런 거구나, 이렇게 싸웠구나, 우리의 투쟁이 거기로 가야하는구나. 기중 똑똑하다고 해야 출세욕에 불타는 고시 공부밖에 해 본 적이 없는 저들이 '마르크스 레닌 원전 등을 교재로한 사상학습'에서 노동자들의 가슴에 얼마나 숭고한 노동 해방의 인간적 정열이 불타오르는지 집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노련〉은 노동자 계급이 전 민중을 지도할 수 있는 독 자적인 전망, 사상적 토대를 갖춰야 한다고 보고 노동자들의 노 동 해방의 열망에 적극 결합하여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 을 실천해 온 것입니다.

#### 공장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노동자를 만나야 합니까?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조직 사업을 통한 전국적인 조직의 확장을 기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연맹〉이 전개하고 있는 주요한 실천 활동 내용입니다. 그리고대규모 사업장만이 아니라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인노련〉은 활동합니다. 거기에 노동자 대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노련〉의 조직원만이 아니라 노동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하고 있는 실천입니다.

공장이 아니라면 우리가 노동자 계급의 전위가 될 수 있는 노 동자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육사 동창회입니까? 아니면 대학교마다 있는 최고 경영자 과정에 나가야 한단 말입 니까? TK 사단들의 모임에서 폭탄주라도 같이 마셔야 한단 말입니까? 그도 아니면 전경련 사장단 회의에서 찾아보아야 하겠습니까?

저들은 공장을 돈버는 곳으로, 얼마 투자하여 얼마가 남는 곳으로 장부를 통하여 느끼거나, 파업장에 백골단을 투입하기 위해 살펴지는 작전 현장으로 여길 뿐입니다. 그리고 대중을 생각할 때는 지배를 생각하여 경찰 관료 행정 조직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공장은 노동의 터전이요, 파업을 통해 계급 의식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노동을 통해 배운 규율이 투쟁의 규율로 마련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폭력적 국가 기구, 경찰과 군대에 맞서 노동 해방을 위해 민중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조직된 투쟁 부대입니다. 그리고 직접 토론하고실천하고 대표를 뽑고 해임시키고 하는 과정을 통해 노동자의민주주의를 배우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입니다. 전국의 모든 공장들이 노동 해방의 전투 부대가 될 때, 그 공장들마다 우리 노동자 계급의 전위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민족 해방과 민중 민주주의의 실현, 노동 해방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배자들이 지배를 위해 만든 사회질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장으로부터 우리의 의지와 요구가 전달되고 확인되는 전혀 새로운 사회 운영의 질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공장은 해방터가 될 것입니다.

#### '지하'라는 말에서 우리는 움터오는 희망을 봅니다

저들은 또 〈인노련〉이 '「정세와 실천」, 「노동자의 길」 등 기관 지의 발간 및 배포',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지하당 결성을 획책' 해 왔다고 비방합니다. 우리는 「정세와 실천」, 「노동자의 길」만이 아니라, 자매지라고나 부를 「사회주의자」도 발간하여 왔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동시에 다가가는 텔레비전 방송망이 소위 국영 방송이란 명목으로 국민 의식 조작의 수단이 되어 왔음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자본가의 손에 장악되어 입만 열면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신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저들은 자신들의 언론으로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장악하면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언론을 가지는 것을 반대한단 말입니까?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하여 노동자들의 관점을 제시하고 노동자들의 투쟁 하나하나를 공동의 투쟁대오 속에 정돈시켜주며, 자본가들의 거짓에 맞서 노동자들의 진실을 알리고, 공동의 방침으로 통일된 대열을 만들어주는 노동자의 언론,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작업복 뒷주머니에 넣어지고 그들의 기름때문은 손으로 배포되며 그들의 술자리에서, 노조사무실에서, 학습모임에서 토론되는 신문, 그런 노동자 언론 없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조직되며 계급의식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 금기 없이 노동자의 대의를 수호하고 진실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구속당하고 수배당하면서 노동자와 운동가들의 도움으로다시 '지하'에 인쇄소를 차리고 기금을 모아 발간되는 노동자 언론, 이것이 점점 발전하여 저들의 탄압에도 더욱 더 빈번하게, 더욱 더 풍부하게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의 손에 안전하게 배포되지 않고 어떻게 탄압에 버텨 나갈 수 있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대오가 정비될 수 있겠습니까?

1천만 노동자에게는 승리하기 위해 참모부가 필요합니다. 민 중의 지혜를 하나로 모을 지혜, 풍부한 경험의 결집체가 필요합 니다. 군대와 경찰을 장악하고 막대한 돈과 장비, 인력을 투입하여 노동자 계급의 단결, 연결을 파괴하고자 하는 치안본부, 안기부의 비밀 공작에 맞서 전국에 고립된 개개의 노동자 대오를 연결시키고 공동의 투쟁 대오를 만들어내는, 개개인의 지혜들을 모아 노동자 계급의 공동의 지혜로 모아내는 신경조직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능히 저들과 맞설 수 있도록 단련되고 철의 규율을 갖춘 투사들의 결집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노련〉은 노동자 언론의 창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이와 같은 요구들에 다소나마 부응한다는 이유에서 정열적으로 실천해 왔을 뿐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자세를 요구합니다. 하물며 높은 보수에만 만족할 수 있는 저들 지배 세력의 고용인들과는 비교할 수없는 새로운 인간을 요구합니다. 검거의 위험 아래 자기의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조직 전체의 대오의 형성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으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수 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노동자 계급과 민중의 대의에 헌신적인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는 실천 활동을 통해 그렇게 되어 나갑니다.

'지하당'은 또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공개적으로 활동하면 저들이 우리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노동자 계급과 함께 하는 실천 활동을 포기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스운 일입니다. 정치적 반대파를 그당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두고 비난한다는 것은.

저들은 '지하'라는 말에 떳떳지 못하고 음험한 그 무엇인가를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하'라는 말에서 진보적 운동 에 대한 야만적 탄압에 쫓기면서도 그에 굴하지 않고 노동자 해 방 투쟁의 조직 대오를 유지 발전시켜가는 이 시대 노동 해방의 전사를 떠올립니다. 그 피곤하고 긴장된 생활에도 불구하고 넘 치는 그의 신념, 그의 뜨거울 수밖에 없는 민중에 대한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 대열을 에워싸는 노동자들의 울타리를 보는 듯 합니다.

탐스런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나무는 한 그루 묘목에서 자라나며 그 묘목은 땅밑, 그 '지하'에 덮인 씨앗으로부터 생명을 시작합니다. 그 지하는 성숙한 나무가 갖게 될 모든 특성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우리 노동자 계급의 해방 투쟁이 저들의 추적과 탄압을 피해 움직이는 그곳, '지하'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향한 희망이 끝없이 움터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노동 해방의 '적'뿐일 것입니다.

〈인노련〉사건 당시 치안본부가 신문 지상을 통해 '〈인노련〉 이 그 배후에 있는 사업장'으로 발표한 부천의 연경전자 노동조 합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노조 속보를 냈습니다.

〈인노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정치 조직입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이익을 정치적으로 반영시키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활동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노동자들도 정치 세력화하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힘을 가진 진짜 노동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정치의식화시키고 조직화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정치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노련〉은 우리 노동자에게는 꼭필요한 조직이며, 노태우 정권, 가진 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목을 죄는, 그래서 대량 구속시킬 수밖에 없는 불법 단체일지 모르지만,

우리 노동자에게는 더욱 보호되고 커나가야 할 조직입니다.

(인노련)은 이러한 조직입니다.

#### 이제 우리의 동지들은 실천으로 이를 설명할 것입니다

#### 재판장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과 인노련이 실천해온 내용들을 설명하기에는 태부족입니다. 그러나 조급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 우리 동지들은 노동자 계급과함께 하는 투쟁 대오 속에서 실천으로 말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항소 이유서」에서 우리 현실의 문제,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의 문제, 〈인노련〉의 진실들에 대해 올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사회주의와 노동 해방 투쟁에 대한 온갖 편견을 내던질 때이며 그럴 때에만 이 시대의 근본 문제에 진지하게 대결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노련과 같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조직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가를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항소 이유서」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던지는 의미를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5공 시절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죽음의 저항은 저들 지배 세력의 장벽을 향해 밀려가는 민주주의의 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들은 앞을 가로막던 파쇼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1987년 6월 항

쟁으로 나아가 6·29선언을 강요했습니다.

오늘 그 강물에는 노동 해방이란 대의를 가슴에 품은 노동자들의 죽음의 저항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저와 〈인노련〉은 1천만노동자와 함께 하는 거대한 물줄기의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6·29선언이 있을 수 없습니다.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투쟁 사이에 있었던 단절도 있을수 없습니다.

#### 재판장님!

이제 당신들의 시간입니다. <인노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십시요. 우리는 역사의 판결을 기다릴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우리의 몸은 또 다시 교도소로 향할 것이나 우리의 마음은 민중의 바다로, 끝도 없이 이어지는 노동 해방 투쟁의 대열과 함께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1990년 7월 18일

항소인 윤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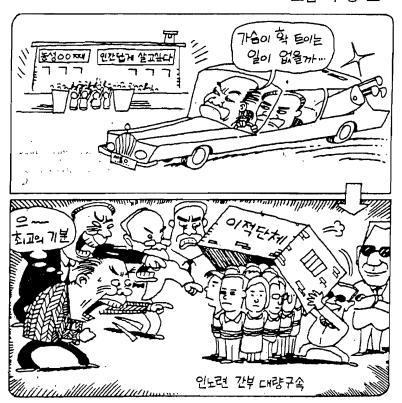
	1	
	-	

료

오동렬 공소장 / 165 우리 권리 우리가 찾자는데 배후 조종 웬말이냐 / 186 노동 조합 운동에 대한 탄압 음모를 중단하라 / 191 변론 요지서 / 196 교수 탄원서 / 207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 사건 개요 / 213

# 州谷坚明

그림 탁 영 호



『주간 노동자 신문』2호

# 공 소 장

성 명: 오동렬(吳東烈)

생년월일: 1960년 4월 3일생(29세)

직 업:무직

죄 명: 국가 보안법 위반

적용법조: 국가 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14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신 병: 1989년 10월 18일 구속

### 공소 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대중 공업사에 위장취업하여 공원으로 종사하던 자로서, 1983년 12월 28일 서울 지방법원 남부 지원에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고, 동년 12월 30일 확정되어 안양 교도소에서복역하던 중 1984년 3월 23일 형 집행 정지로 출소하고 동년 8월 14일 특별 사면(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된 자인 바, 북한 공산 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한반도 적화 통일을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

나라 현실에 대하여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군사 파쇼 정권에 의하여 철저히 종속된 신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모략하는 한편,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인민 해방을 위하여는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파쇼 정권을 타도하고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를 위하여 이른바 통일 전선 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등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연합하여 반미 구국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되는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폭력, 비폭력, 합법, 비합법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반제 반과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여 미제국주의와 군사 파쇼정권, 매판 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 선동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1987년 6월 26일경 인천시 북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광장에서 시민, 학생들 1천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민주 헌법 쟁취 인천 시민 궐기 대회에 참석한 후 참석자 등과 함께 가두시위를 하던 중 시위대가 부평 고등학교 앞에 이르렀을때 성명 불상자 수명이 시위대 앞으로 나아가 시민, 학생들에게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 결성식을 거행하겠다고 하면서 유인물 등을 배포한 후 "노동자의 노동은 사회를 지탱시키고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노동자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대부분을 생산하며 사회는 노동자의 이러한 생산 활동에 의해서만 지탱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는 사회의 주인다운 지위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최소한의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오히려 철저히 짓 밟히고 있을 뿐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향한 노동자들의 타는 목마름과 열망에 대한 현 정권의 대응은 오직 곤봉과 감옥뿐 이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궁핍과 인간적 멸시, 정치적 무권 리 상태에서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늘어나 는 고통에 우리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맞서 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단결'만이 살길이며 정치 권력의 무자비한 개입 으로 노동자의 요구가 철저히 짓밟혀 옴에 따라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투쟁으로 맞서야 함을 깨달아 왔다. 전두환 군사 독 재 정권은 미·일 등의 외세와 소수 독점 재벌, 정치 모리배, 반동 군부 등의 폭리와 사치, 향락을 보장키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노동자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으며 미국은 이 땅에 미군을 주둔시켜 한국군의 작전권을 장악하 고 한국에서 누리는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 독재 정권을 지원하면서 광주 학살 등 기득권 유지를 위해 총칼의 사용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국 민중이 생산한 경제 잉여와 노동자의 피땀을 수탈한다. 미국은 이러한 이익의 유지를 위 해 한반도 분단의 영구화를 지속시키며 분단 올림픽을 지지 하여 남북 대결 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외 세를 배격하고 군사 독재 정권을 타도하여 자주적 민주 정부 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 의 힘만으로는 자주적 민주 정부를 수립할 수 없으며 외세와 독재 정권의 억압을 받는 모든 사회 세력들과의 강고한 연대 에 의해서만 자주적 민주 정부는 수립할 수 있다. 외세의 정 치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노동자는 모든 정치적 역량을 한데 모아 민족 자주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과감 히 나서야 하며, 각계 각층의 반외세·반독재 세력과 강고하게 연대하여 범국민 연합 전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등의 요지로 작성된「강령」과「창립선언문」등을 낭독하는 등 (인 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 결성식을 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 .....중 략.....

1987년 11월 30일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정광필을 만나 인민노련에 가입할 의사를 표시하자 정광필이 가입식을 하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인민노련의 강령에 대하여 설명하여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자,

정광필이 "이제 동지는 인민노련의 정식 사원이 되었으니 월 회비를 5천원씩 납부하도록 하라.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조직에서 소수파가 탈퇴한 후 부평에 지구 위원회가 없어졌으므로 부평에 지구위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선결 임무이다. 앞으로 부평 지구위는 최경민(가명)을 주축으로 하여 나, 이현영 등과 같이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자. 그리고 조직의 보안을 위해 각자 가명을 사용하자. 나는 정호영으로 하겠다"고하여

피고인은 박경석이라는 가명을 사용키로 하고 동인으로부터 "인민노련은 집행 기관으로 중앙 집행 위원회를, 대의 기관으로 대의원 대회를, 산하 조직으로 3개의 지구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구 위원회 밑에는 3~5명 단위의 분회가 여러 개있고, 지구 위원회의 의사 결정 기관으로 지구 대의원 대회가 있다. 인민노련의 조직원이 강령과 규약을 위반하는 등 조직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제명, 정직 등 정계를 할 수 있다"는 등 인민노련의 조직 및 기관, 회원의 자격, 운영 방법, 재정 상황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동인에게 인민노련의 조직원으로서 성실히 활동할 것을 선서함으로써 반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에 가입하고,

2. 가. 동년 12월 4일경 인천시 남구 석바위 소재 옥호불상의 경 양식 집에서 정광필, 이현영(서울대 철학과 졸, 가명:김남 조)과 만나 인민노련 부평 지구 위원회(1지구 위원회)를 결성하는 모임을 갖고 하위 조직 구축 사업에 대하여 논 의한 것을 비롯하여 주 1회 가량씩 동인들과 정기적으로 회합하면서 대통령 선거 투쟁과 민중 후보 지지 문제, 향 후 노동 운동의 전망, 인천 지역 노동 조합 운동 현황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인민노련의 기관지 「정 세와 실천 | 4호를 교재로 사상학습을 해오다가 1988년 2 ·월 4일경 정광필로부터 인민노련 전임 지구위원장인 최경 민(가명)의 후임자로 지명되고, 동인의 지시로 동월 9일경 인민노런 조직국장 노회찬(가명:김재홍)과 접촉하여 1지 구 위원장의 임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후 주 1회 가량 씩 동인과 정기적으로 만나 "1988년 상반기 인천 지역의 노동자 계급의 대중 투쟁의 전망과 정치 조직의 임무, 4 월 10일 총파업의 선전·선동, 국회 의원 총선 투쟁과 관 련한 인민노련의 임무, 노동자 정당과 민중 정당 건설, 통 일 운동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입장, 노동 운동사 속에서 의 7,8월 투쟁의 의의와 한계, 인민노련 기관지 「노동자의

길」의 발간 형태 및 배포 문제, 예비 나원 선발 및 훈련 문제"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한편, 동년 2월 11일경 정광 필, 이현영 등과 만나 1지구 위원회 정기 모임을 개최하 여 1988년 상반기 인천 지역의 노동자 계급의 대중 투쟁 의 전망과 정치 조직의 임무에 대하여 논의한 것을 비롯 하여 주 1회 가량씩 동인들과 정기모임을 갖고 위 노회찬 과 만나 논의한 것과 유사한 내용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하 는 등 인민노련 1지구 위원장으로서 인민노련의 상부 결 정 사항을 1지구 위원회 조직원에게 전파, 시행케 하고 조직원의 사상학습을 계속해 오던 중

동년 8월 23일경 인천시 남구 주안 소재 교보 커피숍에서 노회찬과 만나 동인으로부터 "경영진에서 9월 한 달 동안 대의원을 선출하여 10월 초에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주요 의제는 강령과 규약의 개정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동월 25일경 정광필, 이현영 등에 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월 30일경 노회찬과 만나 동인으 로부터 대의원 대회를 위하여 경영진에서 제출한 「강령 및 규약 개정안」과「사업 평가서」를 각 3부씩 교부받고, 동년 9월 1일경 정광필, 이현영과 1지구 위원회 모임을 갖고 동월 6일경 노회찬과 다시 만나 동인으로부터 인민 노련 홍보부에서 작성, 제출한 강령 개정 요구안 3부를 교부받은 후, 동월 8일경 인천시 북구 가좌동 소재 정광 필의 집에서 동인 및 이현영을 만나 대의원 대회 준비를 위한 1지구 위원회 모임을 갖고 위 규약 개정안, 강령 개 정안 및 홍보부 강령 개정 요구안에 대하여 토론한 끝에 "중앙 위원 제도의 도입과 지구 대의원 대회의 폐지를 핵

심으로 하는 규약 개정안과 강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으나 홍보부의 강령 개정 요구안은 그 정신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세련되지 못한 안건이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고, 동월 19일경 노회찬과 만나 대의원 선출 및 각 단위와 안건 제출 지시를 받고 수일 후 이를 정광 필, 이현영 등에게 전달한 후, 노회찬으로부터 대회 개최 일자 및 장소 등을 전해 듣고 동월 28일경 위 정광필의 집에서 동인 및 이현영과 1지구 위원회 모임을 갖고 피고 인이 동 위원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동인들에게 "다 른 단위(분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에게는 10월 2일 11시까 지 주안 직행버스터미널로 나오도록 하라"고 지시한 후 동년 10월 2일 11:00경 위 버스터미널 커피 판매기 옆 의자에서 단위 소속 대의원인 성명 불상자 2명과 사전에 약정한 바와 같이 『일간 스포츠』를 왼손에 들고 있는 피 고인에게 위 두 사람이 접근하여 진수씨냐고 묻는 방법으 로 신원을 확인한 다음 이들을 인솔하여 버스 편으로 대 회 장소인 경기도 송추 유원지 소재 민박집에 도착한 후, 1988년 10월 2일 14:00경부터 동월 3일 03:00경까지 위 민박집에서 조직국장 노회찬, 홍보부장 황광우(가명: 홍장, 33세), 총무부장 성명 불상자(가명 : 한부장, 31세), 2 지구 위원장 성명 불상자, 3지구 위원장 노병직(가명 : 노 영수, 34세, 서울대 경영학과졸), 1지구 대의원 성명 불상자 2명, 2지구 대의원 성명 불상자 1명, 3지구 대의원 성명 불상자 1명, 피고인 등이 모여 (인민노련) 제 2차 정기 대 의원 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총무부장의 사회로 각자 자 기 소속과 직책을 밝히고 노회찬이 총무부, 조직부, 홍보

부의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한 다음 대의원들의 토론을 진행한 후 1시간 가량 정회하여 경영진이 수정작업한 사 업평가서를 통과시키고,

이어서 강령 개정안 심의에 들어가 "현재의 강령을 폐지하고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강령을 준비하기 위하여 강령 기초 위원회를 결성하자는 것과 마르크스주의 신문 발간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부에서 제출한 강령 개정 요구안과 경영진(중앙 집행 위원회)이 제출한 강령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 .....중 략.....

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진 제출의 강령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고, 이어서 규약 개정안 심의를 하 여 중앙 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고 지구 대의원 대 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약 개 정안을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다음 1989년 사업의 방향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

#### 노회찬이

- 이번 강령 개정안에서 밝히고 있듯이 인민노련은 노동자 정당의 건설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일의 임무로 한다. 이러한 임무를 위해 1988년 10월부터 1989년 9월까지의 인민노련의 사업 계획은 다음의 네 가지 당면 과제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 첫째, 노동 조합 운동에서의 지도력을 확립하고

대공장 분회를 집중적으로 건설한다.

- 둘째, 사원 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훈련을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정치 학교를 설립하여 마르크스 레닌 원전의 학습, 혁명 운동의 전략 전술에 대한 기본 이해를 교양하고 선전가를 배양한다.
- 셋째,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정치사상 유파를 형 성한다.
- 넷째, 노동 운동 단체 협의회, 민중 정당(진보 정 치 연합), 민족 민주 운동 협의회 등과 함께 정치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것 등이라고 하자,

황광우가 "전국적 정치 신문을 발간한다를 포함시키자"고 하여,

노회찬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한 결정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정치 사상 유파가 형성된 이후에 그 속에서 내려져야 한다. 현 재 인민노련의 처지에서 볼 때 시급한 것은 정치 학교이 다"라고 하자,

황광우는 "전국적 정치 신문의 발간만이 마르크스 레닌주 의적 정치사상 유파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고, 피고인이

전국적 정치 신문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의 준비 정도는 대단히 낮다. 그러한 신문이 추상적인 용어를 남발하는 것이 되거나 이론지가 되어서는 안되며 말 그대로 정치 신문이 되려면 현실 운동의 경험을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는 필진을 확보해야 한다. 정치적 대

중 조직의 여러 유산들을 아직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노동 운동의 전위에 서 있다고 자부하는 활동가들조차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한 단편적지식밖에 없다.

○ 그간 조직 내 선전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정치 학교가 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또한 전국적 정치 신문은 인민노련만의 신문일 수 없으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 유파 모두의 것이라 한다면 전국적 정치 신문은 인민노련과는 조직적으로 구별되는 발간 주체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며 우리는 그러한 발간을 위해 적극 기여하는 것까지만 결정할 수 있다고 발언하고,

노회찬이 "본인이 발표한 당면 과제 중에 세번째 항에 전 국적 정치 신문 발간에 적극 복무한다는 귀절을 삽입할 것을 수정 제의한다"고 하여,

충무부장이 "찬·반 토론이 된 것으로 보고 표결에 들어가 겠다. 표결 순서는 먼저 전국적 정치 신문의 발간건을 표결하고 조직국장(노회찬)이 발표한 네 가지 당면 과제에 대해 표결하겠다"고 발표한 후 표결을 실시한 결과 전국적 정치 신문의 발간건은 기각되고 위 노회찬이 발표한 네 가지 당면 과제를 통과시킨 후 조직국장 노회찬, 홍보부장 황광우, 총무부장 한부장, 1지구 위원장인 피고인, 2지구 위원장 및 3지구 위원장 노병직 등 6명을 중앙 위원으로 선출하고,

나. 동월 6일경 정광필의 집에서 정광필, 이현영 등과 만나 그들에게 위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고 동 월 11일경 노회찬과 만나 국가 보안법, 노동법 등 파쇼 악법 개폐 투쟁에 관하여 논의한 것을 비롯하여 정기적으로 동인과 만나 "11월 13일자 '전태일 정신 계승 및 노동 악법 철폐 전국 노동자 대회' 준비 문제, 11월 13일 투쟁에 대한 평가, 1, 3 지구 위원회 통합 문제, 1988년 대중 운동의 흐름에 대한 평가, 3지구 위원장 노병직의 거취문제, 전국적 정치 신문 발간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한편 같은 기간 중 정광필, 이현영 등과 1지구 위원회정기 모임을 갖고 위와 같은 내용 등을 주제로 상부 결정 및 지시 사항을 전달, 시행……

1988년 11월 6일경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소재 황광우의 집에서 노회찬, 황광우, 노병직, 총무부장, 2지구 위원장 등과 만나 중앙 위원회 모임을 갖고 노회찬, 황광우 및 총무부장 등 3명을 인민노련 중앙 집행 위원으로 선출한 후 전 경영진(중앙 집행 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영진 사업계획안 「사업 계획서」내용을 토의한 끝에,

- 대의원 대회를 통해,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제일의 임무로 하고 있는 인민노련은 원대한 전망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져야 할 시 점에 도달했음을 확인하였다.
- 노동법 및 반민주악법 개폐 투쟁, 임금 인상 투쟁, 지자제 선거 투쟁 등은 대중적 역량의 성장과 함께 이에 기반한 당 건설을 위한 투쟁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의원 대회에서 네 가지 당면과제를 결정하였다.
  - 노동 조합에서의 지도력을 확립하고 대공장 분회

를 집중적으로 건설한다.

- 사원 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훈련을 체계화한다.
-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정치사상 유파를 형성한다.
- 노동 운동 단체 협의회, 민중 정당, 민족 민주 운 동 협의회 등과 함께 당면 정치 정세에 적극적으 로 대응해 나간다.
- 자재부(조직부) 사업 계획으로 전국적 범위의 노동 조합 운동에 대해 정치적 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프 락션 망을 건설하고 운용하며 선진 노동자층에 대한 조직화 사업의 강화를 통해 주요 공장과 대중 조직 내에 회사의 지도를 받는 핵심 단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으며 이것은 바로 노동자 정당의 조직적 기초를 구체화하는 일이다.
- 개발부(홍보부) 사업 계획으로
  - 1989년 1월 초까지 정치 학교가 개설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다. 교육 과목이 ①마르크스 레닌주의 원전 학습 ②우리나라 역사와 혁명 이론 ③ 주체 사상에 대한 비판으로 잡힐 수 있으나, 주로 ①마르크스 레닌주의 원전 학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②, ③에 대해서는 정치 학교를통해서가 아니라「노동자의 길」논단을통해서 또 새로운 사상 이론지를통해서 사상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원전학습지도를할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 10월 말부터、11월 말까지는 마르크스의 저작들(특히『자본론』과『프랑스 혁명 3부작』을 중심으로)을 연구

하고 12월에는 엥겔스 및 기타 주요 저작들을 연구하여 교재를 확정한다.

- 정치 학교와 병행해서 원전 학습 지침을 마련해 각 단위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원전 학습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며 수시로 학습 진행을 검 토, 평가할 것이다. 전 사원은 마땅히 대의원 대회의 결정에 따라 마르크스 레닌주의 원전 학습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며 개발부는 이를 주호해 나갈 것이다.
- 총무부 사업 계획으로 부서간의 유기성이 낮은 상태, '계획 — 실천의 평가'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느슨해진 기풍을 다잡아 집중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총무부는 전 사원의 보위 상태에 대한 점검 조치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 사업을 보다 목적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전 사원을 동참시키는 작품의 수립
  - 상호 보고 체계의 정비
  - 예비 사원 상태에 대한 점검과 효과적인 예비 사원 기간 프로그램의 정비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 전원이 이에 찬동하며 이를 문건으로 제작, 하부 단위로 배포키로 결정하고,

다. 동년 12월 16일경 인천시 북구 작전동 소재 공소 외 재 욱의 자취방에서 동월 9일경 인민노련에 가입한 공소 외 최병국 및 김철수, 재욱 등과 만나 단위 모임을 갖고 피 고인의 주도로 인민노련의 기관지「노동자의 길」제33호 를 교재로 한 사상학습을 하면서,

- 현재 남한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들 가운데 가장 중 요한 네 개의 모순이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트의 모순, 독점 대부르주아지와 그외 제계급들 간의 모순, 남한과 미제와의 모순, 남한과 북한과의 모순을 말한다.
-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모순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모순인 생산의 사회성과 소유의 개인성과의 모순의 계급적 표현이며 그만큼 근본적인 성격을 가진다.
- 독점 대부르주아지와 그 외 제계급들 간의 모순이란 독점 대부르주아지 및 파시스트 군부, 반동적 관료 등 반동적 지배 계급과 프롤레타리아트, 소부르주아 지, 농민, 비독점 중부르주아지 등과의 모순을 말한 다. 반제·반독점 혁명의 주체로서 민중 개념의 최대 확장이 비독점 중부르주아지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독점 대부르주아지와 민중 간의 모순이 라고 바꾸어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모순, 독점 대부르주아지와 민중 간의 모순은 남한 사회의 내적 모순들 중의 주요한 모순이다.
- O 남한과 미제와의 모순은 남한이 미제에 종속되어 있음으로 해서 발생, 발전하는 모순이다.
- 남한과 북한의 모순은 우리나라가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로 분단되면서 발생하였고 두 사회가 각각 독자 적 발전의 길을 걸어가면서 심화되어온 모순이다. 역 대 군부 독재 정권을 비롯한 남한의 지배 계급은 항

상 이 모순을 과장하고 앞세워서 그외 제모순들을, 특히 남한 사회가 상호 대립하는 각 계급으로 분열되 어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반대로 남한 민중과 북한은 항상 이를 완화시키고 다 른 모순들을 격화, 부각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앞으로 남한과 북한과의 모순은 다소 완화되어갈 것으로 기 대되지만 결국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이후에야 비로소 이 모순은 완전히 비적대적인 모순으로 전화 될 것이다.

-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모순의 해결은 사회 주의 혁명이며 남한과 북한과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 이 곧 통일이라고 설명하여 참석자 전원은 이에 찬동 하고,
- 라. 1989년 2월 5일경 위 황광우의 집에서 노회찬, 황광우, 총무부장, 2지구 위원장 등과 만나 중앙위원회 모임을 갖고 피고인이 중앙 집행 위원 겸 조직국장으로 선출된 후 동년 5월 29일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미주 오피스텔 3동 207호 사무실로 중앙 집행 위원회 사무실을 이전하고 동년 6월 8일경 경기도 부천시 소재 윤철호의 집에서 정광필, 이현영, 윤철호, 한승주 등과 만나 1지구 위원회 모임을 갖고「노동자의 길」38호 배포 문제에 대해 논의한후 피고인이 참석자 전원에게 사전 준비한 '당 건설의 기본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제하의 문건 1부씩 제공하면서여기서 읽어본 후 토론을 하자고 하여 각자 읽어본 후, 윤철호가
  - 당 건설의 기본 관점은 조직 노선상의 우익 기회주의

경향, 그리고 좌익 공론주의 경향과 투쟁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노동자당 창건을 일정에 올리는 것이 문제 가 아니라 앞으로 노동자 정당 활동을 같이 할 만큼 단련된 기간 역량을 만드는 것이 문제이다 라고 하 자,

### 정광필이

내가 읽어본 소감으로는 「당 건설의 기본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는 조직 노선상의 좌·우 기회주의를 비판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지 않고 사회주의와 노동 운동의 결합의 조직자로서 전국적 정치 신문의 발간을이야기하고 있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하고,

### 이현영이

사회주의와 노동 운동의 결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것, 또 그 속에서 노동자 정당의 일꾼으로 단련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민노련의 노동자 정당의 기본 관점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 피고인이

○ 그렇다. 「당 건설의 기본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는 현존하는 조직 노선상의 좌·우 기회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자신의 지도 사상으 로 삼아 사회주의와 노동 운동의 결합을 위해 헌신하 는 활동이 우리 인민노련이 선택한 당 건설의 기본 관점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나아가서 그러한 활동의 조직자로서 전국적 정치 신문의 발간을 현실의 과제 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 참석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마. 동년 6월 28일경 위 윤철호의 집에서 정광필, 윤철호, 한 승주 등과 만나 1지구 위원회 모임을 갖고 홍보부장 황광우 등 홍보부 팀이 정치 신문 발간을 위하여 인민노련에서 탈퇴한 데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 끝에,

6월 말경 새로운 중앙 집행 위원회 사무실인 구로동 미주 오피스텔 5동 603호에서 중앙 집행 위원회 모임을 갖고 피고인이 총무부장, 정광필이 조직 1국장, 한승주가 조직 2국장, 구인회가 연대부장, 윤철호가 교육선전부장 직을 맡는 등 5명이 새로운 중앙 집행 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동년 8월 29일경 위 미주 오피스텔 5동 603호 소재 중앙 집행 위원회 사무실에서 정광필, 윤철호, 구인회, 한승주 등과 만나 중앙 집행 위원회 모임을 갖고 전임 홍보부 팀 이 제작, 발간한 정치 신문인「사회주의자」창간호에 대 하여 토론을 하면서,

#### 정광필이

○ 모두들「사회주의자」 창간호를 보았는가, 다른 무엇 보다도 사회주의자라는 제목이 인상적이다. 우리가 「노동자의 길」에만 익숙해져 있다가 '사회주의자'라는 낯선 제목을 접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으로 느끼 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제목 문제부터 이야기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 피고인이

○ 나도 책의 제목이 '사회주의자'라고 쓰인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놀랐고 한편으로는 걱정되었다. 전 홍보 부장이 신문 제호 이야기를 하면서 '혁명의 불꽃', '선 봉' 등의 진부한 제호보다는 대중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설 수 있는 '전태일' 같은 제호가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나는 그 수준에서 제호가 결정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막상 '사회주의자'라는 제호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제까지한국의 민족 민주 운동에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사회주의자로 추궁당하면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선언만이 있었지 스스로 자기를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한 적은 없었다. 「사회주의자」 창간호에서는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호로 '사회주의자'를 택한 것은 그것만이 파란 책의 목적과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제호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신문의 발간 목적에 부용하는 실천이라고 보았기때문이라는 점에서 '사회주의자'라는 제호 자체를 의식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자,

### 윤철호가

○ 「사회주의자」창간호에서는 모든 금기를 무시하는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사상을 비롯한 일체의 진보적 사상이 탄압받을 이유가 없다. 이러한 기본적 취지에서 '사회주의자'라는 제호는 나름의 의의가 있는 것 아닌가. 국가 보안법과 같은 악법을 부수는 데 우리 인민노련이 앞서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하고,

한승주가

 나도 그랬지만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라는 제목을 보고 내가 진짜 사회주의자 인가 하고 반문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암흑과 같은 금기를 깨기 위해서도 '사회주의자'라는 제호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자,

### 구인회가

사회주의자라는 용어를 우리가 감싸안음으로써 분단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커다란 부담을 안고 나아가는 셈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사 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자 계급이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라는 용어를 우리의 것으로 하자. 이미 민중 민주 정부 수립을 당면 혁명의 목표로 생 각하고 있는 조직원들이 모두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지 는 않을 것이며, 부분적으로 이견은 있을 것이다. 그 리고 현재의 노동 운동의 수준은 우리가 공공연하게 사회주의자의 조직임을 밝힐 만한 수준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당장에 우리의 강령을 명백하게 사회주의자 의 조직으로 못박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 들에게 사회주의는 금기의 대상, 기피의 대상이 아니 라 감싸안고 쟁취해야 할 노동자 계급의 사상임을 알 려야 한다. 「사회주의자」는 인민노련이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 여러 제약 조건을 훌쩍 뛰어넘어 계급적으 로 각성되어 가는 선진 노동자용의 신문으로 발행되 었다. 우리는 내심으로만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주의자」를 공공연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참석자 전원이 이에 동의하는 등 전후 5회에 걸쳐〈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의 조직원 으로 활동하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고

### ..... 중 략.....

- 바. 동년 10월 7일경 위'한권의 책'서점에서「사회주의자」 제4호를 구입하여 그 무렵 위 오피스텔에서 읽어본 바, 그 내용은
  - 화해할 수 없는 계급 적대의 발현, 발전 과정으로서 경제 투쟁, 정치 투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계급 투쟁이 자연발생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중의 투쟁을 지도, 지원하는 것으로 민중의 정치 지도자의 임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혁 명적 민중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전망에 대해서, 이 사회의 모든 모순과 고통의 진정한 근본적 해결책에 대해서, 혁명에 대해서 선전하고 선동해야 한다.
  - 과소비는 결코 남한 사회만의 문제, 최근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남한 사회가 계급 사회이기 때 문에 그리하여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착취가 엄존하고 사회의 잉여가 한 집단에 의해 전유되기 때 문에 가능한 현상이며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 는 문제이다.
  - O 노동 시간의 연장, 노동 강도의 강화는 자본가들의

이윤 증대를 의미하지만 노동자 계급에게 있어서는 착취의 강화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탄생한 이래 노동 시간을 둘러싼 노동자 계급과 자본 가 계급의 치열한 투쟁이 벌어져 왔던 것이다. 노동 시간 단축, 노동 강도 완화는 노동자 계급에게 있어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육체 적 정신적 소모를 줄이며 다른 한편 자본가 계급에 대한 투쟁의 칼날을 보다 예리하게 갈 여유를 갖게 한다.

- 우리 노동자 계급은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 최 저 임금의 인상을 위한 투쟁에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 의 투쟁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계급적 지배와 억압의 철폐를 위한 근본적인 투쟁에도 나설 것이다. 오직 사 회주의 사회에서만 사회의 한쪽에는 과소비가 다른 한쪽에는 빈곤이 쌓이는 현상이 종식될 것이다.
- 실업의 문제는 임금 인상 등의 경우와는 달리 개별 기업 차원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실업 문제 는 임금제도 자체의 폐지, 즉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철폐되지 않는 한 진정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는 등의 요지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 오피스텔에 보관하여 각 반 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 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다. 〈자료 2〉-

# 속 보 I

### 우리 권리 우리가 찾자는데 배후 조종 웬말이냐

### 〈인민노련〉 간부 15명 구속

'노사 분규 배후 조종——반제 혁명 추종'이란 머릿기사로 시작되는 『조선일보』 1989년 10월 19일자 신문에는 그 노사 분규배후 조종 사업장으로 부천의 연경, 우일, 인천의 경동산업 등 10여 개 사업장이 나와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여기에서 같이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연경 투쟁 과정은 집행부와 조합원의 결합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파업을 결의하며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임금 체불, 준법 투쟁, 권 과장의 망언, 망발, 크고작은 노조 탄압들 속에서 노조 존립 자체에 대한 위 기감으로 '민주 노조 사수', '노조 탄압 분쇄'를 외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누구의 조종도 아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지역 동지들의 연대 지원, 지역 상담소, 노동자 의 집, 기독교 민중 교육소 등으로부터 상담·교육 등의 지원을

노사분규 **배亭조종-反帝혁명 추종**。

장한학의장 民東孫與(20·서 미 인천 부천 등지의 보증자 (八)를 소장원들을 통해 응 현대장학자들이는 조진정보선된 100을 대상이면 전자리작회자 선 다시를 전혀 되자지 이 공 인물인 바이 환기에는 보기되었다. 전 보기를 자꾸 하지 의 공 기를 보기를 하게 하는 지원 보기되었다. 전 보기를 자꾸 하지 의 공 기를 하게 하는 지원 보기되었다. 전 보기를 자꾸 하는 이 보기를 하는 이

자기를 조직원들을 통해 물 이름은 인민보험점성보기 산 마사를 전략 10차지의 공 엔 김일정주체사상교의 명대 만보험자들에게 배포해왔으 했다지 80번10월이후 보천투

商品的 中国四 奥风景美人一商家中事。中国市口,由于是"Joe",对处"风过 9~2000年,可以上的国人的时间,因为国际,对" 정류에주도진육있었으며▲전 로 판련자들을 검지하고 「남

おいばるなら のはなばられ 의 병이라 무려있다.

香香水冠多谱 4.40分数 | 5.40数 | 5.40数 1.500 1.50 | 春日・조日2号へんに三郎)▲ 大量男(25.日-018日間不日 日・大量は量の回発の可の円 日間日間を通り 西年上」「シワ 小と八三日)▲金惠山(25・ | 「兄母はるのかみを・不以一章 | 編件(26・大きにないを・/) 교육なな中心) ▲建南▲(23・ 西線(28・大量ではは、▲美田線(28・大量ではは、● 서울대법대 나 보지점 · 기관지 **배巫科)▲李勉等(28・村最** 

▲ | 毎日子足む山香・川) ▲李汰 | 馬(24・ユガロの足が山のり 「馬(24・ユガロの足が山のり ・カースが一のでは、一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 育品等・//) ▲無し屋(25・村 ▲中漢和 (83· 0· 서울대목문 びを大き山道· (Mag) ▲M

版(26・中・豊富さげいる

『조선일보』 1989년 10월 19일자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마저 제 3자 개입 금지라는 악법으로 구속시키고 연대 지원을 막고 철저히 각 회사 노조 별로 고립시키려 하나 우리는 더욱 강고한 연대 투쟁으로 악법을 철폐하고 단결의 자유를 쟁취해야 합니다.

둘째, 〈인민노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정치 조직입니다. 노동 조합법에 '노동 조합 정치 활동 금지'라는 악법이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분명 노동자이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많은 숫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입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이익을 정치적으로 반영시키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활동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노동자들도 정치 세력화하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힘을 가진 진짜 노동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정치 의식화시키고, 조직화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정치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민노련〉은 우리 노동자에게는 꼭 필요한 조직이며, 노태우 정권, 가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목을 죄는, 그래서 대량 구속시키며 탄압할 수밖에 없는 불법 단체인지 모르지만, 우리 노동자에게는 더욱 보호되고 커나가야 할 조직입니다.

셋째, '이적 단체' 구성이니, '이적 표현물 제작·배포', '반국가 단체 고무·찬양', '파업 사업장 배후 조종'이니 하면서 〈인민노련〉 간부를 15명씩이나 구속시키는 것은 바로 노태우 독재 정권이 우리 노동자들의 힘이 급성장하고 있음에 놀라고 두려워서 구속하고, 반민주 언론(『조선일보』)을 통해 왜곡 보도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나쁘게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

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건을 조작, 왜곡 보도하여 탄압의 빌미로 삼는 노태우 독재 정권의 엄연한 노동 운동 탄압임을 천 명하는 바입니다.

『조선일보』가 왜곡 보도, 편파적인 보도를 하며 반노동자적인, 반민주적인 언론임을 스스로 자처하며 또 다시 확인시켜준 반면 에 우리 민족 민주 세력의 민주 언론인『한겨레 신문』의 사설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노동 운동의 정당성, 합법성에 대해 싣고 있습니다.

### 노동운동을 '이적'으로 몰지 말라

'인노련' 간부 대량구속을 보고

얼마간에 (공화국생산)구속된 양성규칙소자 (관하면서 친구화를 위해 생육고 있다. 논등운동 가 5공의 2배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 "의 조직화와 과학적 실천은 그 누구도 막을 수 고 노동자들이 양심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 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사람들의 관심도 끌지 못한 채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리없이 구 속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전국의 노동현장 곳곳 에서 노동투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져 왔는 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노동자 17명이 한꺼번에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치안본부는 '인천지 역민주노동자연맹'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 적단체' 구성·가임, '반국가단체' 고무·찬양, 이 적표현물 계작·반포 등의 혐의로 간부들을 구 속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이적단체'를 구성했다고 하 여 도표가지 그려 엄청나게 발표한 적이 많았 그러나 나중에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그것이 확대조조으로 드러나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갯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은 이제 이런 타성 올 버려야 한다. 지금까지 억눌려 지내던 노동 자들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깨닫고 서로 격 없는 도도한 흐름이 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대립과 갈등이다. 이것은 은폐하고 축소함으로써 해결될 일이 아니라 현 실로 인정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함으로써 풀릴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 사회는 이런 계급간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이 특될 수 있다. 수적으로 엄청나게 불어난 노동 자들의 존재와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산업의 평화와 국가의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볼 때 정치권력은 노사의 사이에서 임정한 중절을 지키면서 사회적 약자 인 노동자의 실질적 권약을 중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글까지 역대 독재정권이 그랬 듯이 권력이 일방적으로 사용자편을 들어 노동 자들을 탄압만 하려 들 때 우리 사회는 끝없는 혼란과 길등 속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 당국이 '노동자대학'의 적법 한 등록을 거부하고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간부들을 대량 구속한 것은 잘못이다.

『한겨레 신문』1989년 10월 20일자

"노동 운동 탄압하는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정치 활동 가로막는 노동 악법 철폐하자!"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철폐하여 단결의 자유 보장하라!"
"노태우 정권 비호하는 『조선일보』는 각성하라!"
"노동 악법 철폐하고 노동 해방 앞당기자!"

1989년 10월 21일

연경 전자 노동 조합

### 노동 조합 운동에 대한 탄압 음모를 중단하라

현 정부는 10월 18일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 간부 17 명을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안기부와 함께 용공조작으로 악명을 떨쳐온 치안본부는 이 날, 노동자 17명의 구속사실과 함께 마치 인천 부천 지역의 일부 노동 조합 활동이 특정 노동 운동 단체에 의해 조종되어온 것처럼 발표하였다. 관제언론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온치안본부의 발표를 진실인 양 보도하여 온갖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노동 조합들을 모함하였다. 특히 신문과 방송에 의해 부당하게 매도당하고 있는 인천의 콜트 악기 노조, 경동 산업의 민주 노동자, 부천의 우일, 연경 전자 노조 등의 동지들에게 애정어린 격려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노동자들의 투쟁은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이며 노동 조합은 노 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자주적인 조직이다

치안본부는 언론을 통한 발표에서 마치 노동 조합의 결성과 노동자들의 투쟁이 특정 노동 운동 단체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 인 양 발표하여 노동 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모함하고 우리 조합 원의 자주성을 짓밟아 버렸다. 이 땅의 어느 노동자들이 남의 조종과 선동에 의하여 정당치 못한 요구를 한 적이 있는가. 우 리 노동자들의 투쟁은 항상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가난과 역 압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아무리 열 심히 일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셋방살이와 인간적인 모멸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로지 단결과 투쟁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우 리 노동자들은 1987년 7,8월 이후 피어린 투쟁을 전개해 온 것 이다.

우리들을 투쟁으로 나서게 한 것은 누구의 조종이 아니라 노. 동자들에게 끝없는 가난을 강요하며 자신의 재산 축적에만 몰두 해온 악덕 자본가들이었다. 우리로 하여금 단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은 누구의 선동이 아니라 노동자는 영원한 자본가의 노예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며 우리를 탄압한 현정권이다.

누구도 바꾸어주지 않는 우리의 부당한 운명을 스스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 조합으로 단결하고 투쟁하였다. 우리가 만든 노동 조합이란 조직은 조합원 전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으며 우리의 투쟁은 항상 전체 조합원의 의견에 따른 것 이었다.

## 2. 치안본부의 발표는 노동 조합 운동의 탄압과 전노협 건설의 방해 음모이다

지안본부가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 간부들을 구속한 뒤 노동 조합을 매도한 것은 진군하는 노동 조합 운동을 탄압하고 전노협 건설을 저지하려는 음흉한 저의가 도사린 것이다. 이미 경찰의 본산 치안본부는 노동자를 적으로 여기는 현 정권과 자본가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짓밟아왔다. 1989년 초, 풍산 금속과 서울 지하철의 투쟁 현장에 병력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유린한 것도 바로 치안본부다. 현대 중공업 노동자들을 적으로 삼아 1만2천여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심야 전투를 벌인 것도 바로 치안본부다. 안기부, 노동부와 한통속이 되어 우리의 지도자들을 제 3자 개입이다, 불법쟁의다하며 차가운 감방으로 보낸 것도 다름아닌 치안본부다. 그러나그 엄청난 탄압으로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잠재울 수 없었다. 현대 중공업 노동자들이 그들의 군화발에 무릎 꿇었던가. 아니면 우리 민주 노조들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고 민주 노조의 깃발을 내렸던가.

현 정부는 치안본부의 공권력 투입, 제3자 개입 고소 고발 등물리적 탄압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노동 조합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전국적인 노동 조합조직 〈전노협〉결성을 저지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3.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신해 온 노동 단체와 상담소 등의 활동은 정당하며 부당하게 구속된 노동자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항상 가난하고 가진자들의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 는 굳은 신념을 가진 이 땅의 자본가와 독재 정권은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왔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그마한 노력조차도 용공좌경으로 매도당하고 국가 보안 법이란 악법으로 처벌되어 왔다. 심지어 노동 조합을 결성하기 , 위해서도 감옥에 갈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이제 겨우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노동 조합도 정치 활동을 금지당하고 있 다.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어떠한 정치 세력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 노동 운동 단체들은 노동자들의 입장을 반영하 기 위해 애써온 조직이다. 노동자가 이 땅의 주인임이 분명하다 면 노동자의 조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치안본부는 구속된 노동자들에게 새 로운 고문 방법으로 잠을 재우지 않은 채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가족들의 증언이다. 우리는 노동자도 자유로운 자 신의 조직을 가질 자유가 있다고 믿으며 구속된 노동자들의 석 방을 촉구한다.

인천 지역과 부천 지역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 조합들의 결집체인〈인천 지역 노동 조합 협의회〉와〈부천 지역 노동 조합 협의회〉는 이상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 여하한 형태로든지 지역 내 노동 조합에 대한 탄압이 자행될 경우 모든 민주 노조와 조합원들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우리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노동 악법과 국가 보안법 등 반민주 악법의 개폐를 위해 각계각층의 민주 세력과 함께 싸워갈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인천 지역 4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콜트 악기 노동 조합, 연경전자 노동 조합, 우일 노동 조합, 경동 산업 민주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매도와 탄압을 규탄하며 그 동안의 정의롭고 민주적인 활동에 지지를 보낸다. 또한 이번 사태를 인천, 부천 지역 노동 조합 협의회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며 어떠한 상황이 닥쳐 오더라도 함께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1989년 10월 23일

무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자료 4〉-

89 고합 1498, 1500, 1501, 1504, 1507 호

## 변론 요지서

피고인 오동렬 외 4

위 피고인들에 대한 89고합 1498, 1500, 1501, 1504, 1507호 국가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오동렬, 윤철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의 요지를 밝힙니다.

### 다 음

먼저 법리적인 주장에 앞서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우리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 노동자들보다도 열 심히 일함으로써 우리 사회 성장의 주역을 담당하여 왔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살아 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물질적·외면적 혜택의 박탈

뿐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사물과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내면 적 자유조차 빼앗기고, 이와 같은 잘못된 현실을 개혁할 전망, 즉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일말의 희망조차 상실 한 채 오직 굴종과 체념만을 강요당하며 살아 왔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부당한 현실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해 . 보려는 순수한 정열로 대학 졸업자로서의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체험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살아 온 것입니다.

오늘 단지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 국가 보안법 위 반이라는 죄명으로 이 법정에 서 있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변 호인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국가 보안법이 과연 악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건 공소 사실을 간단히 요약하면 피고인들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인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에 가입하였고, 북한의 활동 주장에 동조하여, 또 이러한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 소지함으로써 북한을 이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1 먼저 북한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라는 공소 사실 모두의 대전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위 전제가 시대 착오 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허구적 규정이라는 점이 누누이 지적되어 왔습니다만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규정의 국제법적 근거로 알려진 1948년의 유

엔 결의, 즉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결의"는 실은 "대한민국이 38선 이남 지역에서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결의"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 유엔 결의를 이유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그 동안 7·4 공동 성명, 7·7선언 등을 통하여 북한이 우리와 민족 공동체요, 동반자 관계임을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해 왔고, 주권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호칭의 사용을 공식화하고 있고, 주권 국가 사이에서만 가능한 남북 정상 회담,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부의 외교 정책, 통일 정책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또한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우리 헌법은 전문과 제4조에서 평화 통일 정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 정책이란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한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 헌법이 평화 통일 정책을 선언한 것은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의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위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건 공소 사실의 대전제인 북한이 반국가 단체라는 점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우리 헌법의 정신 에도 어긋나며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 통일 정책과도 모순되는 시대 착오적 규정으로서 이미 그 실효성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반국가 단체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건 공소 사실은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 니다.

### 2 〈인민노련〉이 이적 단체라는 점에 대하여

북한의 성격 규정에 관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인민노련〉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조직된 소위 이 적 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 〈인민노련〉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를 목적으로 조 직된 노동 운동 단체이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조 직된 단체가 아닙니다.

1980년대 이후 특히 19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그 동안 고도 성장의 그늘에 가려 침묵을 강요당하며 살아 왔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소외 기층 민중들이자신들의 정당한 몫과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요구하며 각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 세력 중 이들의 정치적 요구를 수 렴하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정치 세력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자유 민주 사회란 각 계급과 계층이 자신들의 입장과 처지에 맞는 정치적 신조와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를 개혁해 나 가는 것이 허용된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아무런

정치 조직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바로 해방 이후 우리 정치의 파행적 구조, 즉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민중의이해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가진자를 대변하는 세력만이 존재할 수 있었던 우리의 정치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 사회가 아닌 극우적 계급 독재 사회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뚫고 이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각성이 급속히 진전되고 정부 여당마저 보혁 구도로의 정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시점에서 노동자 계급이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역사적 필연이고 〈인민노런〉은 바로 이와 같은 현실에 부응하여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를 위하여 조직되고 활동해 온 단체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노동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해 온 〈인민노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한 것이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기 짝이없고, 더욱이 이적 단체에 대하여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요구하고 있는 국가 보안법 제7조 제3항의 해석상이적 단체라고 하기 위하여는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 단체적 의사로서 분명히 요구되는 바, 이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민노련〉은 그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관념적 교조나 이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반대하 고 남한 민중의 입장에 서서 남한 사회의 구체적 현실에 기초하여 남한 사회의 모순의 실체와 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북한의 주장이나 노선을 일 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단순히 거부하고 이를 비판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 북한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 온 〈인민노련〉에 대하여 북한의 노선과 활동에 동조하여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주장하는 이 건 공소 사실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 또한 이와 같은 이적성의 판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 은 〈인민노련〉이나 피고인들의 주장 중 단편적으로 북한 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주장과 단순히 표면적 일치를 이룬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의 주장 에 동조하였다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즉, 북한의 주장 중에는 북한 당국의 진심에서 나온 주장이건 혹은 정치적 선전의 목적에서 나온 주장이건 간에 남한 국민에게도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주장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남한이 미·일 등에 종속된 상태에서 벗어나 민족적 자주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남한 민중들의 정치적·경제적 자유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 남북한 간의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남북한 상호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 협정의 체결, 상호 군비 축소, 핵무기의 제거 등의 주장은 비록 북한이 먼저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남북한을 포함한 우리 민족 전체에 이익을 줄 것이 틀림없습니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북한이 먼저 이를 주장하였다 는 이유로 남한 국민의 이와 같은 주장을 이적 행위로 규 정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남한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부당 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행위의 가벌성의 판단은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었느냐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느냐 역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형법의 기본 이론임에도 이와 같은 기본 어론조차 무시하고 상대에게 이익을 주었느냐 여부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 보안법의 조항은 우리 국민에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화해와 공존의 이상을 저버리고 구시대의 냉전적 사고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보안법의 위와 같은 이적 개념 규정은 우리 헌법의 인류 공영의 정신, 평화 통일의 정신에 반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 법 규정은 무효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설사 유효로 해석하여 이와 같은 행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북한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익을 주 는 주장인 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일반 정치 활동의 자유 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인 정하여 범죄의 성립을 부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③ 〈인민노련〉이 폭력 혁명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공소장의 시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민노련〉은 폭력을 수단으로 삼아 폭력 혁명을 추구하는 집 단이 아닙니다. 피고인들 또한 폭력을 애호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폭력을 위한 물리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민중이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 석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인민노련〉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각성을 돕기 위한 각종 교육 상담 활동, 정치 신문의 발간, 대중 집회의 개최 및 각종 선거에 의 참여를 통한 정치적 선전 활동, 노동자 정당의 건설을 통한 각종 정치 활동을 투쟁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 활동해 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 혁명의 과정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폭력적 현상에 대하여 이것은 지배 세력의 압도적 물리력에 의한 폭력적 탄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방어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지배 세력이 사용하는 폭력과 똑같은 차원에서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1980년 광주 항쟁에 있어서 시민군 조직의 동기와 배경, 시민 군의 활동 과정 등을 상기한다면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주장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인민노련〉을 폭력을 통해서 사회를 전복하려는 폭력 혁명 집단으로 매도하는 공소장의 시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4 〈인민노련〉이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시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민노런〉은 그 강령에서 운동의 목표를 민중 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민중 민주 사회의 실현으로 제시하고 있고 민중 민주 사회의 내용으로서 강령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노동 3권의 완 전한 보장, 노동 조합의 정치 활동의 자유 보장, 농민 도시빈민의 생존권 보장, 표현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의 전면 보장 등우리 헌법상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피고인들은 개인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의 여러 고전들을 연구 검토해 왔고 사회주의 사상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 민주주의란 각 계급 계층이 자신의 처한 입장과 처지에 맞는 사상과 신조를 자유롭 게 논의 수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체제이고 이와 같은 사상 학문 의 자유야말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스스로의 모순과 약점을 끊임없이 수정 보완하면서 유지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의 보장이야말로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것입니다.

또 서구의 모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회주의적 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당, 공산당의 활동이 합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역설적이게도 최근 우리 사회의집권 여당조차 보혁 구도를 내세우며 혁신 정당 출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특정의 신조나 사상 자체를 문제삼아 이를 금기시하고 이적 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바로 자유 민주주의의 폐기요, 혁신 세력의 육성을 부르짖는 집권 여당의 태도와도 배 치되는 시대 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고인들의 경우 특정 사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온 것도 아니고 노동 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현실적 필요 에서 역사상 노동자의 사상으로 알려진 마르크스주의의 고전들을 초보적 단계에서 연구 검토해 온 것에 불과하였는데 이를 이적 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과연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본래의 뜻에서 나온 법 적용인지 아니면 남한 내부의 지배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노동 운동을 탄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두 개의 국가로 갈라진 분단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정치 활동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제약은 특정 사상을 논의하고 수용하였다는 것 자체가 아닌 특정 정치세력이 북한과의 구체적인 인적 물적 연관을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조화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 5 마지막으로,

최근 한 연구 기관의 노동자들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동자들의 85% 이상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인민노련〉과 피고인들의 활동의 근거와 정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민주자유당은 국가 보안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에 못 이겨 국가 보안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았고, 그 중에는 제7조의 이적의 개념을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할 목적"을 가진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자당의 이와 같은 법 개정 내용은 바로 지금까지의 국내 정 치적 필요에 의한 국가 보안법 남용의 현실을 시인하는 것이고, 이적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사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 개정 전이지만 이와 같은 개정안에 비추어 보아도 이적 개념은 "북한과의 인적 물적 연관을 가진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나, 형법 이론, 또 화해와 공존, 개방의 시대로 표현되는 오늘의 시대 정신에도 부합되는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랍니다.

1990년 3월 28일

위 피고인 오동렬, 윤철호의 변호인 변호사 조 영 래 변호사 윤 종 현 변호사 김 선 수 변호사 박 주 현 변호사 김 한 주

서울 형사 지방 법원 귀중

## 교수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사건은 현재 국가 보안법에 의거 '이적 단체'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체가 그 동안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불이익을 당하여 왔던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활동하여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폭넓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림으로써 판결의 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는 마음에서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 1.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은 노동자들의 의식적 각성을 위하여 활동한 하나의 정당한 노동 운동 단체라고 사려됩니다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이하〈인노련》이라 하겠습니다) 과 같은 조직의 활동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왜 이러한 조직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인노련〉같은 조직은 '범죄'의 음모나 '불순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 그 자체로부터 탄생하였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를 통하여 여러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나게 되었고, 산업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군부 통치의 폐해를 경험하여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1980년대에는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바로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조직이 만들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노련》역시 이러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흐름의 반영 위에 서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 분야를 국한하여볼 때 소수의 독점 재벌들의 손에 우리 사회의 엄청난 부가 집중되어 있고 그로 인해 많은 폐해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에 반해 노동자들의 권리 의식, 정치의식은 여전히 낮은 것이 또한 부인할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하여 불평등한 현실과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구조를 바로잡고자하는 〈인노련〉같은 단체가 생겨났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단체들의 노력은 그 나름대로 정당한 일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현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소수 재벌들의 자비로운 생각에서 교정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또한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 자신이 각성하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정치 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것을 활동의 한 목표로 삼고 노력하는 〈인노련〉같은 정치 조직 역시 냉전 논리에 의해서만 단죄할 수 없는 정당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부는 진보적 혁신 세력들을 '육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여 왔습니다. 바로〈인노련〉처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한 일반 민중들의 정치 세력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정치 조직이야말로, 정부가 '육성'한다고 공언한 바로 그 혁신 세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인노련〉의 조직적 활동 역시 일면적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정당사의 경우를보더라도 바로〈인노련〉과 같은 조직들의 정치적 활동이 올바르게 보장될 때만이 참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판부가〈인노련〉의 활동에 대하여 폭넓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2. 현재 개폐(改廢)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보안법에 의해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재고를 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인노련〉은 이러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단체'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소장을 접하면서 먼저 '북한을 동반자 관계' 로 대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7.7선언과 이것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에 강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현재 남한과 수교한 나라의 절반이 남북한을 동시에 승인하고 있으며, 정부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미·중·소·일의 남북한 교차 승인을 추진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는 북한의 정식 명칭을 사용하여 남북 정상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국가 보안법의 규정은 사실 현실에서는 이미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불가불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현실적 괴리를 염두에 두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적 단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과연 〈인노련〉이 북한을 어떤 점에서 이롭게 하였는지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구하는 인문사회과학은 현실의다양한 사실 간의 인과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단순화하여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문사회과학의 견지에서 볼때 '〈인노련〉의 활동'과 '북한을 이롭게 하였다'는 사실 간의 인과 관계가 과연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이적'의 근거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이적이라고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법논리상으로도 재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 사상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인 바, 〈인노련〉의 여러 주장은 사상의 자유라는 견지에서 볼 때 처벌의 대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들의 주장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마르크스 주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르크스주 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과학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자건 아니건 간에 그 유용성과 분석력을 널리 인정하는 하나의 고전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사상에 의거한 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모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당, 공산당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유독 우리 사회에서만 이 사상을 단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논의나 활동을 '이적'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상이란 사람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보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가 옳다 혹은 그르다라는 차원을 떠나서라도,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일체의 다양한 사상은 어떠한처벌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 토론, 신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천부적인 권리이자, 우리 사회 발전의 중요한 정신적 기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인노련〉이 다른 근거가 아니고 바로 이러한 사상적 견해에 의해 처벌받는 것은 진정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재판부도 이를 신중히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법부는 한 사회를 건전히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체입니다. 세계 그 어느 사회와 달리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만은 사상의 자유가 제약되어도 좋다는 '공안 당국적 사고'는 이 제 사법부의 결단으로 종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 법부는 그러한 사고를 헌법의 기본 정신에 비추어 종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법부가 이번 (인노련)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우리

사회의 미래와 역사를 한발 앞서 내다보는 자세로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강압이 아닌 전국민적 존경속에서 그 권위가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이 탄원서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1990년 3월 28일

서명자 김진균 교수 외 147명

###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 사건 개요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사건은 1989년 10월 18일 17명의 맹원이 연행, 구속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일제히 들이닥친치안본부 대공분실 요원들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20일간의 밀실수사를 받았으며 수많은 자료와 서적, 사무기기, 인쇄기 등을 빼앗겼다. 이어 12월에는 4명이 추가로 구속되어〈인노련〉사건 총구속자는 21명으로 늘어났다.

노동자 정치 조직〈인노련〉탄압에 대한 항의는 1차 구속사대후 곧바로 일어났다. 구속자 가족은 물론〈부천 지역 노동 조합협의회〉,〈인천 지역 민족 민주운동 연합〉등의 대중 조직에서 각각〈인노련〉탄압의 부당성을외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치안본부가 신문지상을 통해〈인노련〉배후 사업장인 듯이 발표했던 부천의 연경 전자 노동 조합에서는 이에 떳떳이 맞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속보를 내기도 했다. 1심재판 때는 김진균 교수 등 교수 147명과 권호경 목사 등 목사 85명이, '폭력 혁명', '이적 단체' 운운하는 검사측의논리에 대항하여 "소수 독점 재벌의 손에 우리 사회의 엄청난

부가 집중되고 그로 인해 많은 폐해가 야기되는 현실에서 노동 자의 정치 세력화를 주장한 〈인노련〉의 활동은 정당한 일면이 있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이 활동을 지지했다.

〈인노런〉 맹원들의 재판 투쟁은 6공화국 하의 악행이 되고 있는 시국 사건 분리 재판을 거부하고 조직 사건의 실체를 밝힐수 있는 전원 병합 심리를 요구하는 데서 출발했다. 5명씩의 부문 병합이 이루어진 가운데 구속자들은 1, 2심 재판의 전 과정을 통해 시종일관〈인노련〉활동의 정당성과 사회주의적 실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최후 진술」,「항소 이유서」등을 통해 '남한 사회주의자'로서의 개인과 조직의 입장을 천명하는 꿋꿋한 재판 투쟁을 벌였다.

· 대부분의 맹원들에 대한 2심 재판이 끝난 8월 말 현재 총구속 자 21명 중 8명이 석방되었을 뿐 아직도 13명이 실형 선고를 받고 투옥 중에 있다. 다음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18명 맹원들에 대한 소개다.

\* 형량은 2심 판결에 따른 것이다.

### ■ 오 동 렬 : 1960년생

서울대 철학과 졸 1983년 레이건 방한 반대 시위로 1년 6월 선고 대중공업사 근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 ■ 윤 철 호 : 1961년생

서울대 철학과 졸 1983년 레이건 방한 반대 시위로 1년 6월 선고 서흥(주) 근무

### 제 3부〈인노련〉10월 사건 관련 자료 215

1988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 노 병 직 : 1953년생

서울대 상대 졸

198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전노협 정책실 부장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 노 회 찬 : 1956년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

대림보일러, 금화공업사 등 근무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 정 종 주 : 1963년생

서울대 법대 졸

1986년 민정당 연수원 점거로 징역 3년 6월 선고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최 병 국 : 1962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

대림통상 근무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이 현 영 : 1961년생

서울대 철학과 졸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최 건 섭 : 1962년생

서울대 법대 1년 제적

태을금속 근무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 이 면 재 : 1961년생

서울대 정치학과 졸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 김 진 희 : 1962년생

고려대 국문학과 졸

한비산업 근무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 권 우 철 : 1960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

인천 지역 노동자 복지 협의회 활동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 신 동 수 : 1963년생

서울대 국사학과 졸

1986년 학원 안정법 반대 시위로 1년 6월 선고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이 태 주**: 1965년생

고려대 영문학과 3년 제적

1986년 민민투 사건으로 구속

대흥공업사 근무

1988년 구청협 사건으로 구속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김 용 숙 : 1963년생

인천여고 졸

인쇄소 청타수로 8년 근무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 1990

년 8월 석방)

### 제 3부 〈인노련〉 10월 사건 관련 자료 217

### ■최 남 기 : 1960년생

고려대 경영학과 졸 경동산업 근무

사랑방 상담소 상담원

새날 상담소 상담원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2심 계류 중 구속 취소——1990년 8월 석방)

### ■ 김 창 덕 : 1963년생

운산기계공고 중퇴

1982년 경신공업 해고

사랑방 상담소 상담원

새날 상담소 상담원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1990년 4

월 석방)

### ■ 김 혜 인 : 1964년생

서울대 불어교육학과 3년 제적

1986년 부산 미문화원 점거로 구속

삼기전자 근무

(징역 10월, 자격정지 10월, 집행유예 2년 ---1990년

4월 석방)

### ■ 심 은 남 : 1963년생

인하대 행정학과 졸

삼기전자 근무

(징역 10월, 자격정지 10월, 집행유예 2년 ---1990년

2월 석방)

•			

### 그렇소, 우리는 사회주의자요!

1990년 9월 10일 초판 인쇄 1990년 9월 20일 초판 발행

지 은 이 : 윤철호, 오동렬 외

펴 낸 이 : 이 성 우

펴 낸 곳 ; 도서출판 일빛

등록번호:제1-103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7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관 206호

전화 (02) 720~0586

### 값 3,500원

\*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 노동자의 책

- 1 강의 노동자의 철학 인천 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3,000원
- 2 강의 노동자의 경제학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3,500원
- 3 \*강의 한국 노동운동론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근간
- 4 강의 한국사회와 변혁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근간
- 5 한국 노동운동사 부천민중교육연구소/근간

### 일빛 과학

- 1 파우스트 Vs 메피스토펠레스
- K. 시미르노프/근간 2 에너지와 엔트로피
- G.N. 알렉시에프/근간
- 3 아인슈타인의 철학적 견해와 상대성 이론 D.P. 그리바노프/근간
- 4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I Ya.L 뻬렐만/근간
- 5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Ⅱ Ya.L 페렐만/근간
- 6 화학원소의 발견 이야기 D.N.&.V.D. 트리포노프/근간

### 일빛 신서

- 세계사 문답 Ⅰ 료녕민족출판사/근간
- 2 세계사 문답 Ⅱ 료녕민족출판사/근간
- 3 러시아 당 건설의 역사 A.F. 코스틴 외/4,300원
- 4 <u>파란노트</u> E 까자케비치/근간
- 5 페레스트로이카 100 문 100 답 모스크바 아페엔 출판사/2,500원
- 6 알기쉬운 경제학 주종환/근간

